

200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0. 12

통 일 부

목 차

〈200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요약〉	1
1. 2000년도 경제시책 방향	11
2. 대내 경제동향	14
가. 재정부문	14
나. 건설부문	17
다. 농림수산업 부문	22
라. 광·공업 부문	32
마. 수송·통신부문	48
바. 과학기술부문	52
3. 대외경제동향	56
가. 대외무역	56
나. 남북교역	58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59
라. 대외경제협력	61
4. 종합평가 및 전망	73
* 부록 1. 2000년도 북한경제 주요동향분석	
2. 2000년도 북한경제 일지	

200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요약)

I. 2000년 경제부문 평가

○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아래 각종 실리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자기완결적 자력갱생」 으로부터 「변화적응적 자력갱생」 으로 변화 모색

- 경제성장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 「마이너스」, 광·공업 「플러스」 등 산업부문별 성장 교차로 전체적으로는 저성장 시현

1. 변화적응적 실리추구전략 모색

○ 2차에 걸친 산업구조조정(1월, 9월)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 되어 오던 연합기업소제도 폐지 또는 부분 수정

○ 기존의 공장·기업소 조직관리방식에 민주적 절차를 가미한 선출제 도입으로 전문성·생산성 제고 시도

○ 농민시장 등 사적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사회주의적 집단생산질서 이완 현상에 적응키 위한 「생산문화·생활문화」 정착에 주력

※ 최근 북한은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해 주체농법,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등의 재해석(개념 수정)을 통해 내부적 관리개선을 도모

0 대외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적극 활용하려는 대외
지향적 경제전략 추구

- 중·러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지원을 축으로 한 실리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관계 주력
- 연도중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서방국들과의 자원
외교 강화
- 국제사회에 2.5억달러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 호소(외무성 부상 최수현,
6.20~21, 제2차 UNDP AREP회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요청(무역상 강정모, 2.14 UNCTAD 총회연설)

2. 당 창건 55주년기념일을 목표시점으로 인민경제 전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총력 경주

0 생산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는 높았으나 실제로는 체제
모순, 재정 한계 등으로 초보수준의 노동의존적 자구노력에
불과

- 금년도 김정일의 경제분야 현지지도는 총 25회로 최근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해를 능가
- 금년도 예산은 전년비 0.1% 증가에 불과한 93.6억달러로 지난해와
같이 초긴축예산 편성

- ‘먹는 문제’ 해결 위해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토지 정리사업, 축산·양어 사업의 중점 추진
- 김책제철소 등 주요 공장기업소의 설비 보수 및 관리에 역점(13개 중요 생산시설 및 150여개의 중소설비)
 - 「전국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대회」(4.27~28), 「전국 공구 및 부속품 전시회」(4.29) 등 설비보수관련 행사 개최
-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석탄과 전력이 생산정상화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아래 기존 발전능력 및 채탄능력의 제고, 대형·중소형 발전소 병행건설에 주력

3. 농업 「마이너스」, 광공업 및 건설부문 「플러스」 성장 시현

- 금년 작황은 불량한 기상조건,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비 14.9% 감소한 359만톤으로 추정
 - 농작물 생육기의 가뭄현상과 「트라피룬」, 「사오마이」 등 태풍의 영향으로 곡창지대의 작물 피해 심대
- ※ “올해 가뭄, 고온, 태풍으로 140여만톤의 곡물손실을 볼 것”(북한 농업성국장, 9.25 담화내용)

○ 광·공업 및 건설부문에서는 노동력 투입 증대, 생산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생산 증가

- 에너지부문에 재정 집중투자(전력 전년비 15.4%, 석탄 12.3% 증액 투자)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10만KW), 청년영웅도로(46.3km), 개천-태성호 물길공사(160km), 강계선(강계-낭림)전철화 공사(56.8km), 등 대규모 SOC 공사 추진

○ 무역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등으로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수출,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 예상

- 무역총액은 전년비 20~30% (수출 15~20%, 수입 30~35%) 증가 예상

II. 2001년도 전망

○ 정치경제적 수요에 의해 차기 경제계획 준비등 '환경 변화 적응적 계획경제' 구축 가능성

○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사상은 사회주의, 자금은 외자' 라는 이원적 정치경제전략 강화

1. 경제계획 및 목표

- 경제목표상으로는 2002년(김정일 60회생일)까지 과도기적 경제전략으로서 경제기반 다지기에 주력
 - '98.10 '김일성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2002년까지의 당면 경제목표를 제시
 - 남북협력하에 공업부문(경공업 및 일부 중화학공업부문)에서 대대적 설비보수와 함께 신규 투자 병행
- 특히 경제기반 다지기가 어느정도 성공할 경우 연도말경 정치경제적 수요에 의해 「21C 10개년 전망목표」 등과 같은 차기 경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
 - 김정일 60회 생일에 즈음한 정치경제적 청사진 제시 필요성 증대

2. 경제시책방향

- 대내적으로는 주민노력동원 노선인 제2천리마대진군운동을 축으로 집단적 생산문화와 사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한 각종 시책 강구

0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협력하에 국제사회로의 진출 및 개방 지역의 확대 가능성

-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경제개발비용 유치 시도

- 나선지구 활성화와 신의주, 남포, 개성, 단천 등의 경제특구화 적극 추진

3. 경제상황 전망

0 북한의 경제상황은 식량난·에너지난 등 구조적 문제점 상존으로 외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지속 전망

- 식량사정은 남한 60만톤, 일본 50만톤 등의 차관·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업생산도 다소 나아지기는 할 것이나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은 30% 내외에 그칠 전망

2000년도 북한경제동향

1. 2000년도 경제시책 방향

- 북한은 2000년도에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신년사 대신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당해 연도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 '99년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해로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벌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 당 창건 55주년을 맞는 2000년을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로 규정하고
 - 강성대국 건설 본격화를 위한 「3대 기둥」으로 사상, 총대 및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하였음.

< 최근 3년간의 신년 「공동사설」 제목 >

'98년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99년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년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2000년 「공동사설」에서 경제부문 시책방향으로
 - ①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전력·철도운수·금속공업 정상화
 - ② 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 생산증대
 - ③ 농업부문에 대한 역량집중
 - ④ 국토관리사업의 대대적인 추진
 - ⑤ 모든 부문에서의 실리보장 등을 중심과업으로 설정하였음.

- 특히 올해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 등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중소형발전소 건설 강화, 석탄생산 증대 등을 강조하였으며
 - 농업부문에서는 '99년도 농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및 양어사업의 전군중적 운동전개를 제시하였음.
- 올해 「공동사설」은 당창건 55주년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었으나 경제정책으로 구체적인 대안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면과제의 해결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음.
-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 에너지난 해결촉구, 농업부문에 대한 역량집중, 인민소비품의 생산보장,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 등 경제시책방향을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설정하였음.
- 금년도 경제건설 선동을 위해 '공동사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1.4)를 시작으로 각 시, 도 및 공장·기업소별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쫓기모임을 개최하고
- 「농근맹」, 「직총」, 「여맹」 등 당 및 외곽단체들과 부문별 일꾼 열성자회의를 빈번히 소집하여 경제관리의 정치조직화에 주력하였음.

< 올해 당 및 외곽단체 회의개최 현황 >

시 기	내 용
1.26~27	전국 농업부문 일꾼회의
1.29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3.23~24	「농근맹」중앙위 제37차 전원회의
3.24~25	제3차 전국 선동원 대회
3.27	「여맹」중앙위 제32차 전원회의
3.30	전국과수부문 일꾼회의
4.24	「직맹」중앙위 제7기 41차 전원회의
4.27~28	전국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대회
7. 2	「청년동맹」 중앙위 20차 전원회의
7.28	「여맹」 중앙위, 제 33차 전원회의
7.31	「농근맹」 중앙위, 제38차 전원회의
8. 3	「직맹」 중앙위, 제 42차 전원회의
10. 3	「여맹」 중앙위, 제 34차 전원회의
10. 7	당총비서 추대 3돌 경축중앙보고대회 진행
11. 8	「생산문화 및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연관부문 일꾼회의」 개최

○ 2000년도 경제시책 방향은

- 장기적인 경제계획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당 창건 55주년을 겨냥한 경제건설과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 특히 심각한 에너지난의 해결을 위해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 농업에서는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혁명 및 순차적인 도별 토지정리사업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 경제부문에서의 실리보장, 당의 역할 강조 등으로 경제관리운용을 개선하고 그 동안 경제난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였던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2. 대내 경제동향

가. 재정부문

- '94년 이후 5년만인 '99년에 처음으로 예·결산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를 개최(4.4~4.6)하여 '99년 국가예산 집행결산과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음.
- '99년 국가예산 수입총액은 198억 103만원(91.2억달러)으로 계획의 97.2%, 지출총액은 200억 1,821만원(92.2억달러)으로 계획의 98.2%를 집행해 예산수행률이 계획목표에 근접하였으며
 - '98년보다 예산상의 군사비 지출이 다소 감소(29.3억원→29.2억원)된 반면 전력, 석탄,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어 인민경제비 지출은 확대되었음.
 - 또한 경제개발 수요증가로 전년도에 이어 재정수지에서 적자(2억 1,718만원, 달러 기준으로는 1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0년도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04억 532만원(93.6억달러)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3.1%, 지출은 1.9%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 에너지부문을 「인민경제」 희생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전력 15.4%, 석탄 12.3% 등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 과학기술(5.4%), 농업(5.0%), 경공업(4.0%)부문에 도 지출을 증가시켜 식량난 및 소비품 부족 타개에도 관심을 기울였음.
- ※ 지난해에는 전력(15%), 농업(11%), 석탄, 금속·기계, 철도운수, 과학기술(이상 10%) 등 기간산업부문에 전년비 10~15% 증액편성

- 2000년 지출예산 총액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년과 마찬가지로 14.5%인 29억 5,877만원(13.6억달러)로 소폭 증액되었음(13.4억달러→13.6억달러, 전년비 1.9% 증가).
- 내각에서 지방예산제 실시원칙과 요구, 절차들을 규제하는 「지방예산제 규정」(7장 66조)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음(「민주조선」, 8.17)
 - 북한이 이 규정을 채택한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및 재정규율 이완, 헌법 개정('98.9)을 통한 지방 정권기관의 개편, 농민시장 거래 등 사적 경제활동 확대 등 최근 경제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 그동안 수령의 교시, 당 정책노선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지방예산제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 지방예산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 2 정령을 통해 재정상 및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였음
 - 새로 임명된 재정상 문일봉과 중앙은행 총재 김완수는 대외경제·무역 등 대외관계 업무에 비교적 밝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경제계획기반구축 및 대외무역 증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이로 볼 때 올해 재정부문에서는
 - 2000년의 재정규모가 '94년에 비해 거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고
 - 당면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전력, 석탄부문과 인프라시설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나
 - 증산절약 투쟁, 철저한 실리보장, 재정적 낭비현상 제거, 지방예산제 강화 등 「자력갱생」식 재정운용 방법에 의존한 결과

- 막대한 규모의 경제개발수요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됨.

< '99년 및 2000년 예산 비교 >

항 목	'99년 예산	'99년 결산	2000년 예산
수입총액	203억 8,172만원 (전년비 3.0%증)	198억 103만원 (계획의 97.2%)	204억 532만원 (전년비 3.1%증)
지출총액	203억 8,172만원 (전년비 1.8%증)	200억 1,821만원 (계획의 98.2%)	204억 532만원 (전년비 1.9%증)
국 방 비	지출총액의 14.5%	지출총액의 14.6%	지출총액의 14.5%
농 업	전년비 11.0%증가		전년비 5.0%증가
경 공 업			전년비 4.0%증가
석탄공업	전년비 10.0%증가		전년비 12.3%증가
전력공업	전년비 15.0%증가		전년비 15.4%증가
철도운수	전년비 10.0%증가		
금속공업	전년비 10.0%증가		
과학사업비	전년비 10.0%증가	전년비 6.3%증가	전년비 5.4%증가

나. 건설부문

○ 북한의 경제 건설실적은 '9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의 경우에는 당 창건 55주년을 겨냥,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 각 부문에서 건설실적이 증가하였음.

○ 시기별 건설실적을 보면

- 상반기 완공·조업실적은 23건, 하반기 실적은 54건으로 특히 당 창건 55주년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는 구호아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당창건 기념일(10.10)을 전후한 4/4분기에 집중 완공되었음.

< 분기별 경제건설 실적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9건	14건	4건	50건	77건

○ 대상별로 보면

- 북한의 당면과제인 토지정리사업, 기초식료품가공공장, 양어장 등 '먹는 문제'와 전력난 극복에 경제건설의 정책적 주안을 두었으나
- 여타 제조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의 신규투자, 개건확장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정상화를 위한 건설실적은 매우 부진하였음.

< 부문별 경제건설 실적 >

구분	먹는문제	전력	제조업	기타
건수(비중)	32건(41.6%)	22건(28.6%)	8건(10.4%)	15건(19.4%)

○ '99. 11 착공한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가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토지정리사업('98.10~'99.4)을 종료한데 이어 '99.10부터는 평안북도에 대한 토지정리를 착수해 5월 종료하였고, 9월부터는 황해남도의 토지 정리사업을 착수하였음.

- 평안북도의 경우 총 토지정리 목표대상 면적은 5만 5,786정보 (논 5만 143정보, 밭 5,643정보)이며 확대면적은 4,221.6정보임.

○ 이밖에 북한은 국토관리사업으로

- 이깔나무, 잣나무 등 경제림 7억그루를 식수하여 산림 20만정보를 새로 조성하였으며

- 4천여km의 도로와 4천여km의 강·하천을 각각 건설·정비 하였으며 7백여km의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는 한편

- 10만정보의 토지정리와 1,500정보의 양어장 건설이 이루어졌음.

< 2000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

월별	건설 실적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자성군 소재 종합휴양관 '은덕원' 건설(1.5) ○ 함남도 성천강 1, 4, 17호발전소 등 중소형발전소 조업(1.10) ○ 함남도 성천강 32호발전소 조업(1.1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도 김책제철발전소 조업(2.13) ○ 황북도 황해제철발전소 조업(2.14) ○ 평북도 태천군 태령강 2호발전소 조업(2.14) ○ 평북도 구장군 소재 구장도자기 공장 조업(2.14)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도 청년제염소 준공(4.11) ○ 김책항 개건확장공사 준공(4.12) ○ 3·24 청년광산 조업(4.12) ○ 6·20발전소 조업(4.13) ○ 자강도 화평포장재공장 조업(4.22)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도 「수안규조토광산」 조업(5.2) ○ 함흥 철도국 「미둔청년발전소」 준공(5.5) ○ 자강도 우시군 「하창청년발전소」 조업(5.10) ○ 평북도 「구장시멘트공장」의 탄산칼슘직장 조업(5.11)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첫 공정인 대각갑문1차 가물막이 공사 완공(5.18) ○ 의학과학원 내분비연구소 준공(5.19) ○ 온천양어장 개건·확장공사 마무리(5.26) ○ 홍성률소속부대, 극초저낙차방식의 새 발전소 조업(5.2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남도 재령군 소재 장수산유원지 건설 1단계공사 완공(6.7)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화력발전소 1만kVA증기터빈 발전기 준공(7.18)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건설의 기증에 의해 건설된 「낙랑기와공장」 조업(8.9)

월별	건 설 실 적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월산 삼성사 재건공사 준공(9.19) ○ 용등탄광 갱내「장거리벨트 콘베이어 수송선」 2단계공사 준공(9.2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랑군 '어랑 1호 청년발전소' 조업(10.3) ○ 평북도 봉화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조업(10.2) ○ 황남도 신원군 국영계남농장 준공(10.4) ○ 함남도 낙원군 신평청년저수지 준공(10.4)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준공(10.4) ○ 강계-낭림 전철화공사 완공·개통(10.5) ○ 평양화장품공장 세수비누직장 조업(10.8) ○ 평양-남포간 청년영웅도로 준공(10.11) ○ 평북소재 선천광산 종합목장 조업(10.15) ○ 원산화학공장 석면포직장 조업(10.15) ○ 함흥시 식료공장 원료기지(300정보) 준공(10.20) ○ 송원 언제확장공사 준공(10.21) ○ 태천 언제확장공사 준공(10.21) ○ 태천 5호발전소 준공(10.21) ○ 평북도 박천1호발전소 조업(10.26) ○ 강원도 세포군 소재 '내평발전소' 준공(10.27) ○ 대흥단군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분장들의 돼지농장건설(10.27) ○ 「보통강-양해합영회사」(라면제조) 조업(10.30)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강계 닭공장 건설(11.2) ○ 함흥시 기초식료품공장(간장, 된장 등 생산) 완공(11.8) ○ 평남도 온천양어장 개건확장공사 완공(11.11) ○ 평양시 통일거리 「낙랑원」(연건평 3,600m²의 종합편의 봉사기지, 목욕탕) 조업(11.17) ○ 평양시 새수원지 완공(11.20) ○ 강원도 천내제염소(150정보) 준공(11.21) ○ 하성타이어공장 기와분공장 조업(11.23)

월별	건 설 실 적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조업(12.1) ○ 북창화력, 메기공장 준공(12.5) ○ 평남 은천양어장 준공(12.8) ○ 순천화력, 메기공장 준공(12.10) ○ 순천토기와공장 조업(12.10) ○ 청진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0) ○ 함북도 칠보산합영회사 조업(12.10) ○ 사리원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1) ○ 해주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1) ○ 개성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4) ○ 평양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5) ○ 북창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5) ○ 원산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15) ○ 함남도 영광청년양어장 준공(12.21) ○ 자강도 태남2호발전소 완공(12.24) ○ 함남도 함흥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24) ○ 평북도 신의주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24) ○ 양강도 혜산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24) ○ 남포 기초식료품공장 조업(12.24) ○ 황북도 서흥군 범안양어장 완공(12.25) ○ 강원도 고산토기와공장 조업(12.26) ○ 황북도 인산군 메기종어장 완공(12.27) ○ 평남 순천시 동암발전소 완공(12.28) ○ 함흥-서호간 전철공사 완공·개통(12.28) ○ 백명현이 일하는 농장, 군민 용산발전소 건설(12.29)

다. 농림수산업 부문

[농업]

○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 '주채농법'의 철저한 관철을 주장하면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밀고 나가며 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 임경숙 재정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4.4)에서 올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5% 증액하여 편성했다고 보고하고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및 두벌농사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 발전과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이의 관철을 위해 「농업근로자 쉼기모임」, 「전국 농업부문 일꾼회의」(1.26~27), 「농근맹 제37차 전원회의」(3.23~24) 등의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였음.

○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자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김정일은 올해 2차(3월, 11월)에 걸친 양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 현지도도를 통해 '고산지대의 다수확작물인 감자농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 특히 감자생산을 늘이기 위해 육종사업 강화, 영농방법개선, 수송조직과 저장 및 가공대책 마련, 방풍림 조성 등을 지시하였음.

※ 김정일은 「대흥단군종합농장」을 '98.10, '99.8 등 모두 4차례 현지도도

- 또한 올해 감자농사 지도를 위해 농업성에 「감자생산국」을, 도농촌경리위원회에 「감자생산처」를 각각 설치하고 각 군의 1개 농장에 감자담당 1개 분조를 신설하였음.(조총련기관지 「조국」, 2000.7 농업성부상 이원중 인터뷰자료)

○ '대자연개조구상'(98.7)에 따라 농업증산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과 관련

- 김정일은 평안북도,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을 3차례(1월, 5월, 12월) 현지지도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는바

※ 김정일의 평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1.24~27)시 담화에서는 강원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군중적운동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모두 정리하며, 토지정리사업의 목표로 알곡생산 증대,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봉건적 토지소유의 잔재청산 등을 제시(중방, 4.18)

-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은 '99년 10월 이후부터 도내 총 5만 5,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4,221.6정보의 경지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아래 추진하였으며

- 1단계공사('99.10~2000.1)를 앞당겨 수행하여 2만 9,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1,000여 정보의 새 경작지를 조성한 데 이어

- 3월중 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5.10 동 사업을 완료하였고

- 10월부터는 황해남도에 10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정리사업을 착수하였음.

※ 평안북도 토지정리 사업 결과

· 토지정리면적 5만1,500정보

· 53만 1,340여 폐기논들을 14만 9,384만개의 규격포전으로 정리

· 총 2만9,000여km길이의 논두렁을 1만6,000여km로 단축하여 수천 정보의 새 땅을 조성

· 폐기논밭들이 800평, 1,000평, 1,500평 단위의 규격포전으로 변모

- 이모작 작물(밀, 보리)의 재배가 확대되면서 비료 수요량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 비료공급량은 '99년에 비해 약간 호전되긴 했지만 토양성분 및 곡물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전체 비료량은 여전히 부족하였음.
 - ※ WFP/FAO 공동조사단은 2000년도 비료 가용량을 국내생산 28,300톤, 상업적 수입 및 국제적 지원분 181,700톤을 포함한 21만톤(성분기준)으로 추정
 - ※ 우리 정부도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증산에 기여하기 위해 5~6월에 걸쳐 비료 20만톤(물량기준)을 지원
- 「복합미생물기술과 자연농법에 관한 국제토론회」(9.20~21)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는 바
 - 복합미생물비료공장은 '96. 10 처음 건설이 시작된 이래 현재 북한에는 100여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북한이 이처럼 복합미생물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복합미생물비료를 화학비료 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연도중 주요 곡창지대의 모내기 실적은 '99년 94.8%에서 89.3%로 감소해 전년비 5~6%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모내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저조한 것은 작년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 북부지역의 봄이 늦게 시작되었고 가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농사와 관련한 기후상태는

- 2월~5월간의 가뭄현상으로 5월말까지의 강수량은 123.5mm로서 평년수준인 169.3mm의 72.9% 수준에 불과하였고
- 5월~7월 기간중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쳤음.

※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남도 배천, 개풍·판문군(연백평야), 평남도 문덕·속천군(열두삼천리평야) 등에 가뭄현상 발생

<5~7월 기간중 평년대비 강수량 비중 >

(단위 : %)

지 역	황남도	황북도	평남도	평북도	강원도	함남도	함북도	자강도	양강도
비 중	62.5	89.7	51.1	67.4	46.4	50.9	53.0	65.1	65.9

- 6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7℃ 이상 높은 경우가 3~4차례 이상 나타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는 바
-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7월말까지 계속된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복 보도하였음.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함경남도 대다수 협동농장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중방, 7.7)

“왕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전당, 전국, 전민이 논밭에 물대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중방, 7.19)

- 한편 8월말과 9월 중순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황해도, 함경 남북도, 강원도 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됨.
- 을 북한의 전반적인 농업생산과 관련해 농업성 농산국장은 담화(9.25)를 통해 금년 가뭄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였음.

※ 담화요지 :

- 논벼와 강냉이 파종시기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40~50%로 감소
- 저수지의 저수량은 계획의 3~18% 정도로 저조
- 전반적으로 모내기가 한달 이상 지연 또는 일부지역 미실시
- 혹심한 왕가물과 고온으로 인하여 논벼 36만톤과 강냉이 66만톤 등 약 100여만톤의 알곡수확 감소 예상
- 최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4만 6,000여정보의 논과 7만 6,000여정보의 강냉이밭 등 약 14만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매몰 또는 침수
- 태풍피해로 인해 논벼와 강냉이 수확량은 최소한 40만 5,000여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총체적으로 금년도 가물·고온·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알곡 손실량은 도합 140여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내년에도 식량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 확실

○ 북한은 2000년도 곡물생산량에 대한 공식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불량한 기상조건, 재배면적 감소 등을 감안하면 전년비 14.9% 감소한 359만톤으로 추정됨.

※ FAO/WFP는 북한식량 평가단 특별보고서(11.16)에서 1999년의 347만톤 보다 약 16%가 감소된 292만톤으로 추정

○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지원과 관련해서는 '96년 이후 북한당국과 UN기구가 공동으로 시작한 겨울밀·봄보리의 이모작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바,

- 6.20~7.1동안 방북한 WFP/FAO 공동조사단은 지난 3년간의 ('97~'99) 이모작 프로그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 2000년도 이모작 작물의 재배면적이 목표치의 72%에 해당하는 89,000ha에 이르렀으며, 예상수확량은 총 152,000톤(1.7톤/ha) 정도로 추정

※ WFP/FAO 공동조사단은 강수량 부족 및 작물의 성장지연으로 이모작 작물의 목표치인 2톤/ha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농업성 부상 최수현은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AREP)에 관한 제2차 UNDP회의(제네바, 6.20~21)에 참석하여 지원을 호소

- 이 회의에서 최수현 부상은 북한의 연간 곡물수요량이 450만톤에 이르며, 비료·농약 조달비용으로 4.4억달러(3년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 제2의 식량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2.5억달러(식량지원 별도)의 지원을 요청

○ 북한은 식량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여 왔는데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 특히 6월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각지에서 닭공장 and 가금목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각지의 군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최신 시설을 갖춘 닭공장과 가금목장을 건설하고 있음" (6.10 노동신문, 6.15 평방)

※ 금년 6.15 남북정상회담 참가차 평양을 방문한 남측 수행원들은 북측의 안내 배정에 따라 「만경대닭공장」을 참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강계시 신흥지구에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닭공장이 완공 단계 (11.2 중방)

- 이밖에도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돼지공장(6.26), 강계시 닭공장 (6.27), 평북도 가금목장(7.29), 「112호 닭공장」(11.3) 등이 잇따라 건설되었음.

※ '닭공장', '돼지공장' 건설은 북한이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등 국제 기구의 지원을 받아 염소·양 등 '플먹는 짐승' 사육과 더불어 축산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임 업]

○ 임업부문과 관련해서는

- 신년 공동사설에서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4.4)에서 임경숙 재정상은 '산림조성과 도시원림화사업등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언급하였음.

- 식수절(3.2)을 맞아 전지역의 원림화를 촉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일군·근로자·청소년'들의 봄철 나무심기 열기모임을 개최하였음.

- 3~4월 두 달 동안 「봄철 국토관리사업 총동원 일간」 행사를 전개하여
 - 약 10억그루의 나무를 심고 6만7,000여 정보의 산림조성계획을 세웠으며
 - 황해남·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많은 시·군들에서 땀나무림 조성 사업을 전개하는 등
 - 금년 봄철동안 6억4,800여만 그루를 식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중앙통신, 6.5)
- 한편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는
 - 11월 상반기까지 1,000여만그루의 나무심기 등을 성과로 선전하였음(11.9, 중앙통신)
- 「전국 과수부문 일군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 당창건 55주년인 올해와 당중앙위 북청확대회의 40주년이 되는 다음해에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였음.
 - ※ 북청확대회의는 종래 '81년, '91년 등 10년 단위로 매 4월에 개최해 왔으나 최근들어서는 '98년에 이어 2년만에 개최
- 또한 산림조성 과학화를 위해 자강도에 산림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동 단지의 조성은
 -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산림조성 사업을 질적 위주로 변화를 꾀하여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 특히 무분별한 벌목사업 및 홍수·가뭄 등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근본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01~20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년계획 기간」으로 설정하는 내각 「결정」을 채택하였음. (민주조선, 10.4)
 - 결정 내용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 임업부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등에서 10년동안 해마다 심어야 할 식수로서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포플러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빨리 자라고 유용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 2001년부터 국가양묘장 등 각지에 양묘장을 조성해 좋은 수종과 묘목을 제때에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산림조성 10년계획 기간」 설정은 에너지난에 기인한 나무의 남벌 및 홍수·가뭄 등으로 황폐화된 산을 근본적으로 복구하고
 - 산림조성 사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질적위주로의 변화를 꾀하여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임.

[수산업]

- 신년 「공동사설」에서 수산업 부분에서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 임경숙 재정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에서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고 양어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발전 시킬 것’임을 밝혔음.
- 최근 북한은 양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는 바
 - '97.6 김정일위원장이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라고 지시한 이래
 -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양식어종 개발·보급과 각지의 연못·호수 등을 활용한 양어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

○ 김정일위원장은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열대메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5.10)를 시작으로 9.20, 10.18에도 각각 새로 건설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고

- '열대메기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였음.

※ 연도중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4번

○ 북한은 올해 들어 「광명성제염소」에서 소금생산을 시작했고, 「황북청년제염소」를 4월에 준공하는 등 소금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음.

- 함경북도 어대진 지구에서 400정보 규모의 염전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는 염전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동해안에 자체로 소금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염전현황은 어대진지구 염전을 포함하여 총 16개(서해안 13개, 동해안 3개)

○ 이처럼 북한이 염전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 '98. 5 김정일위원장이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제소금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 소금이 화학공업제품(가성소다, 탄산소다, 염산, 농약, 합성수지 제도 등)의 생산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 주민들의 식용소금 부족현상 타개 목적 외에도 공업용 소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어업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바

- 올해에도 양측은 공동어획 및 실포공장에서 통조림 가공·제조 (주로 꽂치, 명태, 대구) 협력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 12.20 북·러는 평양에서 내년도 어획쿼터량 및 조업어선수 확정, 수산물 공동양식·판매 및 수자원공동탐사 등 협력사업에 합의

라. 광·공업 부문

[산업조직 개편]

○ 북한은 지난 '98.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올 1월까지 산업조직의 개편 작업을 진행해

-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총국」 등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기업소들을 대거 포함하여 종합적 생산조직 40여개를 일반 공장·기업소 및 「관리국」 체제로 개편하였음.

※ 금속공업의 경우 3대 철강생산기업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모두 개편대상에 포함

※ 그러나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구장탄광종합기업소 등 일부 기업소는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

<산업부문별 개편현황>

부문	금속	기계	전기·전자	화학·전재	경공업	광업	임업	총계
건수	4	9	10	5	1	12	3	44

- 개편의 특징으로는 시기면에서는 헌법 개정('98.9) 이후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99.12부터 개편을 집중적으로 단행하였다는 점이며
- 범위면에서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걸쳐 북한의 대표적인 특급기업소를 포괄하는 대폭적인 개편이라는 점임.
 - ※ 농업의 경우 소유형태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 협동농장 등 관리 단위 및 관리방식이 여타 산업부문과 상이한 관계로 제외
- 개편 방향면에서는 기존의 조직규모를 축소·단순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상의하달체계 강화, 재정수입 증대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 광업·임업 등 「채취공업」의 경우 종합적 생산조직의 축소와 함께 연합기업소·연합총국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관리국」 체제로 단순화
- 그러나 북한은 9월부터 「연합기업소」 제도를 복원하는 등 산업조직을 재개편하여
 - 과거 「연합기업소」였던 공장·기업소를 다시 「연합기업소」로 복원하는 동시에 경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 「연합회사」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으며
 - ※ 연합회사는 동일 업종의 여러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하여 판매, 수출, 자재수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 2000.12 현재 20여개의 공장, 기업소를 연합기업소로 복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부문별 개편동향을 보면
 - 중공업부문(금속, 기계, 화학공업 등)에서는 과거 「연합기업소」였던 대규모 공장들을 「연합기업소」 체제로 복원하고
 - ※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천리마제강소, 대안중기계공장, 낙원기계공장,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 채취공업부문(광업, 임업)의 경우는 지역별 연합기업소(연합총국) 조직에서 「관리국」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연합적 기업 운영체제인 「연합기업소」 조직으로 환원하였으며
 - ※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 북창지구 석탄공업관리국→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 임업연합총국 → 자강도 임업관리국 → 자강도임업연합기업소 등
- 경공업부문은 경공업성 산하 각 업종별 「관리국」이 「연합회사」로 전환하고
 - ※ 방직공업관리국 → 방직연합회사, 일용공업관리국 → 일용연합회사, 신발공업관리국 → 신발연합회사, 비단공업관리국 → 비단연합회사 등
- 수력발전부문은 각지의 수력발전소들을 포괄하는「수력발전연합회사」를 신설하였고 다만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연합기업소」 체제로 복원하였음.
 - ※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봉화갑문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이 「수력발전연합회사」 산하에 있다고 보도(10.19, 중방)

○ 2차 조직개편의 특징은

- 대대적인 산업조직 개편 이후 불과 9개월만인 짧은 기간에 다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
- 중공업부문의 경우 대표적인 「특급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공장·기업소들은 그대로 이전 조직형태를 유지시킨 점
- 대외무역과 관련한 경공업부문의 경우 「연합회사」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였다는 점 등임.

○ 따라서 2차 조직개편은

- 경제적 「전·후방효과」가 큰 전력·석탄·금속공업 등 「선행부문」의 특급공장·기업소들과

- 경제난으로 북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거의 상실된 실정에서 수출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되는 경공업부문의 관리·운영 조직들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 연초에 1차적으로 실시한 전반적 산업 구조조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보완적 산업조직 재편인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산업조직 개편 현황 >

부 문	종 전	2000.1 개편	2000.9 개편
금속공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천리마제강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계공업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공업관리국 낙원기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발전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수력발전연합회사(신설)
화학공업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광업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북창석탄공업관리국 순천석탄공업관리국 무산광산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임업	자강도 임업연합총국 양강도 임업연합총국	자강도 임업관리국 양강도 임업관리국	자강도 임업연합기업소 양강도 임업연합기업소
경공업	방직공업관리국 일용공업관리국 신발공업관리국 비단공업관리국	방직공업관리국 일용공업관리국 신발공업관리국 비단공업관리국	방직연합회사 일용연합회사 신발연합회사 비단연합회사

[부문별 동향]

(1) 광업부문

- 북한은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석탄공업을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이 된다고 규정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석탄 생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올해 석탄부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 예산을 전년비 12.3% 높게 편성하였고
 -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의 대규모 탄광에서 확보탄량과 채탄장을 늘이는 한편 탄광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90년대 이후 북한의 석탄생산 동향을 보면
 - 신규탄광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90년대 초반 연간 3,000여만톤에 이르던 생산량이 '99년에는 2,100만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은 석탄증산을 위하여 ▲신규탄광 개발 ▲효율적 채탄방법 도입 ▲운반능력 향상 등 갱의 현대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오고 있음.
- 북한은 각지 시·군들이 최근년간 180여개의 중소탄광을 개발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60여개를 건설하였다고 보도(중방, 7.3)하였는바
 - 북한이 중소탄광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단위 및 사업단위들이 석탄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 ※ 전기석탄공업상 실태록은 "(향후) 석탄공업부문에서 고속도 굴진 운동을 벌이고, 여러 지역들에 탄광과 갱들을 건설하며, 중소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언('99.11.3, 중방)

- 올해(9.21) 용등탄광에 갱내 대형장거리 벨트컨베이어 2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음
 - 용등탄광(평북도 구장군)은 연간 석탄 생산능력이 200만톤(매장량 1억 5,000만톤 추정)에 달하는 북한 최대의 무연탄광으로 채굴된 석탄은 주로 평북도와 자강도에 공급하고 있으며
 - ※ 용등탄광 장거리 벨트컨베이어(7km)는 채탄장에서 저탄장까지의 3단계 구간중 갱내의 2단계 구간으로 착공한지 근 1년만에 완공
 - 용등탄광의 콘베이어벨트 수송선은 연간 수송능력이 100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은덕지구에서 석탄지하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 석탄지하가스화 사업은 석탄을 땅 속에서 가연시켜 일산화탄소·수소가스·메탄가스를 뽑아내 공업용 가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 은덕지구 석탄지하가스화 사업은 작년 9월 평남도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화발전소」 준공에 이은 두 번째 것임.

(2) 경공업부문

- 북한은 올해부터 경공업부문의 생산정상화로 인민소비품을 늘인다는 목표 하에
 - 경공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전년비 4% 증가시켰고
 - 금년중 신의주화학장품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각 도마다에 현대적 기초식품 생산기지들을 신설하고 경공업공장들의 설비를 현대화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 경공업부문과 관련 “모든 도들에서 당 창건 55돐까지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자”라는 ‘당중앙위 구호’를 제시(7.31)

- 경공업성 부상 이주오는 「노동신문」(6.3) 기고를 통해 그동안 인민소비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해 주민들이 생활상 애로를 겪어 왔다면서
 - 경공업부문의 방향으로 생산의 정상화, 제품의 질 제고, 경공업의 현대화 실현을 내세우는 한편
 -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등이 생산정상화가 진행중이며
 -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설비현대화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
- 특히 경공업부문에서는 최근 각 도마다 기초식품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 이 사업은 '99.10 김정일이 '엄을용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식료공장'에 대한 현지도시 각 도에 이와 같은 공장을 세워 기초적인 식료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 가능한 한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자체조달로 각 도 특성에 맞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가진 식료공장을 건설해 기초식품(간장, 된장 등)을 생산함으로써 도의 식생활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임.
- ※ 함흥(11.8)을 비롯해서 청진(12.10), 사리원(12.11), 해주(12.11), 개성(12.11), 평양(12.15), 북창(12.15), 원산(12.15) 남포(12.24), 신의주(12.24), 혜산(12.24) 등 11개 기초식료품공장들이 잇따라 준공

○ 경공업부문과 관련된 주요 행사로는 김정일의 신의주화장품 공장 현지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6.9), 영변·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6.21) 등이 있음.

-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북한 최대의 화장품공장으로 향수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과 비누, 치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 지난해 5월 김정일이 현지지도시 동 공장을 남신의주에 건설할 것을 지시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이전공사에 착공 현재 건설 중에 있음.

- 영변·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는 올해 김정일위원장의 경공업 부문에 대한 최초의 현지지도로

- 단기적으로는 견직물생산을 늘려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공업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경공업부문에서는

- 접시, 사발 등 도자기를 생산하는 구장도자기공장(2.14)과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자강도 화평포장재공장(4.22)이 조업을 시작 하였고

- 신발제조에 필요한 규조토를 생산하는 수안 규조토광산(5.3)과 평북도내 경공업공장에 기초화학 원료의 공급기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장시멘트공장」의 탄산칼슘직장도 조업(5.11)을 시작하였음.

- 현대아산의 설비공급을 받아 건설한 「낙랑기와공장」(평양)이 조업(8.9)해 연간 720만장의 각종 기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고

- '즉석 국수'(라면)를 생산하는 「보통강·양해합영회사」를 설립·조업하였음(10.30)

※ 북한의 보통강 상사와 홍콩의 리달무역공사가 공동투자

(3) 금속·기계부문

○ 2000년 4월 예·결산보고서 금속공장의 중요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하며 철광산 생산능력을 높여 철강재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것을 강조하였고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공장, 자동차공장을 비롯한 중요 기계공장들의 생산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음.

○ 특히 금속공업과 관련해 금속기계공업성부상 김승현은

- "금속공업부문의 목표는 철강재 생산을 지난 시기 실적이 높았던 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민주조선", 1.12)이라며

※ '99년도 북한의 강철생산규모는 124.3만톤으로 '90년대 최고수준인 336.4만톤('90년도)의 1/3이 조금 넘는 수준

- 원료나 설비들이 지난해 말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낙관적이라고 전망하면서도

- 금속공업부문의 경우 금속공장의 중요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하며 철광산 생산능력을 높여 철강재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하였고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공장, 자동차공장을 비롯한 중요 기계공장들의 생산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위원장은 평안북도내 공업부문(1.25~1.28), 「북중기계연합 기업소」(5.16)를 각각 현지지도하여

-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전개, 노동자의 기술기능 수준 향상, 선진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한 품질제고를 강조하고, 기계공업부문의 증산을 촉구하였음.

※ 평북도 현지지도 대상이었던 낙원기계공장에서는 현대적·능률적인 전자유압조정식 굴착기계열 생산준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구성 공작기계공장에서는 새로운 공작기계들을 연구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고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2.19)

○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일위원장은 함북도(8.1~2), 함남도(8.26~27), 자강도(8.28~31) 등 연이은 인민경제부문 현지 지도를 통해 공업부문의 생산정상화를 촉구하였음.

- 함북도 공업부문 현지지도에서는 금속기계공업과 관련해 기존 생산능력의 최대한 발휘, 신규생산능력의 추가 조성, 정광 등 원료·자재의 충분한 공급을 통하여 철강재 증산을 지시하였고

- 자강도 인민경제에 대한 현지지도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시하였음.

○ 「김책제철소」는 지난해 3월부터 대대적인 설비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민주조선」, 4.30).

- 13개의 중요 생산시설과 150여개의 중소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조와 설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제철과정에서 필수적인 코크스의 도입량이 전년보다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고

- 최근까지도 설비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동 제철소의 생산정상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월중 대 중국 코크스 도입량 >

2000. 1~9월	'99. 1~9월	물량대비증감률
36,616톤	51,514톤	△28.9%

(4) 전력부문

-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으로 규정하면서
 - 전력공업과 관련 "현존 발전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다 같이 밀고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해 올 재정보고에서는
 - 2000년 예산을 전력공업부문에 전년비 15.4%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로 책정하였고
 - 태천 2, 3, 5호발전소 건설과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건설 등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조속히 완공시키고
 - 균중적 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전기를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음.

- 7.31 발표된 당 창건 55주년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도
 - 석탄공업과 함께 전력공업을 경제건설의 전초선으로 규정하고
 - 북창·평양화력발전소 등의 생산정상화를 강조하였으며
 - 태천 2,3,5호 발전소, 안변청년 2단계 건설의 조기완공 그리고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제시하였음.
- 북한은 올 2월 공식매체를 통해 전력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보도하였음.
 - 「중앙통신」(2.23)은 전력사정이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으며 전력부족은 생산, 철도, 농업부문 등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음을 실토했고
 - 전력부족의 원인으로 강수량의 부족, 설비보수의 미비, 석탄부족 및 생산정상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을 열거하였으며
 -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음.
 - ※ '99. 12. 21 전기석탄공업성 생산종합국장 김수남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부족의 원인으로 전력수요 증가, 강수량 부족 등을 열거하고 화력발전소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석탄생산 증대를 강조
- 북한은 전력난 해결방안으로 화력발전소의 최대한 가동,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 중소형발전소의 지속적 건설, 수요 측면에서 전기절약을 강조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해부터는 김정일위원장의 태천발전소 현지도(‘99.1.18)를 계기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 전기석탄공업성 국장 김기옥은 '99.3.12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중소형발전소는 일부 지방산업과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이므로 올해는 10여개의 대형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다”고 언급

○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에 주력하여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및 태천발전소 건설(송원·태천 언제확장 및 태천 5호 발전소 건설)을 10.4 완료하였음.

- 김정일위원장은 11.17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시 3년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내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안변청년발전소」는

- '86.10 서해쪽으로 흐르는 북한강, 임진강 등을 경사가 급한 동해쪽으로 끌어들이는 유역변경식 발전소(총 81만kW 규모)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착공
- 사업 추진중 건설계획이 2차례 축소 변경('92.5 81만kW→40만kW, '95.11 40만kW→10만kW)
- '96.9 착공 10년만에 동 발전소 1단계공사가 완공·조업(발전능력 10만kW)하고, 동년 12월 2단계공사를 착공, 3년 10개월만인 2000.10 완공

※ 「태천발전소」는

- 자강도 남서부의 위원강, 충만강 등에 저수지를 조성하여 그 물을 터널을 통해 대령강 상류로 보내어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
- 총 5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건설하여 도합 80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82년 건설을 추진
- '88.8 1호발전소(15만kW)와 2호발전소(25만kW)를 완공·조업
- '99.1 공사를 재개하여 송원 언제·태천2호발전소 언제 증축공사 및 3호·5호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및 태천발전소 건설(송원·태천언제 확장 및 태천 5호발전소 건설) 완공은

- 북한이 지난 '98.10. 「내각결정」을 채택, 동 발전소들을 당창건 55돌(2000.10.10)까지의 중요 건설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중지원을 한 데 따른 것으로
- 대규모 발전소인 동 발전소들의 완공으로 강원도(안변청년발전소), 평북도(태천발전소) 일대 공장·기업소들의 가동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을 보면

- '98년까지는 지방단위의 실적경쟁에 따라 건설 건수가 대폭 증가 하였으나
 - 규모면에서는 극소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홍수, 가뭄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보다 전기를 1년내내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99.1.18, 노동신문)
 - '99년부터는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형 발전소 건설, 강·하천의 종합적 활용 등 질적 수준 제고에 주력하여 오고 있음.(개당 평균 발전능력 '98년 7kW→ '99년 80kW)
- ※ '99년 이후 북한은 대동강에 발전소 건설 적지 300여 곳을 확정하고 수성천(함북), 성천강(함남), 비류강(평남) 등에 각각 수십개의 중소형 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건설

○ 2000년도 중소형발전소 건설 목표는 예년(500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340여개 정도로 판단되나

※ “올해들어와 340여개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30여개의 발전소를 완공”(「노동신문」, 8.6)

※ “올해부터는 매년 중소형발전소를 500개씩 건설할 계획”(전력공업부 부부장 주동일 '98.1.29 「조선신보」회견)

- 건설실적은 100여개로 목표 대비 건설실적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수면에서의 건설실적은 부진

※ “중소형발전소는 올해들어 북한 전역에서 100여개 이상을 건설”(전기 석탄 공업성 중소형발전소지도국 부국장 길홍진 10.5 「중방」 회견)

- 이처럼 금년도 중소형발전소 건설실적이 저조한 것은 북한이 당창건 55돌(10.10)을 겨냥하여 평양-남포고속도로, 안변청년발전소, 태천 발전소 등 대규모 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도별 중소형발전소 건설 실적 >

(10월말 현재)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기 타	계
32개	24개	19개	10개	10개	5개	100여개

※ 북한 방송 종합

○ 그러나 중소형발전소 건설규모는 예년보다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 올해 평안남도 및 황해남도가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개당 평균 발전능력이 400kW 정도로 확대('98년은 개당 평균 7kW)

※ 「김철발전소」(2.13 조업), 「봉화화학공장 화력발전소」(10.3 조업)의 경우 설비용량이 수천kW에 이르는 중형급 발전소

- 이로 미루어 북한은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체계화·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성천(함북), 성천강(함남), 비류강(평남) 등 각지의 강·하천에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

※ 황해남도의 경우 도내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다른 시·도와는 달리 수·화력발전소보다는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가스발전소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주력

○ 북한은 금년들어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총 2만kW 정도의 발전능력을 추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

※ 중소형발전소의 개당 평균 발전능력이 예년보다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성한 총 발전능력은 예년수준에 미달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현황(추정) >

(단위: kW)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계
개 수	185	300	5,000	1,000	100	6,585
총 발전능력	90,000	60,000	36,000	80,000	20,000	286,000
개당 평균 발전능력	486	200	7	80	200	43

마. 수송·통신부문

- 북한은 2000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철도운수를 지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송은 곧 생산이고 생산은 곧 수송이라는 인식 하에 철도수송문제 해결을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2000년도 철도수송의 주요과제는
 - 객차, 화차, 기관차의 수리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기본간선들의 철재강도를 높이며, 철도전기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었음.
- 2000년도 교통·운수부문의 실적을 보면,
 - 철도부문에서는 4월 착공한 강계선(강계-낭림) 전기화공사가 완공(10.5)되었음.
 - 강계선 전철화 공사는 '99. 9 김정일위원장의 낭림군 현지지도시 동구간을 전철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 청년돌격대원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건설을 추진해온 자강도 역점사업의 하나임.
 - ※ 강계선(총연장 56.8km)은 북한의 북부 간선철도의 하나인 만포선(순천-만포)과 연결되는 협궤노선으로, 주로 자강도 낭림군에서 생산되는 목재수송에 이용
 - 동 전철화 공사의 완공으로 동구간의 수송능력이 향상되어 여타지역으로의 목재반출은 물론, 북부내륙지역의 주민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 철도를 전기화하는 경우 대체로 견인능력이 2배 정도 향상
- 도로부문에서는 '98.11 착공하였던 평양-남포고속도로가 완공(10.11)되었음.
 -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98.11월부터 당창건 55돌(2000.10.10) 완공을 목표로 5만여 청년 및 군인들을 동원하여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온 북한의 역점사업중 하나로

- 기존 평양-남포 고속도로와는 별도로 평양 광복거리 - 만경대 갈림길 - 남포시 천리마구역 - 강서구역 - 용강군 - 항구구역 입구(청년다리)에 이르는 일반도로 구간을 개건·확장함으로써
 - 도로 총연장 46.3km, 총 도로폭 64m(그 중 차도폭 48m)의 왕복 12차선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임.
- ※ 기존 평양-남포 고속도로(평양-강선-대안-남포)는 총길이 44km, 차도폭 15m의 4차선 도로로 '78년 건설됨.
- 북한은 동 고속도로 완공과 관련해 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채택(9.13, 10.11), 기념메달을 제정하고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평양-남포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 개요 >

구 분	내 용	비 고	
제 원	총 연장	46.3km	
	폭	64m (차도 48m, 녹지 6m, 인도 6m, 노견 4m)	
	차 선 수	왕복 12차선	
	포장 형태	아스팔트	
	시공 기간	'98.11~2000.10 (700여일)	
	시 공 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돌격대, 각 도 청년돌격대, 평양시 청년건설사단, 남포시 청년건설사단, 인민경비대 등 (5만여명)	
	구 간	평양 광복거리 만경대 갈림길-남포시 천리마구역-강서구역-용강군-항구구역 입구(청년다리)	

구 분	내 용	비 고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1 착공 ○ '99. 8 노반 성토공사 완료 ※ 동 공사 기간중 관개구조물(80여개소) 공사 병행 ○ '99.12 노반 혼석깔기 완료 ○ 2000.6~10월초 다리공사(50여개) 진행 ○ 2000.7 포장공사 본격 돌입 ○ 2000.9.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완공 관련 「기념 메달」 제정 ○ 2000.10.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청년영웅도로”로 명명 ○ 2000.10.11 준공 	「중방」, 10.12
부대 공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도로 및 연결도로(83.6km) 건설 ○ 원림지대 조성(도로 양 옆 30m 폭, 60여종 133만 여그루 식수) ○ 잔디밭, 화단 조성(각각 80만㎡, 7.5만㎡) ○ 강·하천 정리(도로 주변 33개소, 36.3km) ○ 포도원 조성(16.5정보) ○ 살림집 건설(60여개 마을 3,600여세대) 	

- 평양-남포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의 완공으로 주요 산업시설들이 밀집해있는 평양과 남포사이의 수송 애로가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양 지역간 연계 생산활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평양과 남포간에 격리되어 있던 생활권이 동 도로를 따라 연결됨으로써 도로 주변지역 개발, 도시권역 확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99.4.5)는 평양-남포 고속도로가 “완공후 주변에 수십만 세대의 대규모 문화주택을 건설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언급

○ 항만부문에서는 '97년 8월경부터 추진된 김책항 개건확장공사가 완공되어 한해에 수십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4. 13. 「중방」)

○ 수송부문과 관련한 대외관계에서는

- 3.11~16 기간중 평양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대표단들이 참가한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무역화물 수송합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결산 및 2000년도 무역화물수송 과제협약과 그 집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고
- 4월에는 북·중간의 지방교역을 촉진시키고 일본 등과의 연계 운항을 통해 관광객 유치, 중계무역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평양-센양(瀋陽) 정기항로 항공기가 첫 취항하였으며
- 7월에는 중국 센양에서 제39차 「북·중국경하천운항 협조위원회 회의」를 개최(7.6~15)하고 북한 신의주항과 중국 단둥항간 화물수송항로 개설에 합의하였음.

○ 통신부문에서는

- 평안북도 체신관리국에서 「2단계광통신케이블공사」를 완공하여 도내 모든 시·군들의 통신을 현대화하였는 바(3.1. 「민주조선」)
- 이는 평양과 평안북도내 주요 시·군소재지들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해 중앙의 지시를 지방행정단위까지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평안북도의 1단계 광케이블공사는 평양-신의주, 신의주와 도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에 달하는 통신망 현대화공사로 '98년 2월 완공한 바 있음('98.2.19. 「중방」).

바. 과학기술부문

- 북한은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내세웠음.
- 과학원 원장 이광호는 에 기고한 글에서
 -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경주해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며 농업, 전력 등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노동신문」1.2).
-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제하의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을 발표(7.4) 하고 과학중시사상이 강성대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임을 강조하였음.
 - 이 공동논설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거기에서 먹는 문제도 풀고 경제강국도 건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 세계 여러나라의 과학기술성파를 적극 배우고 그것을 대담하게 받아 들여야 하며 특히 전자·생물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 이밖에 기술자들의 역할제고, 자질향상, 과학기술중시 풍토조성,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의 생산현장 수용 등을 제시하였음.
- 2000년도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99년 대비 5.4% 증액시켰으며, 과학기술 관련 각종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여 동 부문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반증하였음.
- 과학기술부문 주요 행사인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 2.1~2.25 기간중 전단계 행사인 「지방과학기술축전」을 '기술혁신성과 발표회' 형식으로 개최하고

- 5.14~18 평양시 김책종합대에서 개최된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는 전력, 채취, 금속, 철도운수 등의 분야에서 500여건의 기술혁신 성과자료들이 발표되었음.
- 제15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외형상 출품건수가 크게 증가('99년 2만 8,000건→2000년 7만여건)하였던 점이 특징임.
- 제6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가 3대 혁명전시관에서 7.13~10.19 기간중 진행되었음.
 -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는 '91.4 북한이 신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처음 개최한 이래 '94년 제4차 전람회까지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 그 이후 일시중단하였다가 '98.4, 4년만에 동 행사를 재개한데 이어 올해 제6차 「전람회」를 개최한 것임.
 - 동 「전람회」에서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제시한 데 따라 외형상 출품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 ※ 제5차 전람회에서는 2,500여종 5,000여점이 출품되었으나, 이번 전람회에는 3,500여종 1만 1,000여점으로 대폭 증가
 - 내용면에서는 석탄·전력·기계 등 경제 선행부문 및 식량증산 관련 전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 동 행사 기간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논설을 발표하고 「조선중앙 TV」를 통해 전시물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음.
- 「제11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10.26~11.6 개최되었음.
 -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제3차 7개년경제계획('87~'93) 및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88~'91)에서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 '90.12 「전국 프로그램 경연」으로 시작되었으며 '97.12 제8차 대회부터 전시회 부문이 추가되었음.
 - 등 대회는 프로그램 경연부문과 전시회부문, 성·중앙기관 컴퓨터 전시회부문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 바
 - 이번에 개최된 「제1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는 북한 전역에서 새로 개발된 270여건의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음.
- 한편 북한은 대학, 연구소, 공장·기업소의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혁신 성공사례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바, 올해 보도된 기술개발실적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기술개발실적내역>

시 기	내 용
1. 10	○ 평양방직기료품공장, 금속 열처리시 산화막 방지를 위한 '무산화 열처리기술' 개발
1. 24	○ 과학원 전기연구소, 새로운 오존발생장치 개발
2. 11	○ 조선컴퓨터센터, 토지정리건설 계획작성 컴퓨터프로그램 '천지 개벽' 개발
2. 24	○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지리정보연구실, 새로운 지리정보체계인 컴퓨터 s/w '삼천리' 개발
2. 27	○ 과학원 열공학연구소, 평야지대에서 효과적인 벗겨가스에 의한 전기생산방법 개발
3. 1	○ 과학원 원격조사 및 지학정보체계연구소, 북한식 프로그램에 의한 위성정보자료처리기술 완성으로 위성정보자료 해석과 처리의 현대화 실현
5. 29	○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연구사, 초음파 전동기 개발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

시 기	내 용
6. 12	○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발전소 석탄 미분쇄용 기류분쇄기 및 가속관 개발
6. 20	○ 과학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 '시루식 고상발효법'에 의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농기계에 적극 활용
6. 22	○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30만개의 영어단어, 속담 등을 기억하는 '영·조전자대사전 프로그램' 개발
6. 28	○ 평양전력설계사업소, 극소형저낙차 수력터빈 연구·완성
7. 3	○ 평양의학대학 약학부, 최근 컴퓨터 약물설계수법으로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진 네오셀렌(소염진통제)을 개발.
7. 10	○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언제기술과 관련된 '사석언제설계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8. 7	○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지진과 태풍 등 해일피해를 막기 위한 '해양학적 설계계산서' 프로그램 개발
9. 20	○ 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석탄생산용 막장굴진 작업용 기기인 '전기식 천공적재기' 개발완료
11. 3	○ 김일성종합대학, 제11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 경제대사전 「별」을 출품
11. 5	○ 조선컴퓨터센터 등, 컴퓨터용 음악전집 「삼일포」 개발
11.16	○ 조선고려약기술센터, 고려약부문 종합전산프로그램 개발
11.27	○ 과학원 버섯연구소, 다수확버섯재배법 개발
12. 2	○ 평양집적회로공장, 고출력 정류소자 개발
12. 4	○ 이과대학, 음성인식프로그램 개발
12. 9	○ 청진의대, 혈우병치료제 개발
12.11	○ 평양프로그램센터, 역사학습프로그램 「조선의 역사와 민속」 개발
12.12	○ 김만유병원, 인공혈관 개발
12.18	○ 김만유병원, 컴퓨터단층촬영기 개발
12.20	○ 경공업성 피복연구소, 의류디자인프로그램 개발

- 이밖에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개시 20주년 중앙보고회(3.9)가 10년만에 개최되어 각 공장·기업소의 돌격대가 기술혁신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독려하였음.
- 「2.17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 발단 25돌기념 「전국과학기술 발표회」를 9.13~15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열고 60여 경제단위에 파견한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들이 개발한 350여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을 발표하였음.

3.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은 수출(15~20% 증가), 수입(30~35% 증가)이 모두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비 약 27% 증가한 18.8억달러 내외로 추정되는 바
 - 이와 같은 무역규모의 증가는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대북경제제 완화조치 등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 목재(원목,침목), 철강(철반제품,고철), 수산물(어류,갑각류), 광물성 연료 등이며, 이들 4품목은 전체 수출규모의 약 70%에 달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목재, 철강, 수산물 등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음.
 - 다만 정제유의 수출증가로 광물성 연료는 증가하였고, 플라스틱 제품(염화비닐,폴리스티렌), 건 등도 수출이 늘어났음.

○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 원유 등 광물성 연료를 비롯해서 곡물류, 철강, 기계류, 전기기기 등이 주요 수입품목들임.
- 전체적으로 전년비 곡물을 제외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 특히 철도차량 및 부품, 전기기기 부품, 기계류, 철강 등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음.

[일본]

○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 어패류 등 수산물, 임가공 의류·부품 및 전기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3품목은 총 수출규모의 약 70%를 점하고 있음.
- 전년동기비 수출비중이 큰 품목중에서는 곡물 짚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수산물 등 동물성생산물과 선철 및 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

○ 한편 전년비 크게 늘어난 북한의 대일 수입에서는

- 최대 수입품목인 차량 등 수송기기를 비롯하여 쌀(지난 3월 북·일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임가공용 전기기기·섬유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수송기기, 전기기기 및 부품, 광물성 연료(석유제품) 등임.

○ 연도중 북·일간 무역의 특징은

- 수출, 수입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며
- 북한의 대일 수입측면에서는 건설용 기자재의 수입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 등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 북한의 대일 수출에서는 저부가가치의 1차산품인 어패류 등 동물성 생산품과 임가공형태의 의류·전기기기 등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음.

나. 남북교역

○ 2000년(1~11월) 남북한 교역실적은 399,765천달러로 전년 동기 311,992천달러에 비해 28.1% 증가하였음.

- 반입실적은 140,558천달러로 전년동기 110,126천달러 대비 27.6% 증가했으며, 반출실적은 259,207천달러로 전년동기 201,865천달러 대비 28.4% 증가하였음.
- 반입품목을 살펴보면 광산물, 화학공업품, 철강, 금속제품의 반입이 줄어든 반면,
- 변압기, 컴퓨터부분품, 녹음용테이프, 칼라TV 등 전자·전기기기, 피조개, 냉동대구, 제조담배, 조제과실 등 농림수산물과 봉제의류 등의 섬유류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
- 반출품목을 보면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비금속 광물제품, 철강·금속제품의 반출이 감소한 반면
- 쌀, 과일, 옥수수, 과자, 라면, 합판, 어패류 등의 1차산품과 비료등 화학공업품, 전자·전기기기 등이 큰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 전체 교역액중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거래성 교역 : 상업적거래와 위탁가공교역)은 228,054천 달러로 작년 동기 171,795천 달러에 비해 32.7% 증가하였음.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 북한은 연도중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동 지역의 개발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나진-선봉지대 접근로인 중국 훈춘~권하와 원정~나진간 도로 정비(약 95km)가 추진되고 있으나
 - 중국측 구간에서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측 구간에서는 아직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음
- 나진·선봉지대에 수산물가공센타가 건설되고 있음.
 - 이 시설물은 조총련 기업이 560만달러를 투자하여 총건평 52,000m² 규모로 건설되며, 1호·2호가공장, 생선저장고, 어구창고, 발전기실과 함께 오락장, 기념품상점, 전망대, 연회장과 연못, 공원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됨.
 - 위와 관련 생선 운반선용 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선 가공품들은 중국동북지방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할 계획임.
- 북한 「조선경제개발총공사」는 최근 중국 「廣東華夏環保生態科技有限公司」와 나진·선봉지대내 2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음(3.6, 중국신문 「精認數據」)

- 협약 내용 : TBS(Taxonomic and Bionomics Scavenger)시스템을 활용한 환경보호 및 생태자원 이용 관련 사항
 - 계약 금액 : 2억달러
 - 투자 방식 : 북한·중국 공동 투자
 - ※ TBS 시스템 : 쓰레기의 각 성분별 특성에 따른 회수·이용 기술로 각종 환경보호 생태비료 및 기타 유기물질을 생산
 - 북한이 중국과 합작으로 동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 석탄, 중유 등 연료 부족으로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측의 대체 연료를 활용한 전력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증산을 도모하고
 - 나진·선봉지대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했던 외자유치 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타이 록슬리 그룹의 자회사인 Loxpac사와 북한이 공동설립한 NEAT&T (North East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Co.)는 올해 말까지 320만달러를 투자해 이 지역에 국제통화용 게이트웨이를 완성하고 호출기사업도 시작할 계획임.
- Loxpac사는 나진·선봉지역에서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지역 통신사업에 1천5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 '99년 10월부터는 이 지역에 5백만달러를 투자, 2년내 완공 목표로 9층 규모의 Telecom Center를 건설중에 있음.
- Loxpac사는 이 지역을 러시아와 중국진출의 거점으로 하기위해 정보통신인프라, IT장비 및 기기, 인터넷, 휴대폰 등 전반적인 통신사업과 함께 방송산업까지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대외경제협력

- 연도중 북한은 직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진전에 주력하였는 바
 - 김정일의 중국방문 및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방북, 조명록 특사의 미국방문, 미 국무장관의 북한방문, 북·일수교 본회담 (제9~11차) 개최뿐 아니라
 - 을 초 이탈리아와 외교관계(1.4)를 맺은 이후 EU국들과 잇따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 외무성 대표단이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등을 방문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강화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 8월에는 ADB 가입의사를 재표명하는 등 국제기구가입에도 적극성을 보였음.

<북·중관계>

- 김정일위원장은 5.29~31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강택민 등 중국수뇌부와 회담하고
 - 양자간 선린우호협력의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 식량, 물자 등의 원조에 사의를 표시하였음.
 -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양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99. 6 북한대표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방중시 합의한데 따라 식량 15만톤, 곡스탄 40만톤 등 중국의 대북지원 물자가 2. 2까지 북한에 전량 도착하였음.
- 북한 체신성과 중국 우정국간 체신분야 협조·발전합의서가 5. 26 베이징에서 조인되어 통상적인 국제우편물 교환, 국제 통신업무와 관련 양자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음.
- 중국 선양에서 7.6~15간 제39차 「북·중 국경하천운항 협조 위원회 회의」를 개최, 신의주 - 단풍간 화물수송 항로 개설에 합의하였음.
- 9.15 북·중 「우편 및 전기통신과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쌍방간 통상적인 국제우편물 교환, 국제 통신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다졌음.

<북·미관계>

- 5.24~30 로마에서 북·미회담을 개최하여 제네바합의 이행, 대북제재 완화문제, 미사일회담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 9.27~10.2간 뉴욕에서 올해들어 네번째 김계관-카트만 회담을 개최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10.6 이 회담 결과로 국무부대변인 명의의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

-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반대
- 테러 퇴치를 위한 협력
- 모든 유엔회원국에 12개 테러방지 협약가입 권장
-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양측 현안 해결 노력
- 미국의 법률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협력

- 10.12 조명록 특사의 방미 결과인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음.

- 공동성명에서는 북·미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 경제협조·교류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경제 무역 전문가들의 상호방문 실현문제 토의와 함께
- 클린턴 미 대통령 및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음.

- 미국은 연방관보(6.19)에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공식발효시켰음.

※ 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은 ① 북한산 원자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의 미국시장 수입허용 ② 대부분의 미국 소비재와 금융서비스의 대북한 수출허용 ③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수송, 도로건설, 여행 및 관광분야에 대한 대북투자 허용 ④ 친지나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직접 송금 허용 ⑤ 미국국적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적인 화물수송의 허용 ⑥ 북미간 상업적인 항공기 운항의 허용 등임.

-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비확산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들은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 군사품목 및 이중용도로 사용가능한 기술의 수출, 재무장관의 승인이 없는 미국인과 북한정부간의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관의 자금공여, 동결된 자산에 대한 청구 등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임.

- 이밖에 미국정부는 6.15 WFP를 통해 대북식량 5만톤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북·일관계>

- 3.13 베이징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연도중 제9차~11차 북·일 수교 본회담을 개최하였음.

- 제9차 북·일 수교회담 : 4.4-7, 평양 개최
- 제10차 북·일 수교회담 : 8.21-24, 도쿄 개최
- 제11차 북·일 수교회담 : 10.30-31, 베이징 개최

○ 제 11차 회담에서 쌍방은 “조기 관계정상화”라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 「보상금 문제」 관련, 쌍방은 구체적인 금액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북한측은 “실효성 있는 보상”을 주장하고, 일본측은 “경제협력 방식”의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3. 7 WFP를 통해 쌀 10만톤을 대북지원키로 결정하였고, 10. 6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쌀 50만톤 제공을 공식 발표하였음.

<북·러관계>

○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10~11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였음.

○ 7.19-20간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쌍방 친선관계 발전을 천명하는 「북·러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음.

○ 모두 11개항으로 구성된 「북·러공동선언」에서 양측은

- 쌍방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안보협력(①,②항), 국방·과학·문화 등 분야별 협조(⑩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 경제분야 협정 체결, 금속·동력 등 여러 분야 사업의 적극화, 공동 건설한 기업소 개건 등 상호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합의(⑧,⑩항)하였음.

○ 또한 북한·러시아는 10.17~20간 평양에서 「제3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 제3차 「북-러 경제공동위」 개최는 최근 들어 형성되고 있는 양자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 구체적으로는 부채(약 38억루블)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험 문제 등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경제현안 문제 타개를 위한 것으로 보임.

<기타 국가와의 관계>

○ 호주는 2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600만 호주달러(미화 380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밝힌데 이어 5월에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

○ 북한 - EU 관계는 북한-이태리 수교(1.4) 이후 EU국가들의 고위인사, 정부·의회대표단 등이 북한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외교적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북한 외무상 백남순은 9.21 9개 유럽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및 EU집행위)에 수교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음.

※ 북한은 현재 15개 EU회원국가 중 스웨덴(73.4), 핀란드(73.6), 덴마크(73.7), 오스트리아(74.12), 포르투갈(75.4), 이탈리아(00.1), 영국(00.12) 등 7개국과 수교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음.

※ 2.21 인도네시아와 투자촉진 및 보호협정 체결, 2.21 시리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3.2 이집트와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체결

○ 특히 북한은 '99년 6월 방글라데시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후 양자간의 교역확대 및 투자활성화 등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

- 북·방글라데시 합작사업인 마드하파라 채석광산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해 동 광산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 이 사업은 '94.10부터 북한의 남남협조총회사와 방글라데시 국영기업인 Petrobangla사간 합작투자(총투자규모 2억달러)형태로 추진

- 북한 남남협조총회사와 방글라데시 Nitol그룹 관계자들은 5.4 방글라데시에서 버스-트럭용 타이어 합작공장설립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0년 북한의 경제·무역협정 체결현황 >

시 기	대 상 국	내 용
2. 21	인도네시아	○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 21	시리아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3. 2	이집트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 체결
4. 17	러시아	○ '2000~2001년 두 나라간 문화 및 과학협력 협정' 체결
5. 26	중국	○ '체신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 조인
9. 15	중국	○ '우편 및 전기통신과 기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9. 27	이탈리아	○ '상호 투자장려·보호협정', '경제협력 기초협정', '문화·과학 협조협정' 등 체결
10. 19	루마니아	○ '무역·경제협조 및 지불협정' 체결
12. 25	유고슬라비아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국제기구 가입>

- 무역성 부상 김용문은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에게 보낸 서신(8. 21)을 통해 북한의 ADB 가입의사를 재표명하는 한편, 동기구 사절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하였음.
-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 '94년 이래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조심스럽게 타진해왔으며
- '97. 4에는 ADB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한층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음.
- 이번 북한의 ADB 가입 재시도는 북한이 미·일·유럽 등 서방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물론,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과 우리 정부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지 입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협력 동향 >

시 기	내 용
1. 4	○ 북한,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공동보도 발표
1.22~ 28	○ 북·미 베를린회담 개막
1. 27	○ 주북 중국대사관, 안주석탄공업관리국 태양탄광에 지원 물자 기증
2. 8	○ 무역대표단(단장: 무역상 강정모), 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제10차 대회 참가차 평양 출발
2. 9	○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만수대의사당)
2. 10	○ UNDP에서 지원한 농업부문 자연재해복구 설비 기증식 진행(평양)
2. 12	○ 중국정부의 무상지원분 식량 15만톤·곡스탄 40만톤 전량 납입 (2.2) 보도
2. 16	○ 홍콩주재 북한 총영사관 개설
2. 17	○ 호주 외무장관, 390만달러 상당의 원조금 대북제공 발표
2. 21	○ 북·인도네시아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 ○ 북·시리아 '소득과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다마스쿠스)
2. 22	○ 호주대표단(외무 및 무역성 제1 보조비서 '폴린 헤셀턴), 방북(2.22~26) ○ KEDO 고위급전문가 협상단 방북(2.22~26)
3. 2	○ 북·이집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 체결
3. 6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11차 이사회 회의 개최(3.2~6, 평양)

시 기	내 용
3. 11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무역화물 수송협회의의 진행(3.11~16, 평양)
3. 12	○ 일본정부의 국제기구 경유 대북 식량 10만톤 무상지원 결정 보도(중방)
3. 18	○ 북·중 외상회담 개최
4. 1	○ KEDO 협상대표단 평양도착(4. 4 평양출발)
4. 5	○ 북·중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평양-심양간 정기항로 개설·취항
4. 17	○ 북·러 '2000~2001년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체결
4. 25	○ 북·중 합작기업 '연변쌍룡탄소회사' 조업(중국 용정)
4. 29	○ 북외무성대표단(부상 박길연), 방글라데시와 '마드하파리 채석광산 개발계획' 추진 합의
5. 8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5.8~9)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업체 참가
5. 26	○ 「체신성대표단」(부상 맹학섭), 중국 국가우정국과 「체신분야 협조발전 합의서」 조인(베이징)
5. 31	○ 김정일, 비공식 중국방문(5.29~31) ※수행 : 조명록·김영춘·김국태·김용순·김양건 등
6. 15	○ 미, WFP를 통해 대북식량 5만톤을 제공 결정
6. 28	○ 중국 요녕성 수출품 견본전시회 개막(평양)

시 기	내 용
7. 19	○ 푸틴 러시아대통령 북한방문, 「북-러 공동선언」 발표
7. 27	○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정식 가입
8. 10	○ 외무성부상 김계관, 미국무부 테러담당대사 마이클 쉬언과 회담(8.9-10. 평양)
8. 24	○ 북·일정부간 수교를 위한 제 10차 본회담 종료 및 공동 보도문 발표
9. 15	○ 북·중 「우편 및 전기통신 기술분야에서의 협조협정」 조인 (만수대 의사당)
9. 20	○ 「북합미생물기술과 자연농법에 관한 국제토론회」 개최
9. 21	○ 외무상 백남순, 유럽 9개국 등에 공식외교관계 설정제의 서신 발송
9. 27	○ 북·이탈리아, 「상호투자장려·보호협정」, 「경제협력 기초협정」, 「문화·과학협력 협정」 등 조인
10. 7	○ 홍성남, 일본정부의 쌀 50만톤 제공 결정(10.6)관련 일본에 감사전문 전달
10. 19	○ 북·루마니아 「무역, 경제협조 및 지불협정」 체결 (부카레스트)
10. 20	○ 북·러 제3차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0.17-20) 의정서 조인
10. 23	○ 북 기상수문국, 중국국가해양국과 '해양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 조인
10. 31	○ 북·일정부간 제 11차 본회담 진행(10.30-31, 베이징)
11. 1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설 분과」 제4차회의 의정서 조인

4. 종합평가 및 전망

가. 2000년 평가

○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아래 각종 실리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자기완결적 자력갱생」 으로부터 「변화적응적 자력갱생」 으로 변화 모색

- 경제성장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 「마이너스」, 광·공업 「플러스」 등 산업부문별 성장 교차로 전체적으로는 저성장 시현

1) 변화적응적 실리추구전략 모색

○ 2차에 걸친 산업구조조정(1월, 9월)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 되어 오던 연합기업소제도 폐지 또는 부분 수정

○ 기존의 공장·기업소 조직관리방식에 민주적 절차를 가미한 선출제 도입으로 전문성·생산성 제고 시도

○ 중·러 및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국들과 실리적 차원의 자원 외교를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전략 추구

- 국제사회에 2.5억달러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 호소(6.20~21, 제2차 UNDP AREP회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요청(2.14 UNCTAD 총회연설)

2) 당 창건 55주년기념일을 목표시점으로 인민경제 전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총력 경주

- 생산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는 높았으나 실제로는 체제모순, 재정 한계 등으로 초보수준의 노동의존적 자구노력 전개
 - 금년도 예산은 전년비 0.1% 증가에 불과한 93.6억달러로 지난해와 같이 초진축예산 편성
- '먹는 문제' 및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토지 정리사업, 양어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대형·중소형 발전소 병행건설에 주력

3) 농업 「마이너스」, 광공업·건설부문 「플러스」 성장 시현

- 금년 작황은 불량한 기상조건,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비 14.9% 감소한 359만톤으로 추정
 - ※ “올해 가뭄, 고온, 태풍으로 140여만톤의 곡물손실을 볼 것”(북한 농업성국장, 9.25 담화내용)
 - ※ FAO·WFP는 금년도 곡물 수확량이 292만톤으로 전년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 (11.16)

- 광·공업 및 건설부문에서는 노동력 투입 증대, 생산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생산 증가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10만KW), 청년영웅도로(46.3km), 개천-태성호 물길공사(160km), 강계선(강계-낭림) 전철화 공사(56.8km) 등 대규모 SOC 공사 추진
- 무역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미국의 대북경제제 완화조치 등 대외무역환경 개선으로 수출,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 예상 (전년비 수출 15~20%, 수입 25~30%)

나. 2001년도 전망

- 정치경제적 수요에 의해 차기 경제계획 준비등 '환경 변화 적응적 계획경제' 구축 가능성
-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사상은 사회주의, 자금은 외자' 라는 이원적 정치경제전략 강화

1. 경제계획 및 목표

- 경제목표상으로는 내각결정('98.10)과 관련, 2002년(김정일 60회 생일)까지 과도기적 경제전략으로서 경제기반 다지기에 주력
- 연도말경 김정일 60회 생일에 즈음한 정치경제적 수요에 의해 「21C 10개년 전망목표」 등과 같은 청사진 제시용 차기 경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

2. 경제시책방향

- 대내적으로는 주민노력동원 노선인 제2천리마대진군운동을 축으로 집단적 생산문화와 사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한 각종 시책 강구

-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협력하에 국제사회로의 진출 및 신의주, 남포, 개성, 단천 등 새 경제특구지역 확대 가능성

3. 경제상황 전망

- 북한의 경제상황은 식량난·에너지난 등 구조적 문제점 상존으로 외부지원에도 불구, 저성장 지속 전망
 - 공업생산이 다소 나아지기는 할 것이나 구조적 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률은 30% 내외에 그칠 전망

- 내년도 식량사정은 남한 60만톤, 일본 50만톤 등의 차관·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부 록 1 〉

2000년도 북한경제 주요동향분석

부록 목차

대내경제동향

1.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5
2. '낙원의 봉화'를 새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제시 8
3. 「청산리정신·방법」 창조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10
4.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재삼 촉구 14
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개최 16
6. 「지방예산제 규정」 채택 21
7.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제시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23
8. 「장려금」 활용 등 “실리보장” 조치 강구 25
9. 공장·기업소 「상반년계획」 완수 보도 27
10. 당창건 55돌 즈음 경제성과 선전 30
11.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 본격 추진 34
12. 평안북도 토지정리 2단계공사 착수 37
13. 김정일 위원장의 평북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담화내용 공개 39
14. 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41
15. 평양-남포 고속도로 준공식 개최 43
16. 김정일 위원장, 청년영웅도로와 황주 닭공장 현지도 45
17. 농업성 부상, 신년 '공동사설' 과업 관철 다짐 48
18. 「농촌테제」 발표 36주년 맞아 농민들의 “주인의식” 강조 51
19.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 개최 54
20. 5월~7월말 현재 북한지역 기뻐 심각 58
21. 각지에서 태풍피해 복구 주력 60
22. 축산부문 생산공장 건설 증가 62
23. 김정일 위원장, 메기공장 현지도 64

24. 김정일 위원장, 대흥단군 종합농장 등 현지도	66
25. 농업성 농산국장, 식량문제 관련 담화 발표	68
26. 「식수절」 맞아 전지역의 '원림화' 촉구	70
27. 양어장 및 기초식료품생산기지 연이어 조업	72
28.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 공장·기업소 현지도	74
29. 김정일 위원장, 함북 공업부문 현지도	76
30. 김정일 위원장, 함남·자강도 인민경제부문 현지도	78
31. 김정일 위원장, 영변·박천전직공장 현지도	81
32. 최근 전력 관련 선전동향	83
33. “극심한 전력난” 강조	86
34. 순천화력, 1만kVA 증기터빈 발전기 준공	88
35. 안변청년발전소 및 태천발전소 완공	90
36. 올들어 100여개 중소형발전소 건설	93
37. 과학기술발전 촉구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발표	96
38.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추진」 개최 예정	98

대외경제동향

1.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발효	100
2. 북-러 「제3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103
3. 무역관련 김일성 논문 발표 35주년 기념보고회	105
4. 김정일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108
5. 11월 상반기중 대외경제협력 강화 동향	110
6. 제2차 UNDP 회의에서 농업지원 호소	113
7.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117
8.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의사 재표명	119

1.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개요 >

- 최근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민주조선 1.15 보도) 하고 지난해 경제계획 수행성과 결산과 함께 금년도에 수행해야 할 각 부문의 과업을 제시하였음.

< 보도요지 >

- 회의에서는 지난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성과 결산과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음.
- 지난해에는 평북, 강원도의 토지정리, 함남 광명성제염소 건설 등 자연개조사업에서 큰 성과를 올렸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음.
- 올해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 연료, 동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하고

- 농업생산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과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 등 중요 건설 사업을 앞당겨 끝내야 함.

< 분석 >

- 지난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 하였음.

-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현저히 증가

※ '98년 김정일의 공개활동 총 70회중 8회, '99년 총 69회중 23회

-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등 주민노력 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상황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농수산업 및 건설부문에 힘입어 소폭으로나마 플러스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분석됨.

※ 총리 홍성남은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하고 4,000여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고 발언('99.9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터뷰)

※ 외무상 백남순은 “북한경제가 '99년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였다”고 언급 ('99.9 각국 외상 면담시)

○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는 주로 유희노동력을 활용한 건설부문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결과로서, 침체된 실물경제가 회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하겠음.

- 산업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전년도와 같이 생산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 따라서 금년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 실용주의적 경제건설 추진, 경제관리운영 개선, 품질 향상 등 경제의 내실화·정상화에 주력하면서
- 재원조달의 한계로 농업·건설·석탄·전력·수송 등 일부 기간산업에만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등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규정한 만큼 전자·정밀기기 등 응용과학기술의 개발·도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외부사조 유입과 관련 그동안 극도로 경계해 왔던 국제경제사회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99년도에는 "자본주의 황색바람도 사소한 비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언급한 데 비해, 올해에는 "우리식 경제구조를 고수하여야 한다"고만 언급

○ 이번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 신년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의례적인 후속 「내각 결의모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핵심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금년도의 부문별 당면목표 추진과 관련한 세부 실천적 과업들을 토의한 것으로 분석됨.

2. '낙원의 봉화'를 새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제시

< 개요 >

- 북한은 2.6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성강의 봉화'에 이어 '낙원의 봉화'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위한 금년도의 새로운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제시하였음.

< 사설요지 >

-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에 이어 이번에는 낙원을 새로운 봉화로 설정하라고 지시
- 과거에 낙원(기계공장)의 10명 당원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당이 준 과업을 결사 관철
-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려면 바로 이러한 낙원의 정신과 기풍이 필요
- 성강의 봉화에 이은 낙원의 봉화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 돌격전의 봉화

< 분석 >

- 북한은 '98.1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를 계기로
 - 자강도의 '자력갱생·간고분투 정신'을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개념화하고

- 이를 경제건설의 정신적 이념으로 내세워 모든 도·시·군에서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였으며
- 특히 성진제강 현지도(‘98.3)에서는 동 공장 근로자들에게 ‘천리마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촉구함으로써
- 동 공장의 현지도가 ‘99년 하반기부터 북한 전역에서 전개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단초가 된 바 있음.

※ “성강(성진제강)의 봉화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양양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2000년 「신년 공동사설」)

○ 이번 북한이 ‘낙원의 봉화’를 새로운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 기본적으로 주민 및 당조직의 노력배가 등 인적내부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나
- 이번 ‘낙원의 봉화’가 ‘성강의 봉화’와 마찬가지로 그 始原이 금속·기계공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 북한이 중공업의 핵심부문인 금속·기계공업의 발전을 경제정상화의 중심적 과업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 특히 올해 경제건설 및 석탄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강재·채취설비 등의 생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낙원기계공장(평북도 신의주)은 채취설비·기중기·산소분리기 등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 기계공장의 하나로, 김정일은 지난 1.27 동 공장 현지도시 현대적 굴착설비, 특대형 산소분리기 등의 생산과업을 지시

3. 「청산리정신·방법」 창조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개요 >

- 북한은 2.8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홍성남, 최태복 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2.8, 중·평방)

- 보고 : 최태복(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 사회 : 강현수(평양시당 책임비서)

< 보고요지 >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선전 >

- 김일성은 40년전인 '60.2월 청산리와 강서군을 15일간 현지지도 하면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음.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 균중노선을 구현한 대중영도에 관한 완성된 지도사상임.

< 지도일군들에 대한 과업 제시 >

-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어 나감으로써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 일으켜야 함.

-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여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아야 함.
-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확고히 앞세워야 함.
- 대중을 끝까지 설복하고 교양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철저히 극복하여야 함.

< 김정일에 대한 충성 촉구 >

- 영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 할 사람들은 지도일군들임.
- 모두 다 김정일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함.

< 분석 >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 '60.2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도도를 실시하면서 비롯된 북한 경제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 「대안의 사업체계」, 「계획화체계」 등 부문별 경제관리원칙으로 구체화 되어 왔음.

○ 「청산리 정신」은 사상적 측면을 강조한 당적·국가적 지도방침으로 그 주요 내용은

- ① 나라 살림 및 인민생활을 완전히 책임지는 원칙 ② 사회성원들을 사상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원칙 ③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원칙 등임.

○ 「청산리 방법」은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 ① 위가 아래를 도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② 항상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 모든 사업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킨다는 것 등임.

○ 북한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관련 기념행사를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5년 주기로 개최해오고 있는 바

- 처음에는 단순히 김일성 현지도 기념보고회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나 '90.2월 제30주년 행사 이후 「중앙보고회」로 행사규모를 확대시켰음.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관련 기념행사 동향 >

일 자	내 용	장 소
'80. 2. 6	○ 청산리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청산리 현지
'85. 2. 7	○ 청산리 현지도 25돌 기념보고회	"
'90.2.6~8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30돌 기념 중앙연구 토론회 및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
'95. 2. 7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35돌 기념 중앙보고회	"
2000.2.8	○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

○ 이번 중앙보고대회에 나타난 특징은

- 「강성대국」 건설을 명분으로 앞세워 김정일에 대한 지도층들의 충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 과업 수행시 주민의 이익 옹호,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최근의 실리추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 북한은 '기후풍토에 맞는 집약농법'이라고 정의되던 「주체농법」을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는 과학농법'이라고 재해석('99.2.24, 「농촌테제 발표 35돌 중앙보고회」)

-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과업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관리 지도층의 사상적 이완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최대복은 보고를 통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착취사회의 산물로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

○ 종합적으로 이번 중앙보고대회는

- 청산리정신·방법 관련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 부분적으로나마 청산리정신·방법을 재해석하는 등 나름대로 내용상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이완되고 있는 경제관리 지도층의 「사회주의적 사상」 재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경제선동 행사로 평가됨.

4.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재삼 촉구

< 개요 >

- 북한은 11.20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성공을 위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노동신문 제목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 사실요지 >

- 우리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함.
-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당의 총노선이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그 실현을 위한 위력한 방도임.
-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임.
- 모든 부문·단위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힘있게 추진해야 함.
- 사상혁명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임.
- 각급 당조직들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결의목표들을 제 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수행해야 함.

< 분석 >

○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 '75.11 당 중앙위 제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 추진을 목적으로 채택된 북한의 대표적 노력경쟁운동으로
- 북한주민들의 사상무장 강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력동원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데
- 주로 김정일 생일(2.16), 정권창건일(9.9), 당창건일(10.10)을 비롯한 주요 계기시에 「정령」을 통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고 있음.

○ 한편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 '98.3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시 “다시 한번 천리마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 '99.1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제2의 천리마운동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동년 11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중운동임.

○ 이번 노동신문 사설의 특징은

-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철저히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상혁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기한내 목표달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임.

○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재삼 강조하고 나선 것은

-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통한 노력배가 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 각급 단위들의 연간생산목표 달성을 촉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개최

<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0.4.4-6, 평양 「만수대의사당」
- 참석자 :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홍성남
(내각 총리) 등 대의원 648명(총원 687명)
- 의 안
 - ① 1999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 ③ 「사회안전성」의 이름을 고침에 대하여(→ 「인민보안성」)
 - ④ 러시아연방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함에 대하여
- 진행순서
 - 제1일(4.4) : 첫째 의안 보고(재정상 임경숙)
 - 제2일(4.5) : 첫째 의안 보고(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한성룡) 및 토론,
둘째 의안 보고(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윤혁)
 - 제3일(4.6) : 첫째·둘째 의안 채택, 셋째·넷째 의안 토의 채택

< 보도요지 >

【 '99년 예산결산 및 2000년 예산 】

가. '99년 예산결산 ('99년 환율 1\$=2.17 북한원)

< 내 용 >

- 수입총액 : 198억 103만원(91.2억\$, 계획의 97.2%)
- 지출총액 : 200억 1,821만원(92.2억\$, 계획의 98.2%)
 - 군사비 : 지출총액의 14.5%인 29억 264만원(13.4억\$)

< 특 징 >

- 예산 수행률이 계획목표에 근접
 - 그러나 종전과 달리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발표한 점은 이례적
 - ※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난을 최초로 자인했던 점과 유사
- 전년보다 군사비 지출이 다소 감소(29.3억원 → 29.2억원)하는 대신 인민경제비 지출은 확대
 - 전력, 석탄, 식량 증산에 역점
- 경제개발 수요 증가로 전년도에 이어 재정수지 적자 기록(2억 1,718만원, 1억\$)

나. 2000년 예산 (2000년 환율 1\$: 2.18북한원)

< 내 용 >

○ 수 입 : 204억 532만원(93.6억\$, 3.1% 증가)

○ 지 출 : 204억 532만원(93.6억\$, 1.9% 증가)

- 군사비 : 지출총액의 14.5%인 29억 5,877만원(13.6억\$)

※ 남한예산 768.9억\$의 12.1%

○ 전력, 석탄 등 에너지 부문에 높은 증가율로 편성

- 전력 15.4%, 석탄 12.3%, 과학기술 5.4%, 농업 5.0%, 경공업 4.0%

※ 지난해에는 전력(15%), 농업(11%), 석탄, 금속·기계, 철도운수, 과학기술(이상 10%) 등 기간산업부문에 전년비 10~15% 증액 편성

< 특 징 >

○ 에너지부문을 「인민경제」 회생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동 부문에 투자 집중

- 태천, 안변청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계속적 추진, 서부 및 북부지구 탄광 개발 등

○ 그 동안 사실상 중단했던 주요 공장·기업소 생산능력 확장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확대

- 금속공장 주요공정 신기술 및 장비 도입, 내화물공업 육성 등

- 기본적인 간선철도의 철도 강도 제고 및 강계~낭림간 철도 전기화 공사 등

- 식량난 타개와 관련한 토지정리 등 농업구조 개선사업 지속 추진
 - 강원도에 이어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추진
- 군사비는 소폭 증액 (13.4억\$ → 13.6억\$, 전년비 1.9% 증가)

< 분석 >

- 당 창건 55돌 및 2000년을 맞아 에너지 증산, 인프라시설 구축 등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방향에서 예산 편성
- 그러나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르는 경제적 잠재력 상실로 「자력갱생」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실정
 - 증산절약 투쟁, 철저한 실리 보장, 재정적 낭비현상 제거 등을 성과적 예산집행을 위한 중요방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 ※ 임경숙 재정상은 보고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낭비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이라”고 강조
 - 이같은 「자력갱생」식 재정운용 방법만으로 금년도의 경제개발 수요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

< 평가 >

-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체제 공식출범 이후 3년째 정례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체제가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
- 금년 예산은 전력, 석탄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면 에너지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2000년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이 불가피
 - ※ '99년도 예산 수행률이 계획목표에 근접한 것도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결과로 추정

※ '99년 집행 및 2000년 예산 비교

항 목	'99년 예산	'99년 결산	2000년 예산
수입총액	203억 8,172만원 (전년대비 3.0%증)	198억 103만원 (계획의 97.2%)	204억 532만원 (전년대비 3.1%증)
지출총액	203억 8,172만원 (전년대비 1.8%증)	200억 1,821만원 (계획의 98.2%)	204억 532만원 (전년대비 1.9%증)
국방비	지출총액의 14.5%	지출총액의 14.6%	지출총액의 14.5%
농업	전년대비 11.0%증가		전년대비 5.0%증가
경공업			전년대비 4.0%증가
석탄공업	전년대비 10.0%증가		전년대비 12.3%증가
전력공업	전년대비 15.0%증가		전년대비 15.4%증가
철도운수	전년대비 10.0%증가		
금속공업	전년대비 10.0%증가		
과학사업비	전년대비 10.0%증가	전년대비 6.3%증가	전년대비 5.4%증가

6. 「지방예산제 규정」 채택

< 개요 >

-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2000.8.17)은 최근 내각에서 「지방예산제 규정」(7장 66조)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요지 >

- 「지방예산제 규정」은 지방예산제 실시 원칙과 요구, 절차들을 규제한 법적 문건임.
- 규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 지도아래 지방의 내부예비와 창발성을 동원, 자체의 힘으로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을 기본요구로 규제하고 있음.
- 규정은 또한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일정한 몫은 국가에 바칠 데 대한 원칙을 규제하고 있음.
- 지방예산 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많은 이익을 준 지방에는 물질적 우대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규정에 밝혀진 실시원칙임.
- 지방인민위원회들은 '지방살림살이의 호주'로서 지방의 경제·문화 건설과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여야 함.

< 분석 >

- 북한의 국가예산은
 -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중 지방예산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하에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자체적으로 형성·이용하는 예산임.

○ 이와같은 지방예산제는

- '72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73년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제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한 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 중소규모의 기관·기업소,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 및 사회문화기관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잉여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예산에 귀속시키되, 그 일부를 「우대기금」 또는 「예비기금」의 형태로 해당 지방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90년대 이후 북한은

- 식량난, 에너지난, 원·부자재난 등으로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재정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지방산업공장 정상화 등을 위하여 '내부예비동원', '중소형발전소 건설' 등 지방 자체적인 "자력갱생"활동을 적극 독려하여 오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지방예산제 규정」을 채택한 것은

-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및 재정규율 이완, 헌법 개정('98.9)을 통한 지방 정권기관의 개편, 농민시장 거래 등 사적 경제 활동 확대 등 최근 경제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 그동안 수령의 교시, 당 정책노선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지방예산제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 지방예산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로 평가됨.

7.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제시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개요 >

- 북한은 6.5 당·정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日)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 30돌 기념보고회」를 개최하였음. (중방, 6.6)
 - 보고자 : 강능수(문화상)
 - 참석자 : 한성룡(당비서), 임경숙(재정상), 이원일(노동상) 등

< 보고요지 >

- 김정일은 30년전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 기업관리 방법의 하나인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을 제시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으로 발전시켰음.
-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은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과학적·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 방침임.
- 독창적 ‘일 생산 및 재정총화’ 제도는 지난 기간 모든 경제부문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기여하였음.
- 모든 공장·기업소들은 ‘일 생산 및 재정총화’를 철저히 제도화·생활화하며, 총화수준(결산)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분석 >

- 「일(日)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은
 - 김정일이 '70.6 「조선예술영화촬영소」사업을 현지도 하면서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 기업소 등의 작업반(조)을 기본단위로 하여 생산근로자들의 참여하에 매일같이 생산 및 재정활동을 결산하는 제도로
- '75.9 이후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로 확산되어 왔으나
- '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동 방침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강조되고 있음.

○ 이번 개최된 「기념보고회」의 특징은

- 이례적으로 당·정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여타 기념 보고회에 비해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
- 올해부터 북한이 「일(日) 생산 및 재정총화」 시범단위를 지정하는 등 동 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
- 내용면에서 각 공장·기업소들에 대해 경제적 실리를 내세워 생산 원가 절감, 적절한 원가계획 수립 및 절약과제의 부여 등 합리적 기업운영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등임.

○ 따라서 이번 행사는

- 각 경제단위들이 금년도 부문별 세부생산목표를 차질없이 완수 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각급 경제단위들로 부터의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 그동안 재정부문에서 병폐로 지적되어 온 각급 경제단위들의 비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예산의 낭비적 누수현상 등을 지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시기에 따라 일간, 순간, 월간, 반년간, 연간 등의 세부적 생산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해당 기간마다 결산을 하고 있음.

8. 「장려금」 활용 등 “실리보장” 조치 강구

< 개요 >

- 최근 재정성 독립채산제지도국은 재정부문의 “실리보장”을 위한 「장려금」 활용 등 각종 조치를 강구, 시행하고 있음.(「민주조선」, 2.23)

< 보도요지 >

- 재정성은 '99년말 성, 각 도 인민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재정부문의 “실리보장”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작성·하달하였음.
 - 규정 내용 : 올바른 타산, 절약투쟁 강화, 품질 향상 등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실리보장”
- 재정성은 금년들어 지방에 일군을 파견, 공장들이 「장려금」을 옳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규정 집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지도 내용 : ①원가절약, 내부예비 동원 정도에 따른 「장려금」 활용 ②적절한 원가계획 수립 ③작업반·개인에 대한 원가 계획 및 절약과제의 정확한 부여
- 재정성은 「일 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제시 30주년과 관련, 상반기내 동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단위를 지정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분석 >

○ 최근 북한은

- 만성적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정치선전 목적의 낭비적 재정지출, 재정부문의 규율 이완 등으로 재정사정이 악화일로에 있음.

※ 북한의 '99년도 예산규모는 204억'북한원'으로 '94년(41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이번 재정성 “실리보장” 조치의 특징은

- 절약 유도, 품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제」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는 등 「물질적 자극」 제고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

※ 「장려금」: 생산계획 초과달성, 설비이용률 및 품질제고, 자재절약 등으로 국가에 이익을 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노동보수(「천리마」, '94.10)

- 「일 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실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 「일 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작업반」을 기본 단위로 근로자의 참여하에 매일 생산과 재정현황을 결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70.11 김일성이 제시

- 재정부문의 “실리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작성·하달하고, 전문가를 지방에 파견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이번 재정성의 “실리보장” 조치는

- 북한이 지난 '98.9 헌법 개정을 통하여 독립채산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할 것을 명문화(제33조)한데 따른 재정부문의 후속조치로

- 「장려금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독립채산제」의 물질적 자극을 제고시킴으로써

-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고취를 통해 재정사정 악화, 생산 침체 등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는 북한식의 「실용주의」로 평가됨.

9. 공장·기업소 「상반년계획」 완수 보도

< 개요 >

- 북한은 6월말을 전후하여 각 부문의 공장·기업소들이 금년도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금년도 「상반년계획」 완수 공장·기업소 현황 >

부 분	경공업	수 송	임 업	에 너 지	수 산	기 타	계
건 수	25(38.5%)	16(24.6%)	8(12.3%)	5(7.7%)	5(7.7%)	6(9.2%)	65

< 분석 >

- 북한은 통상 월말, 분기말이 되면 사회주의 노력경쟁 유도책의 일환으로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각 공장·기업소들의 월간, 분기 계획 초과수행 여부를 보도하고 있음.
- 이번 「상반년계획」 완수 보도의 특징은
 - 계획완수 공장·기업소의 수가 '97, '98년 同期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 ※ 「상반년계획」 완수 공장·기업소 추이 : '97년 15단위 → '98년 34단위 → 2000년 65단위
 - 경공업부문과 수송부문의 계획완수 실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 ※ 경공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상반년계획」 완수 단위는 총 41개단위로 전체(65개 단위)의 63.1%를 차지
 - 중공업부문의 대규모 공장·기업소에 대한 계획완수 보도는 거의 없었다는 점 등임.

○ 경공업부문의 경우

- 편직공업, 견직공업 등 섬유공업부문의 계획완수 공장·기업소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98년 4개단위 → 2000년 11개단위)한 것은
- 당창건 55주년(10.10)을 계기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먹는 문제」와 함께 「입는 문제」 해결에도 높은 정책적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6.21 영변·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시 “입는 문제 해결이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대부문의 하나”라고 언급

○ 수송부문의 경우

-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항들인 해주항, 남포항, 원산항 등과 서해 해운사업소, 홍남해운사업소 등 각지 해운사업소들이 계획된 화물 처리량을 초과수행한 것은
- 금년들어 남북교역 및 대외무역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금년도 5월말 현재 남북교역총액 및 대중국, 대일본 무역총액은 각각 전년 동기비 24.2%, 16.3%, 45.2% 증가

○ 에너지부문의 경우

-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 등 수력발전소를 제외한 화력발전소의 계획완수 보도가 전무하였다는 점과 탄광의 석탄생산 실적 보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생산은 저조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상반년경제」는

- 예년보다 계획완수 공장·기업소의 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난 해 경제가 10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 기간중에도 석탄·금속공업 등 일부 「선행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생산활동이 활기를 띤 것으로 평가됨.

< 금년도 「상반기계획」 완수 공장·기업소 현황 >

보도일시	공 장 · 기 업 소 명	비 고
5.13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중 방
5.15	○ 연암임산사업소	중 방
5.31 (19개)	○ 평양시 지방공업관리국 산하(평양비누공장, 대동강놀이감공장, 대동강색감공장 등 15개 이상 공장·기업소) ○ 평양철도국 남포철도분국 산하(신남포역, 용강역, 후산역, 노상역)	중 방
6.10	○ 맹산탄광	중 방
6.21	○ 청진철감공장	중 방
6.25	○ 신의주 3월4일공장	중 방
6.30 (8개)	○ 수풍발전소, 위원발전소, 남강발전소, 태천발전소 ○ 함남 탐사관리국 ○ 시중광산, 연풍광산 ○ 안주절연물공장	중 방
7.1 (16개)	○ 서해해운사업소, 성천강해운사업소, 신의주항, 8월24일항, 만포 해운사업소, 사리원 길성포항, 홍남해운사업소 ○ 편직공업관리국 산하(애국편직물공장, 중화테프공장, 정주영예군인편직공장, 태천영예군인편직공장, 강제편직공장, 강서편직공장, 선교편직공장) ○ 박천전직공장, 성천제사공장	중 방
7.2 (12개)	○ 해주항, 남포항, 홍남항, 송림항, 원산항 ○ 자강도 임업관리국 산하(희천·동신갱목생산사업소, 고인·성간·낭림·화평·이원임산사업소)	중 방
7.11 (5개)	○ 강원도 협동수산물관리국 산하(통천군 장진수산협동조합, 원산시 명사수산협동조합, 천내군 당치수산협동조합, 고성군 남애수산협동조합, 저해망 어선 7157호)	중 방
계	65개 단위	

10. 당창건 55돌 즈음 경제성과 선전

< 개요 >

- 북한은 당창건 55돌(10.10)에 즈음, 각종 산업시설들을 집중 완공하는 동시에 각 경제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대거 수여하는 등 경제성과를 부각 선전하였음.

< 경제성과 선전내용 >

<경제건설실적>

(2000.10.1 ~ 10.11보도내용종합)

일자	내 용	비 고
10.2	○ 어랑 1호 청년발전소 조업	-함북 어랑군 칠향리 소재 -어랑천 활용한 중소형발전소
10.3	○ 봉화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조업	-원유정제시 발생하는 폐열 활용 -설비용량: 수천kW
10.4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 완공	'86.10 착공, '96.9 1단계공사 완공(설비용량: 10만kW) '96.12 2단계공사 착공
	○ 송원·태천 언제확장공사 및 태천5호발전소 완공	'82년 착공, '88.8 1호·2호발전소 완공(설비용량: 40만kW) '99.1 송원 및 2호발전소 언제 증축공사, 3호·5호발전소 건설공사 착수
	○ 국영계남농장 준공	-황남 신원군 소재 -연간 고기생산능력: 수백톤
	○ 자강도 27개 중소형발전소 완공	-도합 설비용량: 수천kW (개당 평균 100kW내외)
	○ 북창 곡산공장 기초식품 생산기지 완공단계	-간장, 된장 등 생산 -건설참여: 제11화력발전소 건설사업소, 수력설비조립연합기업소 등

일자	내 용	비 고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태종합농장 분장들, 돼지공장 완공단계 ○ 신평 청년저수지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5월경 착공 - 6개분장들마다 연간 50~100톤의 고기와 분뇨 생산 - 합남 낙원군 소재 - 농업용수 공급, 홍수피해 방지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계선(강계-낭림) 전철화공사 완공·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4 착공 - 총연장: 56.8km, 협궤노선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남 장수산 유원지 조성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1 착공, 2000.6 1단계공사 완공 - 식당, 판매대, 정각, 휴식터, 양어장 등 구비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화장품공장 세수비누직장 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생산능력: 수천톤 - 건설 참여: 평양시 상업망 건설 및 보수 사업소 등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강도, 중소형발전소 다수 건설 (대흥단3·4호, 이명수 3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지: 대흥단군, 삼지연군 - 형식: 수로언제식, 물길굴식 등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남포 고속도로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1 착공 - 총연장: 46.3km - 폭: 64m (차도 48m, 녹지 6m, 인도 6m, 갓길 4m)

< 분석 >

○ 북한은 '98.9 헌법 개정을 통한 체제 정비이후 당창건 55돌을 겨냥,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여왔음.

- '98.10 채택한 「내각 결정」을 통해 당창건 55돌이 되는 2000년까지의 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평양-남포 고속도로,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를 중요 건설대상으로 설정

※ 「내각결정」 내용 : ① 감자농사혁명을 통한 「먹는문제」 해결 ② 중소형발전소, 대규모발전소 병행 건설 ③ 전기·석탄·철도수송 문제해결 등

- 특히 금년들어서는 당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는 구호아래 경제건설은 물론 생산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 북한은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 우리가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다. 우리는 ...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하여야 한다.”고 강조

○ 이번 경제건설 실적의 특징은

- 전수면에서는 과거 주요 기념일의 경우('95.10.10 당창건 50돌, '98.9.9 정권창건 50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 경제건설 실적 비교 >

구 분	당창건 50돌	정권창건 50돌	당창건 55돌
건 수	12건	9건	14건

(당창건 기념탑, 김 부자 사적비 등 정치사상적 목적의 시설물 제외)

- 규모면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한 대형 공사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점(당창건 50돌 및 정권창건 50돌의 경우 소규모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

※ 북한은 평양-남포 고속도로, 안변청년발전소 등 대형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례적으로 기념메달 제정 관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채택(9.13)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발령(10.4)

- 내용면에서는 최근 북한이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업·에너지·수송부문에 건설이 집중(14건중 12건)된 점 등임.

종합 평가

○ 경제건설면에서는

-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건설자금 부족 등으로 당초 북한이 설정한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 북한은 이번 당창건 55돌까지 대천3호발전소, 각 도별 기초식품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8.1 발표된 「당중앙위 구호」)하였으나 아직 완공되지 못한 실정

- 군인 및 유희노동력을 대거 동원하는 건설방식을 통해 발전소,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생산면에서는

- 공장·기업소 조직개편, 생산설비의 대대적 정비·보수 등 일련의 생산성향상 조치를 통해 산업생산 정상화를 도모한 결과

※ 북한은 올해들어 「전국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대회」(2000.4.27~28)를 개최하는 등 기계설비 성능향상에 주력

- 금속·화학공업 등 기간산업부문까지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였으나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 농업, 경공업 등의 생산은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이렇게 볼 때 당창건 55돌에 즈음한 경제성과는

- “승리자의 대축전”에 걸맞는 만족할만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의존적 방식을 통해 생산의 장애요인을 일부 완화시키는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11.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 본격 추진

< 개요 >

- 북한은 1.11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일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올해들어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는 농업생산성 향상, 수자원의 효율적·종합적 활용, 전력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 동절기에도 불구, 동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유희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의도임.

< 보도요지 >

- 김정일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가 올해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동 공사는 김정일이 밝혀준 '우리식의 독특한 물길공사'임.
- 평남관개공사의 5배, 기양관개공사의 4배에 달하는 동 공사는
 - 400여리의 물길에 1개의 갑문과 수십개의 물길굴 등 수많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며
 - 1,500여만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40여만m³의 콘크리트를 치고 11만여m²에 장석을 입혀야 하는 방대한 공사임.

○ 공사 완공시 380여개 양수장, 530여대 양수기의 가동이 불필요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등 15개의 시·군이 혜택을 보게 됨.

- 동 물길은 전기를 쓰지 않고 대동강물을 '자연흐름물길'로 태성호까지 끌어들이 수 있음.

※ 물길구간에 있는 20여개 저수지들에 대동강물이 저절로 흘러 들게됨.(중앙통신, 2000.1.14)

○ 동 물길공사는 대동강에 갑문을 건설하고 8개의 물길굴을 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물길굴 뚫기 공사에는 6월1일관개건설사업소, 평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제3·4·5·6 사업소, 남포시 농촌경리위원회 관개건설사업소, 형제산구역·순안구역 건설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분석 >

○ 이번 물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평남도 서부지역은

- 열두삼천리벌(안주평야), 온천벌 등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이자 하절기 강우시 주요 침수지역으로

- '4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관개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온 결과

- 대동강과 연풍호, 태성호 등 도내에 산재한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평남관개체계, 기양관개체계 등 관개시설이 발달해 있음.

※ 평남관개체계 : 안주시,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 등 평남 서북부일대를 포괄하는 관개면적 10여만정보의 관개체계

※ 기양관개체계 : 남포시와 대동군, 온천군, 증산군, 용강군 등 평남 서남부일대를 포괄하는 관개면적 6만6천여정보의 관개체계

○ 북한은 이번 공사를

- 당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지난해 11.9 착공하였는 바,
- 이는 '98년 가을 시작된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영농기반 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북한은 2000.1.14 중앙통신을 통해 동 공사 완공시 평남도, 평양시, 남포시내 15개 시·군·구역의 9만 9천여정보 농경지에 대동강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

○ 개천-태성호간 물길공사는

- 평남관개, 기양관개 등 기존의 관개체계가 일부지역만을 포괄하고 있고, 관개 대상지역보다 저지대에 위치하여 양수기의 사용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 평남 서북지역에서 서남지역에 이르는 수로를 건설하여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관개체계를 연결함으로써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종합적으로 활용하고
- 중소형발전소 건설, 양수기 사용 억제 등으로 전력공급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평남도가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동 공사가 평양-남포 고속도로와 함께 금년도 역점 건설사업으로 제시됨에 따라 당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유희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됨.

12. 평안북도 토지정리 2단계공사 착수

< 개요 >

- 북한은 3.7 중앙방송을 통해 평안북도 토지정리 2단계공사가 착수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요지 >

- 김정일은 지난 1.24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소를 현지지도 하면서 1단계공사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능률적인 기계 수단들을 집중, 토지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낼 것을 지시하였음.
- 평안남도·황해남도 돌격대원들은 강원도, 평안북도 1단계공사의 경험을 살려 3.5 첫 하루동안에 계획보다 많은 토지를 정리하였음.
- 평안북도 돌격대원들은 평안북도 상단지대 군(郡)을 맡아 매일 토지정리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강원도·자강도·개성시 돌격대원들은 토지정리와 함께 수로, 논둑, 도로 공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각지 「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노동자들도 토지정리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와 부속품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분석 >

-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 '98.7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규모가 협소한 폐기밭 등을 정리하여 경지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 강원도에 이어 평안북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역점 사업임.

○ 특히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은

- '99.7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 총 5만 5천여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4,221.6정보의 경지면적을 증대 시킨다는 목표 아래
- 1단계공사 기간('99.10~2000.1)중 2만 9천여정보의 토지를 정리 하여 1천여정보의 경지면적을 증대시킨 바 있음.

※ 강원도 토지정리사업('98.10~'99.4)을 통해서는 총 3만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1,760정보의 새로운 논·밭 면적을 증대

○ 평안북도는

- 농경지 면적이 황해남도(313,900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261,100ha)인 북한의 주요 곡물생산 지역이나
-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보다는 구릉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비율도 높아 토지정리의 효과가 비교적 큰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번 평안북도 토지정리 2단계공사는

- 지난 1월말 1단계공사를 완료한 이후 중장비 수리·정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한달여만에 시작된 것으로
- 김정일의 두차례에 걸친 현지도도('99.7, 2000.1) 등 평안북도 토지 정리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할 때
- 북한은 각지의 유휴 노동력과 건설 중장비 등을 적극 동원, 당초 완공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13. 김정일의 평북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담화내용 공개

< 개요 >

- 북한은 4.18 중앙방송을 통해 지난 1.24부터 4일간 김정일이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시 밝힌 담화내용을 상세히 공개 보도하였음.

< 담화요지 >

- 김일성은 청산리 논밭의 토지정리사업 우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일꾼들이 추진하지 않았음. 15~20년 전부터 토지정리사업을 시작했었다면 지금쯤 이 사업을 끝낼 수 있었을 것임.
- 간석지 개간보다 토지정리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것임.
- 현재 추진중인 평북 토지정리를 오는 5월까지 완료해 가을부터 5만정보로 계획된 황남 경지정리를 시작하며 평남 토지정리도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가 끝나면 30만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평북에서 토지정리사업이 끝나면 수천정보의 새땅을 얻게되며 몇만톤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알곡을 최고수확연도만큼 생산해야 함.
- 토지정리 직후 지력 보강을 위해 평북 지역에 3년동안 화학비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영농 기계화 차원에서 트랙터 160대를 지원할 것임.
- 남한 사람들이 이곳을 와보면 부러워할 것임. 남한에서는 곡창지대의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토지정리를 할 수 없음.

< 분석 >

○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 '98.7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규모가 협소한 폐기밭 등을 정리하여 경지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안남북도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북한의 역점사업임.

○ 이번 보도의 특징으로는

- 지난 3.7 보도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담화내용 전문 전체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
- 토지정리를 통한 경지면적 확대 이외에 농업생산성 제고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점
- 김일성은 토지정리사업의 우월성을 알고 있었는데 관계자들이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 점
-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상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 한 점 등임.

○ 이처럼 김정일이 토지정리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 토지정리사업을 통해 경지면적을 넓히고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김정일의 담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감안할때 토지정리사업을 북한 전역에 걸쳐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임.

14. 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2.18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도하였음(12.19, 중방)

< 보도요지 >

- 김정일은 연안군, 청단군을 비롯한 도내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토지정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였음.
- 김정일은 현지도를 통해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추진, 관개 구조물들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알곡 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이모작 농사의 대대적 추진 등과 같은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분석 >

-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 '98.7 김정일의 소위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 규모가 협소한 돼기밭 등을 정리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킨다는 목적 아래
 - 국가적 차원에서 자재 및 노동력을 지원하여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임.
-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97~'98년에는 중소형발전소 건설, '99년에는 토지정리사업, 금년에는 양어사업을 각각 '전군중적 운동'으로 제시

○ 이번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은

- 강원도, 평안북도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된 토지정리사업으로

※ 강원도('98.10~'99.4)에서 3만정보, 평안북도('99.10~2000.5)에서 5만 5,000정보의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에서 1,760정보, 평안북도에서 수천 정보의 경지면적을 확대

- 지난 10월 토지정리 대상면적 약 10여만 정보를 목표로 시작되었는데

- 현재 1단계 목표로 내년 봄까지 5만정보의 토지를 정리한다는 구상 아래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황해남도는 재령평야(750km), 연백평야(550km) 등이 소재한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는

- 금년들어 총 71회의 공개활동 가운데 경제부문에서는 24번째이자

- 토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4번째 현지지도임.

○ 특히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는 12월 들어 2번째인데, 이는

- 당시(12.5) 현지지도가 인민군 제350부대 시찰과 같은 날 이루어진 관계로 심층적인 현지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 재차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업 제시와 함께 현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12.5 방문 당시에는 방문지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황해남도 토지정리 총계획도 앞에서 토지정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다"라고만 하였으나 이번에는 "연안군, 청단군을 비롯한 도내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고 보도

15. 평양-남포 고속도로 준공식 개최

< 개요 >

- 북한은 10.11 김영남, 홍성남 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양-남포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로 명명) 준공식을 개최하였음(10.12, 중방)

※ 북한은 평양-남포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 "평양-남포 고속도로를 청년영웅 도로로 함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0.11)을 채택(10.12, 중방)

< 분석 >

- 이번에 새로이 준공된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 '98.11월부터 당창건 55돌(2000.10.10) 완공을 목표로 5만여 청년 및 군인들을 동원하여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온 북한의 역점사업중 하나임.

- 동 고속도로는

- 기존 평양-남포 고속도로와는 별도로

- 평양 광복거리 만경대 갈림길-남포시 천리마구역-강서구역-용강군-항구구역 입구(청년다리)에 이르는 일반도로 구간을 새로이 개건·확장함으로써

- 도로 총연장 46.3km, 총 도로폭 64m(그 중 차도폭 48m)의 왕복 12차선으로 완공된 북한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임.

※ 기존 평양-남포 고속도로(평양-강선-대안-남포)는 총길이 44km, 차도폭 15m의 4차선 도로로 '78년 건설됨.

○ 북한은 동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 건설기간중 최우선적인 자재 공급, 식량공급규정 상향조정, 현장 의료 봉사체계 확립 등 원활한 공사 진척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 수차례에 걸쳐 상훈을 수여하고 공사지휘용 승용차 및 음식물을 공급하는 등 건설 동원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심하여 왔으며 (10.12, 중방)
- 특히 완공에 즈음하여서는 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채택(9.13, 10.11), 기념메달을 제정하고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이번 평양-남포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의 완공으로

- 북한의 주요 산업기업들이 밀집해있는 평양과 남포사이의 수송 애로가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양 지역간 연계 생산활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평양과 남포간에 격리되어 있던 생활권이 동 도로를 따라 연결됨으로써 도로 주변지역 개발, 도시권역 확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99.4.5)는 평양-남포 고속도로가 “완공후 주변에 수십만 세대의 대규모 문화주택을 건설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언급

16. 김정일 위원장, 청년영웅도로와 황주 닭공장 현지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1.13 청년영웅도로(신 평양-남포 고속도로)를 시찰한데 이어 황주 닭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11.14, 중방)

< 보도요지 >

< 청년영웅도로 시찰 >

- 평양시 만경대 갈림길에서 남포시 입구의 청년다리에 이르는 100여리 구간에 건설된 청년영웅도로는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임.
- 동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서해안 일대의 교통망이 더욱 완비되어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평양시가 골지의 항구도시를 끼게 되었음.
- 김정일 위원장은 도로 관리 운영에서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황주 닭공장 현지지도 >

- 연건평 2만 7,000여㎡에 달하는 동 공장은 최신식 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으로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됨.

- 인민군 군인들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원만히 수행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은 축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은 사료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엄격한 방역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분석 >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는

- 금년들어 총 62회의 공개활동 중 각각 18, 19번째 경제부문 현지지도임.

- ※ 전년 동기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21회

-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시찰한 청년영웅도로는

- '98.11 착공되어 2000.10.11 준공된 북한의 8번째 고속도로로서

- ※ 기존 고속도로: 평양-순안(15km), 평양-남포(44km), 평양-원산(189km), 원산-금강산(114km), 평양-개성(170km), 평양-향산(120km), 사리원-신천(30km)

- 평양 광복거리 만경대 갈림길-남포시 천리마구역-강서구역-용강군-항구구역 입구(청년다리)에 이르는 일반도로 구간을 새로이 개건·확장함으로써

- 도로 총연장 46.3km, 총 도로폭 64m(그 중 차도폭 48m)의 왕복 12차선 고속도로(아스팔트 포장)임.

○ 한편 황주 닭공장은

- 작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가금목장 시찰이래 식량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축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된 축산기지의 하나(양계장)로

※ 북한 재정상(당시 임경숙)은 금년도 예결산 보고(4.4)를 통해 “(올해에) 닭공장, 오리공장 등 축산기지를 정비·개선하는 등 국가 농·목장에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 황해북도 황주군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부대내 군인 및 지역 주민들의 부식용으로 활용키 위해 건설한 것으로 보임.

○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 최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 최근 북한은 청년영웅도로, 개천-태성호 수로('99.11 착공)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인민군들을 대거 동원

- 올해들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축산기지 건설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임.

※ “북한 각지의 군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최신시설을 갖춘 닭공장과 가금목장을 건설하고 있음.”(6.10, 노동신문, 6.15 평양방송)

17. 농업성 부상, 신년 '공동사설' 과업 관철 다짐

< 개요 >

- 농업성 부상 김정량은 반향을 통해 주체농법의 정당성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하였음(평방, 1.3)

< 보도요지 >

-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올해의 영농사업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업이나 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겠음.
- 우리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대로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그 정당성이 이미 실증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겠음.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며, 두벌농사에 주력
 - 집짐승기르기와 양어사업에 주력
 -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을 영농기 전에 끝내고,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를 힘있게 추진
- 농업생산을 책임진 우리 일꾼들은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 제끼겠음.

< 분석 >

○ 북한은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 농업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 산업부문별 과업제시 언급중 농업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작년도에 이어 감자농사와 이모작 강조와 함께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 북한이 매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하는 '전군중적 운동'으로 '97~'98년에는 중소형발전소 건설, '99년에는 토지정리사업을 지정

- 주체농법에 대해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정당성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이번 농업성 부상의 다짐을 보면

-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되었던 농업부문에서의 주요 과업들을 재강조 하면서

- 영농사업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북한이 작년도에 이어 이처럼 농업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 '먹는 문제' 해결 없이는 인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 당분간 농업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주력해 나가야 할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주체농법」에 대해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정당성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 이는 작년 2월 농촌테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통해 주체농법에 대한 정의를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실정에 맞게 농사 짓는 과학농법”이라고 재해석하면서
 - ※ 종래 북한은 「주체농법」을 ‘과학농법’과 ‘집약농법’이라고 정의하였으나 동 보고회에서는 집약농법을 삭제
 - ※ 북한은 ‘집약농법’ 방침에 따라 ‘80년대 이래 密植栽培와 함께 다락밭 개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결국 북한 농업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감자 재배면적의 확대, 少植栽培 등을 통해 침체된 농업생산성이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9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98년(389만톤)에 비해 8.5% 증가한 422만톤
- 따라서 향후 북한의 농정방향은
 - 종래와 같은 단순한 노력동원 일변도의 증산운동으로부터
 - 作目조정, 이모작, 종자개량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實利 보장’과 함께 ‘실력’ 및 ‘질’ 제고 등을 강조

18. 「농촌테제」 발표 36주년 맞아 농민들의 “주인의식” 강조

< 개요 >

- 북한은 2.25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36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을 집대성한 역사적 대강”이란 제하의 중앙방송 논설을 발표(2.25)하였음.

< 논설요지 >

- 「농촌테제」는 주체적인 농촌건설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백과전서적인 문헌이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강령임.
- 「농촌테제」는 농민들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참다운 주인과 자주적·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줌.
- 농민들을 자주적·창조적 존재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임.
- 「농촌테제」는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줌으로써 농민들을 자주적·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줌.
- 「농촌테제」는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기 위한 길을 열어줌.
- 김일성은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 기술혁명과 농업생산을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음.
- 「농촌테제」는 ‘무계급사회’ 건설을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줌.
-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두 소유의 차이를 없애고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임.

-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유 관계 차이의 근원을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임.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정열을 바침으로써 김정일의 '세련된 영도'를 따라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함.

< 분석 >

○ 「사회주의 농촌테제」란

- 노동당 제4기 8차 중앙위 전원회의('64.2.25)를 통해 김일성이 제시한 농촌문제 해결의 강령적 지침으로서
- 농업의 협동적 소유형태(협동농장)를 전인민적 소유형태로 전환(국유화)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간의 격차 해소를 주요 방침으로 표방했으며
- 이를 위한 과업으로 농촌에서의 사상·문화·기술혁명 등 '3대혁명'과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 등 '4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음.

○ 「농촌테제」 발표 관련 최근 동향을 보면

- 발표 30주년인 '94년에는 김일성, 당·정 고위관계자 등 1만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대회」를 개최('94.2.25)하는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나
- ※ 김일성은 동 대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농업의 소유와 경영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국영농장경영위원회」나 「농업연합기업소」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

- '95년 이후에는 농업관계자 인터뷰, 논설 등을 통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성과의 상투적 선전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 발표 35주년인 '99년에는 김영남, 홍성남 등 당·정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회」를 개최('99.2.24)하였음.

○ 북한은 이번 「농촌테제」 발표 36주년(2000년)에는

- 30주년('94년), 35주년('99년) 과 달리 소위 「꺾어지는 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기념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중앙방송 「논설」만을 발표하였음.

○ 이번 「논설」의 특징은

- 농민들을 자주적·창조적인 존재로 키울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는 등 농민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 농업부문의 협동적 소유형태(협동농장)를 전인민적 소유형태(국영농장 등)로 전환하는 작업의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임.

※ 북한은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김정일의 서한 이후 '94.12 평양 만경대구역 및 평남 숙천군내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등 농업부문의 소유형태 전환을 추진

○ 이로 볼 때

- 이번 논설이 농민들의 주인의식 강조, 사영화가 아닌 국영화로의 이행 의지 표명 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 최근 텃밭, 돼기밭 등 개인 경작지 확대와 함께 농민들의 집단영농 기피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농장 복귀를 촉구하여 「집단적 생산문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19.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 개최

< 개요 >

- 북한은 1.26~27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증산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음. (중앙TV 1.27, 중방, 1.28)

< 보도요지 >

-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가 1.26~27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홍성남·계웅태·연형목·최영립·김기남·이용무 및 관계부문 일군, 모범적인 국영 및 협동농장 관리일군, 근로단체 책임일군 등 관계자 참가
- 회의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했음.
 - 혹심한 자연재해와 비료 등 영농물자들의 부족으로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지장
 - 수확고가 높은 논벼와 강냉이 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원종 및 채종체계 확립
 - 조직배양으로 바이러스 없는 감자종자를 빨리 생산 공급

- 두벌농사·세벌농사 및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를 더욱 개선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와 양어사업을 계속 추진
- 큰물과 해일로 파괴된 관개구조물과 양수설비, 부침땅, 해안방조제들을 조속히 복구

※ 이하섭 농업상 보고

※ 김정일에게 주는 맹세문 채택

< 분석 >

○ 전국 관계부문 일군회의는

- 주요 계기시 마다 해당 지방간부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여 사상교육 및 주요 과업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 직맹·무역·과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 회의가 개최되어 왔음.

※ 「'90년대 이후 '전국 관계부문 일군회의' 개최 현황」 : 첨부 참조

○ 이번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는

- 작년 1월 「전국농업부문일군 열성자회의」 이후 1년만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업부문 회의로서

- 전국의 농업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농업부문 과업 관철을 다짐한 외에도
- 비료 등 영농물자 부족으로 작년도 농사에 지장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흉수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은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농업부문 주요 과업으로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추진, 양어 및 초식동물 사육, 토지정리사업 등을 제시

○ 북한은 금년들어

- 김정일의 첫 번째 공식활동으로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1.24)를 실시한데 이어
- 이번에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 금년에도 농업생산 제고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이처럼 금년에도 농업부문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 '먹는 문제' 해결 없이는 인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하에 비롯된 것으로
- 향후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이 단순한 노력동원 일변도의 증산책으로부터
- 作目조정, 이모작, 종자개량 등을 통해 비합리적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 주목됨.

< 첨부 >

'90년대 이후 「전국 관계부문 일군회의」 개최 현황

연 도	개 최 내 용	개최회수
1990	전국저금일군회의(7월)	1회
1993	전국직맹원선전일군회의(4월)	1회
1994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1월) 전국무역부문일군회의(3월)	2회
1996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2월)	1회
1997	전국당일군회의(1월)	1회
1998	과수부문일군회의(2월) 전국직맹선동일군회의(2월) 자력갱생모범일군회의(3월)	3회
1999	국토환경보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1월)	1회

20. 5월~7월말 현재 북한지역 가뭄 심각

< 개요 >

- 북한은 최근 지난 5월이후 7월말 현재까지 계속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복 보도
 - “지난 5월중순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함경남도 대다수 협동농장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중방, 7.7)
 - “왕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전당, 전국, 전민이 논밭에 물대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중방, 7.19)

< 분석 >

- 5월~7월 기준중에 북한에 내린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대비 60% 수준에 불과하여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
 -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남 배천·개풍·판문군(「연백평야」지대), 평남 문덕·숙천군(「열두삼천리평야」지대) 등까지도 가뭄현상 지속

< 5월~7월 기간중 평년대비 강수량 비중 >

지역	황남	황북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자강	양강
비중	62.5%	89.7%	51.1%	67.4%	46.4%	50.9%	53.0%	65.1%	65.9%

○ 다만 태풍(카이탁)의 영향으로 한때 신의주, 해주, 원산 등 일부 해안지역은 해갈에 다소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

- 당시(7.10~12일) 북한 전역의 평균 강수량은 24.7mm이고, 신의주(120mm), 해주(33mm) 등 서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림.

○ 따라서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작물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

- 특히 관개가 어려운 중간산지대 이상에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 감자 등 밭작물의 생육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

<북한지역 1월~7월 강수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서부														
황남	25.8	14.8	1.4	19.9	0.5	24.9	16.5	47.2	35.0	76.4	78.4	101.7	64.5	104.9
황북	26.1	13.6	1.6	19.2	5.0	31.6	39.1	52.1	45.5	86.8	61.9	105.0	119.6	61.0
평남	27.5	16.3	5.4	18.3	5.8	29.4	50.1	43.0	26.3	72.4	24.6	99.5	82.1	88.2
평북	14.3	12.9	1.8	11.9	17.6	20.3	41.6	54.9	34.2	76.7	36.2	115.2	104.8	67.7
동부														
강원	48.1	33.6	1.4	41.2	4.1	47.2	22.9	55.4	70.0	97.5	54.3	137.7	56.8	154.8
함남	45.9	16.2	5.8	12.3	5.4	24.8	27.8	55.5	103.8	66.9	12.6	110.6	26.2	102.6
함북	41.6	11.0	0.2	12.3	6.5	18.8	31.2	45.3	51.2	53.2	9.5	104.7	46.9	44.8
북부														
자강	15.4	10.4	2.9	10.4	13.2	17.3	49.8	52.2	30.0	58.0	39.7	128.1	97.1	70.1
양강	42.8	12.3	9.2	13.6	22.6	26.3	24.8	54.9	131.6	78.5	48.9	144.6	30.8	97.2

21. 각지에서 태풍피해 복구 주력

< 개요 >

- 북한은 9.4 중앙방송을 통해 각지에서 태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 복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요지 >

- 지난 8.27 황해남도를 거쳐 함경남북도 등 여러 지역을 휩쓴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해 각지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
- 특히 8.31과 9.1 사이에 황해남도 해주시를 비롯한 동서해안 지대들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무더기비가 내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해일현상까지 나타나 재해가 겹치게 되었음.
- 지금 해당지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해서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음.

< 분석 >

- 이번 북한의 태풍피해 보도 관련 특징은
 - 예년과 달리 태풍피해 발생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점
 - 추가 보도나 구체적 피해상황 보도가 없다는 점 등임.

※ 예년의 경우 태풍피해 발생과 함께 신속히 보도하는가 하면 구체적 피해상황을 반복 보도

○ 우리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 8.27~9.1 기간중 북한의 27개소 기상관측소중 개성(229mm), 원산(164mm), 신계(123mm), 함흥(106mm), 장전(104mm) 등 5개 지역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 나머지 22개 지역은 100mm이하의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됨.

※ 상기 데이터는 8.31 21:00~9.1 09:00 기간분이 누락된 것임.

※ 기상청은 1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 150mm 이상일 경우 「호우경보」를 발령

○ 한편 유엔 인도주의문제 조정관실(UNCHR) 평양사무국은 9.8 성명을 통해

- 최근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최소한 42명이 사망했으며

- 도로와 농작물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음.

○ 이번 태풍에 의한 북한지역의 농작물 피해 규모는

- 구체적 피해 지역 및 면적에 대한 북한당국의 추가 발표와 함께

- 이달 중 방북 예정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22. 축산부문 생산공장 건설 증가

< 개요 >

-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김정일 지시에 따라 자동화된 최신식의 '닭공장', '돼지공장' 등 축산부문 생산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요지 >

- “북한 각지의 여러 군부대는 최근 김정일 지시에 따라 최신식 시설을 갖춘 '닭공장'과 가금(家禽)목장을 건설하고 있음”(노동신문 6.10, 평방 6.15)
-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건설하고 있음”(중방 6.26, 평방 6.28)
-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자강도내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강계시에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닭공장'을 건설하고 있음”(평방 6.27)

< 분석 >

- 북한이 최근 '닭공장', '돼지공장' 등 가축부문 생산공장들의 건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더 많이 공급하여 식생활을 보다 푸짐하게 해주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 가축 사육 및 공정의 자동화로 보다 많은 양의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식량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보임

○ 그동안 북한의 축산업 정책은

- '63.9 당중앙위 제4기 7차회의 결정에 따라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를 목표로 국영축산(국영농목장), 공동축산(협동농장), 농민부업축산(농가)형태의 축산체계를 확립한 이래
- '71.11 제5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협동농장, 농가, 학교 등에서 닭, 오리, 토끼, 염소, 양 등 가축을 의무적으로 사육하도록 하고
- '8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로 '축산부문작업반대회', '모범축산일꾼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기타 '염소사육 전문 축산작업반·분조 확대', '토끼협회 발족' 등 축산발전을 독려하여 왔음

○ 이러한 축산업 정책에 따라 북한은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여 왔는데 특히 금년들어서는

-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초식동물 기르기 운동이 전군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 잦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닭, 돼지 등 가축을 사육에서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최신식의 이른바 '닭공장', '돼지공장' 등 축산부문 생산공장들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3. 김정일 국방위원장, 메기공장 현지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18 주요 간부들을 대동하고 새로 건설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10.19, 중방)
 - 조명록(국방위 제1부위원장, 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 현철해·박재경(이상 인민군 대장) 등 동행

< 보도요지 >

- 군인건설자들은 최신식 메기공장을 반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음.
- 김정일 동지는 실내 원형살찌우기못, 새끼고기못, 종자고기못, 야외 살찌우기못을 비롯한 생산공정을 돌아보고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 동지는 양어의 과학화·집약화를 결정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도를 밝혀 주었음.
 -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종자 적극 발굴
 - 물고기에 대한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선진 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수용
 - 메기 수송 냉동장들을 충분히 보장
 - 인민무력부와 모든 군부대들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

< 분석 >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는

- 금년들어 총 51회의 공개활동 중 15번째 경제부문 현지지도로서, 이 가운데 메기공장 현지지도는 지난 5.9, 9.20에 이어 세번째임.

○ 최근 북한은 양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는데

- '97.6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 시키라고 지시한 이래
-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양식어종 개발·보급과 각지의 연못·호수 등을 활용한 양어장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97.7), 물 자원법('97.8), 양어법('99.3) 등 관련 법규를 연이어 제정하였고
- 작년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대 양어장 시찰(5월)을 시작으로 양어장을 다섯 차례나 현지지도한 바 있음

○ 이번에 새로 건설된 메기공장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시 군 관련 인사를 대동하고 있고, 공장 건설에 군인들을 투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 군부대 내에 소재한 양어장으로 군인 및 지역 주민들의 부식용으로 활용키 위해 건설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북한은

- 메기가 기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함께 영양가가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 전국에 걸쳐 메기공장을 건설하는 등 메기 양어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24.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홍단군 종합농장 등 현지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강도 대홍단군 종합농장(11.26),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11.27), 함경남도 정평군 금진강발전소 언제건설장과 함흥시 원료기지농장(11.30)을 잇따라 현지지도하였음(11.28, 121, 중방)

< 현지지도 요지 >

<대홍단군 종합농장>

- 고산지대의 다수확 작물인 감자농사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을 급격히 늘려야 함.
- 다음해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종자 보관, 농기계 수리·보수 등 일련의 준비사업들을 앞당겨 말끔히 끝내야 함.
-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한성이 강하면서도 빨리 자라는 종자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함.

<포태종합농장>

- 포태종합농장에 배치된 제대군인들이 감자농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올해 감자농사에서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함.
- 산간지대의 전기화를 앞당겨 실현하여야 함.

<금진강발전소 언제건설장>

- 금진강발전소 언제공사는 정평군과 주변 군들의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짐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그쳐 끝내야 함.

<함흥시 원료기지농장>

- 새로 개간한 원료기지를 효과 있게 이용하여 함흥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

< 분석 >

- 이번 김정일의 대흥단군 종합농장 등의 현지지도는

- 금년들어 총 65회의 공개활동 가운데 경제부문에서는 20번째(대흥단군 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 21번째(금진강발전소 언제건설장, 함흥시 원료기지농장) 현지지도임.

- 이번 김정일의 현지지도 특징은

- 방문 4개 지역중 3개 지역이 농업부문 지역이라는 점
- 새로운 과업이나 정책 제시보다는 주로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 등임.

- 따라서 이번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과업 달성이 선차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관련 사업을 총화하고 임무 완수를 독려하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25. 농업성 농산국장, 식량문제 관련 담화 발표

< 개요 >

- 북한 농업성 농산국장은 금년 가뭄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업 부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9.25 담화를 발표하였음 (중앙통신, 9.25)

< 보도요지 >

- 기본 알곡작물인 논벼와 강냉이 파종시기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40~50%로 떨어짐.
 - 저수지의 저수량은 계획의 3~18% 정도로 저조
 - 전반적으로 모내기가 한달 이상 지연 또는 일부 지역 미실시
 - 흑심한 왕가물과 고온으로 인하여 논벼 36만톤과 강냉이 66만톤 등 약 100여만톤의 알곡수확 감소 예상
- 최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하여 4만 6,000여정보의 논과 7만 6,000여정보의 강냉이밭 등 약 14만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매몰 또는 침수되었음.
 - 태풍 피해로 인해 논벼와 강냉이 수확량은 최소한 40만 5,000여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총체적으로 금년도 가뭄·고온·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알곡 손실량은 도합 140여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내년에도 식량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 확실

< 분석 >

○ 이번 보도의 특징은

-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외용 보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점
- 내용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수확 감소량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밝히고 있는 점
- 시기적으로는 WFP의 대북 추가 식량지원 호소(9.15)에 이어 남북 경제실무접촉(9.25~26),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9.27~30) 등의 시점에 맞추어 이루어진 점 등임.

○ 금년도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면

- 농작물 주요 생육기인 5~7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모내기 실적이 90%에도 못 미치고 있고
- 최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황해도·함경남북도·강원도 일원에 집중 호우가 내려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상청 자료 참조)

※ 제12호 태풍 「프라피룬」(8.27~9.1) : 개성(229mm), 원산(164mm), 신계(123mm), 함흥(106mm), 장전(104mm) (동 데이터에는 8.31 21:00~9.1 09:00 기간분이 누락)

※ 제14호 태풍 「사오마이」(9.13~17) : 개성(214mm), 장전(186mm), 원산(148mm), 김책(120mm)

○ 이번 북한의 발표내용은

- 다소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으나 북한의 열악한 관개·수리시설 등을 감안해 보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26. 「식수절」 맞아 전지역의 '원림화' 촉구

< 개요 >

- 북한은 3.2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금년도 식수절(3.2)을 맞아 모든 인민들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에 참가하여 온 나라를 원림화(園林化) 하고자 하는 당의 방침에 적극 따를 것을 강조하였음.

< 사실요지 >

- 산림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보임.
- 김정일의 영도아래 최근년간 나무심기운동을 힘차게 전개한 결과 온 나라를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음.
 - '99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10여만정보의 면적에 식수 거행
- 김정일은 “국토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을 발표하여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음.
 - 특히, 식수절을 새롭게 제정하여 봄철 나무심기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 나무심기를 권장
- 한편, 나무심기에 있어서는 적지 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식수하여 나무의 생존율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음.

< 분석 >

- 북한의 산림자원실태는
 - 각종 산업용재 및 신탄재 생산을 위한 남벌, 농경지 확장을 위한 다락밭 조성 등 무리하게 산지를 개간해 왔으며

- 특히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산림훼손 등으로 산림보존 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북한은

- '산림조성·보호 및 이용 등 임업 발전에 관한 결정'(92.10), '산림법'(92.12) 등을 제정하였으며
- 산림조성과 수종교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99.3)하는 등 산림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매년 식수절(4.6)을 맞아 기념 행사를 전국적 규모로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식수절을 3.2로 변경한 바 있음.

- 식수절은 김일성이 평양 문수산에 식수한 날('47.4.6)에서 김정 일·김정숙 등 이른바 '3대 장군'이 함께 식수한 날('46.3.2)로 변경

○ 특히 이번 식수절을 맞아 「동·사설」에서는

- 종전과는 달리 나무심기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 또한 질적 수준 제고 및 산림보호·관리에 철저히 노력하여 나무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와 같이 북한이 매년 식수절을 맞이하여 나무심기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은

- 산림자원의 황폐화로 인한 수 차례에 걸친 자연재해의 결과, 그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 산림자원의 보호·개발을 통해 경제회생 및 주민생활 향상에 활용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7. 양어장 및 기초식료품생산기지 연이어 조업

< 개요 >

- 북한은 12.8~12.15 기간중 평남 온천양어장, 해주기초식료품공장 등 9개의 양어장 및 기초식료품기지를 잇따라 건설·조업하였음.

< 주요 건설동향 >

일 자	건설·조업 동향	비 고
12. 8	평남 온천양어장 개건·확장 준공	중방, 12. 9
12.10	순천화력발전소 메기공장 준공	중방, 12.11
12.10	청진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2
12.11	사리원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2
12.12	해주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3
12.14	평양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4
12.14	개성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6
12.15	북창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6
12.15	원산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중방, 12.16

< 분석 >

- 북한은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 경공업 혁명의 불길을 더 높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와야 하며
-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 주민생활 및 「먹는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음.

○ 이번에 건설·조업된 공장들의 특징을 보면

- 양어 및 기초 식료품 생산기지의 건설사업은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된 중점과제라는 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어부문 현지도도를 3차례나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 북한은 200여개의 매기공장과 양어장을 건설하였다고 선전 (중앙통신, 12.4)

- 기초 식료품 생산공장 건설의 경우 각 지역의 대표적인 부식물 공급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안배하여 건설되고 있다는 점
- 연말을 앞두고 건설 목표 마무리 차원에서 무더기로 건설·조업되고 있다는 점 등임.

○ 이와 같이 잇따른 공장 건설·조업으로

- 양어, 남새(채소), 된장, 간장 등 부식물 공급확대를 통해 직면한 식량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 아직 기초생산기지가 조성되지 않은 여타 지역의 경우에는 연말을 전후하여 크고 작은 기초생산물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됨.

28. 김정일, 평양시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 개요 >

- 김정일 위원장은 12.7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여러 공장·기업소를 현지지도 하였음(12.8, 중·평방)
 - 대상 : 즉석국수공장, 위생자재공장(이상 대동강변 소재), 홍부수원지(모란봉 소재), 타조목장(평양시 교외 소재)

< 보도요지 >

< 즉석국수공장·위생자재공장 관련 >

- 김정일 위원장은 군인건설자들이 생산문화가 확립된 현대적인 공장을 짧은 기간에 건설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음.

< 홍부수원지 관련 >

- 수도건설연합총국의 노동자들은 능력이 크며 현대적인 수원지 건설공사를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은 물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의 하나인 만큼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타조목장 관련 >

- 군인건설자들은 설비가 현대화되고 능력이 큰 타조목장(부지면적 : 40여만 m²)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마쳤음.

- 김정일 위원장은 타조가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많은 고기와 가죽, 털을 생산하는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짐승이므로 많이 길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분석 >

- 이번 평양시 공장·기업소 현지지도는

- 금년들어 총 68회의 공개활동 가운데 23번째의 경제부문 현지지도임.

- 김정일의 금년도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 주로 “먹는 문제” 및 에너지난 해결과 관련된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데 주안이 두어졌으며

- ※ 금년도 경제부문 현지지도의 부문별 비중은 농축산·양어부문(36.7%), 에너지부문(28.6%), 중화학공업(14.3%), 경공업(12.2%) 순

- 내용상으로는 유희노동력을 동원한 당면 건설사업과 관련된 시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이번 현지지도도

- 즉석국수(라면), 식수, 타조 등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건설된 공장·기업소를 주로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 금년들어 실시된 다른 현지지도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특히 김정일이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식수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은

- 그동안 부차적인 관심사에 머물러 왔던 식수문제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됨.

29. 김정일 위원장, 함북 공업부문 현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1~2 이근모, 김국태 등 당 간부들을 대동하고 함경북도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도하였음(8.4, 중방)
 - 수행자 : 이근모(함북 당 책임비서), 김국태(당 비서), 박남기(당 중앙위 위원 겸 국가계획위원장), 박송봉·이용철·장성택(이상 당 중앙위 제1부부장)
 - 현지도 대상 : 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김철발전소·금강2호발전소·금강5호발전소 등 새로 건설된 중소형발전소, 어랑군 어대진에 건설되고 있는 제염소, 청진양어장 등

< 현지도 요지 >

- 기존 생산능력의 최대한 발휘, 신규 생산능력의 추가 조성, 정광 등 원료·자재의 충분한 공급 등을 통하여 철강재를 증산할 것
- 기존 발전소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도처에 건설함으로써 전력 생산을 늘일 것
- 중소어업, 세소(細小)어업, 양식업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 것
-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 것
- 일꾼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

< 분석 >

○ 이번 현지도는

- 금년들어 총 36회의 공개활동 중 10번째의 경제부문 현지도(전년 동기는 12회)이며
- 함경북도 도단위에 대한 현지도로서는 지난 '98.11(약전기계공장, 온포3·4호발전소 등)과 '99.3(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등)에 이어 실시된 것임.

○ 이번 현지도의 특징은

- 종래의 현지도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국가계획위원장을 대동하고 있는 점
 - 증가하는 철강재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생산능력을 추가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점
 - 수성천에 계단식으로 건설된 김철발전소, 금강2·5호발전소 등 다수의 중소형발전소들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 등임.
- ※ 함경북도는 '98년 이후 청진시 전기난방화를 목표로 수성천에 계단식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99.11~2000.2간 10여개의 발전소를 조업하였으며, 지난 2.24에는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음.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경북도 현지도는

- 도단위의 공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현지도를 통하여 연관 산업 공장·기업소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30. 김정일 위원장, 함남·자강도 인민경제부문 현지도

< 개요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26~27 함경남도 및 8.28~31 자강도 인민경제 부문을 현지도하였음 (8.29 및 9.2, 중방)
 - 함경남도 동행 : 박송봉·이용철(이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제1부부장), 이태남(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풍기(함남 인민위원장)
 - 자강도 동행 : 연형묵(자강도 당 책임비서), 전병호·김국태(이상 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송봉·이용철·장성택(이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제1부부장)

< 보도요지 >

<함경남도 현지도>

- 김정일 동지는 현지도 기간 성천강 29, 30, 32호 발전소와 6월 4일 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도하였음.
- 김정일 동지는 성천강 29, 30, 32호 발전소를 현지도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며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 성천강발전소는 33개의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중소형발전소로서 현재까지 10여개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정일 동지는 동봉협동농장을 현지도하면서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 철저 실시, 종자혁명 추진, 두벌 세벌 농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였음.

<자강도 현지도>

- 김정일은 현지도 기간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강계전방적공장, 홍조청년발전소와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마을, 성간입산사업소, 장강군 장평협동농장과 무덕협동농장,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 성간고등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현지도 기간중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하였음.
 - 생산수준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 : 생산공정의 현대화·과학화 적극 추진 및 선진과학 기술 적극 수용
 -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 : 중소형발전소 건설 계속 추진
 -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 : 적지적작 원칙 철저 고수 및 기후 풍토에 맞는 우량품종 재배
 - 축산 및 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 : 염소·토끼·양·소를 비롯한 풀먹는 짐승을 대대적으로 사육, 누에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수익성 제고
 -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과업 :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 조기 완공, 남새생산 증대, 장공장 만부하 가동 등

< 분석 >

○ 이번 김정일의 함경남도·자강도 현지도는

- 금년들어 총 42회의 공개활동 중 11~12번째 경제부문 현지도로서 (전년 동기는 16회)
- 도 단위 종합적 현지도로는 함경북도(8.1~2)에 이어 2~3번째의 것임.

○ 함경남도 현지도의 특징은

- 전력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소형발전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한 종자개량·이모작 등 과학기술적 영농방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임.

○ 자강도 현지도의 특징은

- 4일 동안 무려 9군데를 시찰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 농업 및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걸쳐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임.

○ 이번에 실시된 함경남도와 자강도 경제부문 현지도는

- 모두 작년 9월에 이어 재차 실시된 것으로
- 당 창건 55돌(10.10)을 한 달여 앞두고 농·공업 등 제반 경제부문의 생산 정상화 촉구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임.

31. 김정일, 영변·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 개요 >

- 김정일은 6.21 평북도 당·정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영변견직공장 및 박천견직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6.22, 중방)
 - 주요 수행원 : 김평해(평북도당 책임비서), 김국태(당비서), 박송봉·장성택·최춘황(이상 당 제1부부장)

< 보도요지 >

-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비단천 생산기지들의 하나인 영변견직공장과 박천견직공장의 노동자들은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음.
 - ※ 영변견직공장은 평양방직공장과 더불어 북한최대 규모급의 견직공장
- 김정일은 영변견직공장에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비단천 생산을 급격히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창건 55돌까지 공장이 점령해야 할 목표와 수행방도를 제시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음.
- 김정일은 경제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복종시켜 풀어왔다고 하면서 입는 문제 해결이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대부문의 하나라고 말하였음.
- 김정일은 비단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 하며, 생산공정의 과학적 체계화·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방도들을 밝혀주었음.
- 김정일은 견직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비단실을 비롯한 원료·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모든 도·시·군 들에서 누에치기를 광범위하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분석 >

○ 이번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은

- 이례적으로 경공업공장인 견직공장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
 - ※ 올해들어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9회째로 지난 해 同期比 비슷한 수준('99년 10회)이며, 경공업부문만의 현지지도는 최초
- 시기적으로 북한이 견직 유관부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 ※ 자강도를 蠶業道로 전변시킨다는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올해 6월중 「강계견방직공장」 완공·조업
 - ※ 북한 잠업개발 사업을 위해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로부터 '96~2001 기간중 1,573만달러의 차관 도입
-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견직물 생산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임.

○ 이번 견직공장 현지지도는

- 북한의 방직생산이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주민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하에서
-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학섬유 공급확대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단기적으로는 당창건기념일(9.9)을 축제 분위기로 고양시키기 위해 견직물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공업 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2. 최근 전력 관련 선전동향

< 개요 >

○ 북한은 지금까지의 전력난 부각 선전 태도를 바꿔 최근에는 전력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1~3월간에는 “긴장한 전력 사정”, “최악의 전력난” 등 전력난을 자인하는 보도가 상당수 있었음.

※ “전력생산부문 노동계급은 올해에 기어이 긴장한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함”(3.17, 중방)

- 5월 이후에는 전력생산 증가에 대한 선전에 주력하고, 전력난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분석 >

< 보도의 특징 >

○ 전력부문 동향 관련 보도 빈도가 5월 들어서 대폭 증가하였음.

< 최근 북한의 전력 관련 보도 현황 >

구 분	3 월	4 월	5.15 현재
횟 수	21회	19회	24회

○ 보도 내용면에서 볼 때

- 연초에는 전력난과 함께 발전설비 정비 보도에 초점을 두었으나 5월부터는 전력증산에 대한 선전에 집중하고 있음.

※ 북한은 「북·미회담」(3.7~15)의 협상 분위기 조성을 겨냥, 전력 사정이 최악이라고 밝히면서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2.3, 2.22, 2.23 중앙통신)

※ 김부자 생일(2.16, 4.15)에 즈음한 경제부문 성과 선전에서도 전력생산 증가보다는 발전소 건설 및 보수 성과 선전에 주력

- 또한 대상별로는 화력발전소보다는 중소형발전소를 포함한 수력발전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각지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5.10, 중방)

※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이 요즘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있으며 그중 많은 발전소들이 4월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5.14, 중방)

< 평 가 >

○ 최근 북한의 전력 사정은

- 예년에 비해 비가 적었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적었다는 점과

· 금년도 1.1~5.14 기간중 북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11.3mm로 예년 수준(147.5mm)에 미달(다만 압록강수계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예년수준 초과)

※ “지난해의 경우 연간 강수량이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산간지대는 평년의 50~60%에 그쳤다”(3.10, 평방)

- “만가동 만부하”로 가동되고 있다는 중소형발전소도 총 발전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북한 전역에 산재한 중소형발전소의 도합 설비용량은 총 발전설비용량(739만kW)의 3~4% 정도에 불과

- 전반적으로 전력생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전력증산 관련 보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 대내적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집단적 「생산문화」 확립, 생산설비 보수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 산업생산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전력생산 증가 선전을 통해

-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에 의한 경제난 탈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33. “극심한 전력난” 강조

< 개요 >

- 북한은 2.22 「중앙통신」을 통하여 이번 겨울 극심한 전력난으로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요지 >

- 올해의 엄혹한 겨울에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력의 긴장성으로 경제 모든 부문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도 어려움.
- 간고한 혁명의 연대기들에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던 준엄한 겨울에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온 전통이 있으며, 이 전통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하여 마련되었음.
- 올해에 해야 할 일은 많고 경제형편도 의연히 어려우나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이 안겨준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음.

< 분석 >

- 최근 북한은 대내외 매체를 통하여 전력난이 극심하다고 연이어 보도해 오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최근 전력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전력증산 및 절전운동을 강조하고 있으며(「노동신문」 '99.12.19 및 12.21)

- 대외적으로는 최근의 전력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오고 있음.

※ 내각 부총리 조창덕은 23 「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난 최악'을 명분으로 미국에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중앙통신」은 이와 같은 입장을 2.23 되풀이하여 보도

○ 이번 보도의 특징은

- 대외 매체인 「중앙통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 올 겨울 전력사정이 “공화국 역사상 처음”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조한 점

※ 전기석탄공업성 생산종합국장 김수남은 최근 극심한 전력난의 원인으로
 ① 정상 가동 공장의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② 강수량 감소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가동 부진을 제시 ('99.12.21, 「노동신문」 대담)

-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선전한 점 등임.

○ 따라서 이번 보도는

- 전력사정 악화와 자체적인 극복 노력을 대외에 강조함으로써 발전 설비, 원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은 그동안 대미협상을 앞두고 경제제재 지속, 경수로 건설 지연 등을 주장하면서 「기본합의문」 파기를 위협('99.7.26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8.24·9.7 노동신문 논평, 10.21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

34. 순천화력, 1만kVA 증기터빈 발전기 준공

< 개요 >

- 순천화력발전소는 7.18 신태록 전기석탄공업상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 설치한 1만kVA 증기터빈 발전기 준공식을 개최하였음(7.19, 중방)
 - 참석자 : 신태록(전기석탄공업상), 이길송(평남 당 책임비서), 안국태(평남 인민위원장) 등
 - 보고자 : 이길송

< 보도요지 >

- 화력발전소 건설자들과 순천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또 1기의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준공식에서는 김정일이 1만크바(kVA)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 공사를 담당한 건설자, 설계원, 노동자 등에게 보낸 감사가 전달 되었음.
- 순천화력발전소는 '동 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에 "우리식"의 새로운 증기터빈을 설치하였음.
- 동 발전기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민용 조명보장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분석 >

○ 최근 북한의 전력부문 동향을 보면

- 발전설비의 노후화,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연료난 심화 등으로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 북한의 지난해 발전량은 186억kWh로 '90년(277억kWh)의 67.1% 수준

- 이에 따라 북한은 전력부문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중소형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유지·보수 등을 중점 추진하여 왔음.

※ 북한은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 편성시 전력부문의 예산 증가율을 전년비 15%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로 증액편성

○ 한편 순천화력발전소(평남 순천시 소재)는

- 순천비날론공장 등 순천일대의 산업용 전력공급과 도시난방을 목적으로
- '84.1 착공된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87.9과 '88.6에 각각 1호 발전기 및 2~4호 발전기가 완공된 시설용량 20만kW급의 발전소로
- 올해들어서는 발전소내의 폐열을 활용한 중소형발전소인 「배합터빈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6.3, 중방)

○ 이번에 준공된 순천화력의 1만kVA 증기터빈 발전기는

- 신규 발전소 건설과는 달리 기존 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발전소 부지, 각종 보조설비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여 단위용량당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利點을 살린 것으로
- 시설용량 8,000~9,000kW급의 交流발전기로 추정됨.

※ 교류 전력설비(발전기, 변압기 등)의 용량단위로는 kVA를 사용하며, 용량중 에너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무효전력」을 제외할 경우에는 kW를 단위로 사용(교류발전기의 경우 무효전력이 통상 10~20%가 되도록 설계)

• 직류의 경우: 전력(kW)=전압(kV)×전류(A)

• 교류의 경우: 전력(kW)=전압(kV)×전류(A)×力率(유효전력의 비율)

35. 안변청년발전소 및 태천발전소 완공

< 개요 >

○ 북한은 10.4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및 태천발전소 건설공사 (송원·태천언제 확장 및 태천 5호발전소 건설)를 완료하고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전달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음(10.8, 중방)

- 「명령」 제00135호: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 건설을 끝낸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줌에 대하여”

- 「명령」 제00136호: “태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줌에 대하여”

※ 안변청년발전소 및 태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최고사령관 명령」을 전달하는 행사를 10.8 각각 개최(10.9, 중방)

· 행사 참석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안변청년발전소), 심원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태천발전소) 등

< 분석 >

○ '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발전소 건설 동향을 보면

- '80년대말까지만 하더라도 태천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 '90년대들어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건설추진이 급속도로 둔화되었으며
- 이에따라 북한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지방 자체적인 전력수급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주안을 두어 왔음.

※ 북한은 '97년 3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98년에는 한해에만 50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

○ 그러나 지난해부터 북한은

- 중소형발전소 건설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태천발전소 현지지도('99.1.18)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전기석탄공업성 국장 김기욱은 '99.3.12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중소형발전소는 일부 지방산업과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이므로 올해는 10여개의 대형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다”고 언급

○ 「안변청년발전소」는

- '86.10 서해쪽으로 흐르는 북한강, 임진강 등을 경사가 급한 동해쪽으로 끌어들이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81만kW의 발전설비용량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착공되었으나
- 그동안 건설계획이 2차례 축소 변경('92.5 81만kW→40만kW, '95.11 40만kW→10만kW)되는 등 그 추진이 부진하였다가
- '96.9 착공 10년만에 동 발전소 1단계공사가 완공·조업(발전능력 10만kW)된데 이어
- 동년 12월 2단계공사가 착공, 3년 10개월만인 2000.10에 완공을 보게 된 것임.

○ 한편 「태천발전소」는

- 자강도 남서부의 위원강과 충만강에 저수지를 조성하여 그 물을 터널을 통해 대령강 상류로 보내어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서
- 총 5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건설하여 도합 80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82년 건설이 추진된 후
- '88.8 1호발전소(15만kW)와 2호발전소(25만kW)가 완공되어 조업중에 있으며
- '99.1 그동안 중단되어왔던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송원 언제·태천2호발전소 언제 증축공사 및 3호·5호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왔음.

○ 이번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 및 태천발전소 건설공사(송원·태천언제 확장 및 태천 5호발전소 건설) 완료는

- 북한이 지난 '98.10 「내각결정」을 채택, 동 발전소들을 당창건 55돌(2000.10.10)까지의 중요 건설대상으로 설정하여 중앙당국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전개해온데 따른 것으로
- 대규모 발전소인 동 발전소들의 완공으로 향후 북한의 전력난이 일정부분 완화됨으로써
- 특히 강원도(안변청년발전소), 평북도(태천발전소) 일대 공장·기업소들의 가동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6. 올해들어 100여개 중소형발전소 건설

< 개요 >

- 전기석탄공업성 중소형발전소지도국 부국장 길홍진은 10.5 중앙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올해들어 지금까지 북한 전역에서 100여개 이상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회견요지 >

-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음.
-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는 함경남도가 모범을 보였음.
- 함경남도는 올해에 성천강 32호발전소를 비롯해서 발전 능력이 큰 10개의 발전소를 건설하였음.
- 올해들어 자강도는 30개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평안북도는 18개를 건설하였음.
- 특히 대홍단군과 허천군, 영광군을 비롯한 여러개 군들은 국가로부터 전기를 받지 않고도 전기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있음.

< 분석 >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은

- '79년 당 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으나
- 낮은 발전 효율, 빈번한 설비 고장 등으로 '90년대 들어 정책적 관심이 약화되었다가
- 최근 전력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지방전력의 자체 수급을 목적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음.

※ 북한은 '97년 이후 매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역점 추진을 강조

○ 최근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을 보면

- '98년까지는 지방단위의 실적경쟁에 따라 건설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 극소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홍수, 가뭄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보다 전기를 1년내내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99.1.18, 노동신문)

- 지난해부터는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형발전소 건설, 강·하천의 종합적 활용 등 질적 수준 제고에 주력하여 오고 있음.(개당 평균 발전능력 '98년 7kW→ '99년 80kW)

※ '99년 이후 북한은 대동강에 발전소 건설 적지 300여 곳을 확정하고 수성천(함북), 성천강(함남), 비류강(평남) 등에 각각 수십개의 중소형 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건설

○ 올해들어 북한은

- 신규로 32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 북한은 5.10 민주조선을 통해 "올해들어 3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320여개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보도

- 연말을 3개월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1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완공하였다는 이번 보도로 볼 때
- 금년들어 현재까지의 중소형발전소 착공 대비 완공 실적은 31%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이처럼 금년도 중소형발전소 건설 실적이 부진한 것은

- 중소형발전소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래보다 규모가 큰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주안을 두었다는 점과

※ 올해 평안남도(24개 1만kW, 6.10 평방) 및 황해남도(10여개 수천kW, 6.8 중방)가 건설하는 중소형발전소의 개당 평균 발전능력은 400kW 정도로 과거보다 확대

- 올해들어 당창건 55돌을 기념하기 위하여 평양-남포 고속도로, 태천 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등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37. 과학기술발전 촉구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발표

< 개요 >

- 북한은 7. 4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제하의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을 발표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중시사상”을 강조하였음.

< 논설요지 >

- 우리 당은 과학기술을 가장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으로 내세우고 있음. 당조직·국가기관·경제기관도 과학을 최우선시하고 과학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함.
- 과학중시사상은 기성관례나 기존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과학기술 발전에서 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거기에서 먹는 문제도 풀고 경제강국도 건설해야 함.
- 현시대에서 과학기술은 민족의 흥망성쇠의 분수령으로 됨.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후진국의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됨.
- 사회주의건설에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음
-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 식의 과학연구사업임.
-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과학연구사업을 지향 시켜나가야 함.

< 분석 >

○ 이번 「공동논설」의 특징은

- 시기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협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점
- 형식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요 경제정책 노선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 내용면에서는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절박성을 역설하고 △실사구시적 과학기술의 연구를 촉구하였으며 △선진 과학기술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임.

○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을 촉구하는 이번 「공동논설」은

- 북한이 '90년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계획」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 군사과학 등 특정부문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발전계획에서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 산업부문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기술의 개발은 물론
-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자금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 연초부터 추진해온 「인민경제」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상」,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음.

38.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최 예정

< 개요 >

- 북한은 1.20 중앙TV를 통해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2.1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음.
- 동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우수 기술을 보급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도요지 >

-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 지방과학기술축전(2.1~25)과 중앙과학기술축전(4월 하순~5월 초)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 지방과학기술축전은 다시 기관·기업소 축전, 시·구역·군 축전, 도·직할시 축전 순으로 진행됨.
- 축전의 참가부문은 공업,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며
 - 참여대상은 지난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중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 사무원, 노동자, 농민, 군인, 사회안전원, 학생 등 희망자임.
- 이번 축전은 '기술혁신성과 발표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 기술혁신성과는 생산부문 종사자가, 과학연구성과는 전문과학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종사자가 각각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분석 >

○ 「전국과학기술축전」은

- '85.8월 김정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계기로, '86.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 전년도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연례적 행사로서
-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부터 2월까지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이어 도·시·군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고
- 여기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학자·기술자들은 4~5월경 평양에서 개최하는 「중앙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하여 왔음.

○ 이번 제15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취약부문인 전자·열·생물·화학·기계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 이광호 과학원장은 금년도 공동사설 반향(중통, 13)을 통해 “전자·열·생물·화학·기계공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첨단수준을 돌파하겠다”고 주장

- 우수 기술혁신안을 주민들에게 보급·확산시키고, 기술개발·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발효

< 개요 >

- 미국은 6.19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99.9.17 미 클린턴대통령이 발표하였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공식 발효시켰음.

※ 북·미 베를린 회담('99.9.7~12)과 페리보고서 발표('99.9.15)에 따른 미국의 대북 이행조치의 일환

<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내용 >

【「적성국교역법」에 의거한 「외국자산통제규정」 개정】

- 재미교포를 포함한 미국민의 대북 송금 및 개인·상업적 금융·자산거래가 가능

【「수출관리법」에 의거한 「수출관리규정」 개정】

- 미국산 소비재와 용역 수출, 북한산 원자재·물자 수입, 농업·광업분야의 투자 허용

※ 개정된 「수출관리규정」은 아직은 잠정규정 형태로 7.19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할 예정

【「防産物資法」에 의거한 「T-2(44CFR part 403)규정」 폐지】

- 美 선박·항공기의 대북 물자수송과 미 전세기의 대북운항 가능

< **완화대상에서 제외된 사항** >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 군사품목 및 이중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 금지
- 대외원조법·농업무역 및 개발법·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원조 금지
-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공여 금지, 재무장관 승인 없는 미국인과 북한정부간 금융거래 금지 등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비확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

- 군사품목 및 이중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 수출금지
- 대외원조법·농업무역 및 개발법·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원조 금지 등

【기타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

- 동결된 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 등

< 분석 >

○ 이번 제재완화 조치의 특징은

-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 상징적 수준에 그쳤던 제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와는 달리 금융·투자·무역부문의 규제를 상당부분 해제한 실질적 조치라는 점
- 무기·테러와 관련한 사항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등임.

※ 제1차 제재완화(95.1.20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거) 내용

- 북한동결자산 일부해제(동결자산 중 제3국 소유자산에 대한 해제)
- 미국 은행시스템 이용 허가
-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 북·미 직통전화 개설 허용
- 미국인의 북한여행 자유화 및 개인경비 지출 위한 신용카드 사용 허용
-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허용

○ 따라서 이번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맞물리면서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 내지는 포괄적 정치·경제관계 개선의 기반을 조성하고
- 북·미간 접촉과 교류를 확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 북한은 이번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개선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외자유치는 물론 남북한 경협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북한의 취약한 경제구조 및 대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미확보로 인해 당장 북·미간 직접교역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북-러 「제3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 개요 >

○ 북한은 러시아와 10.17~20간 평양에서 「제3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 북측대표 : 무역상 강정모(단장), 철도성 참모장 김광수, 농업성 부상 이원중, 무역성 부상 김봉익, 재정성 부상 장성일, 과학원 부원장 한상표, 무역은행 부총재 정동현 등
- 러측대표 : 교육부장관 V. 필리포프(단장) 등 23명

※ 북한측은 10.18 옥류관에서 러연방대표단 환영연 개최

< 분석 >

○ 「북-러 경제공동위」는

- '67.10 북한-구소련간 창설되어, '90년 제24차 회의까지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구소련 붕괴후 일시 중단되었으나
- '92. 9 북-러간 동 경제공동위원회의를 재개기로 합의하여
- 제1차회의('96.4, 평양) 및 제2차회의('97.10, 모스크바)를 각각 개최하고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음.

○ 이번 제3차 「북-러 경제공동위」의 특징은

- 연례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회의 ('98.10) 이후 만 3년만에 속개된다는 점
- 양측에서 무역, 금융, 과학기술, 노동, 운수 등 다양한 경제부문 실무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 점
- 시기적으로 푸친 러시아대통령의 방북(7.19~20)을 계기로 쌍방간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 등임.

※ 로슈코프 러외무차관은 “지난 7월 북·러 정상회담의 상봉을 계기로 양자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발언(10.12 북·러수교 52주년 기념연회 연설)

○ 따라서 이번 제3차 「북-러 경제공동위」 개최는

- 최근들어 형성되고있는 양자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 구체적으로는 부채(약 38억루블)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남북한·러시아간 3자 경협 문제 등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경제현안 문제 타개를 위한 것으로서
- 앞으로 양측 중앙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간 경협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무역관련 김일성 논문 발표 35주년 기념보고회

< 개요 >

○ 북한은 1.28 김일성의 논문 '무역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여 대외 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 발표 35주년 기념보고회를 개최

- 참석자 : 당중앙위 비서 한성룡, 부총리 곽범기,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무역상 강정모,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철도상 김용삼, 육해운상 김영일 등

- 보고자 : 무역상 강정모

※ 동 논문은 제1차 7개년계획('61-'70) 추진에 필요한 외화 확보를 위해 '65. 1. 28 무역성 당총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로 무역부문 관계자들의 당성(黨性) 단련 및 대외무역 개선 문제에 관한 과업을 제시

< 보도요지 >

○ 동 논문은 당시 북한의 무역 추진 방향과 함께 대외무역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

- 특히 북한의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무역관계자들이 지녀야 할 정치·사상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역사업 개선책들을 제시

○ 김정일의 지도와 당의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이 대외무역사업부문에서 쌓은 실적을 옹호 고수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무역관계자들에게 촉구

< 분석 >

○ 북한은 '80. 10월 제6차 당대회시 대외무역의 다각화, 수출품의 우선 생산 및 품질향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대외무역에 비중을 두기 시작

- '90년대초 구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급격한 대외무역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히 '94년 이래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고 대외무역확대를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은

-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난의 심화와 중앙통제기능의 이완 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대외무역에 대한 소극적·보조적 인식이 여전하고

※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

- 대외무역부문 종사자들의 대외무역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일탈 행위' 등으로
-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99년 대외무역규모도 전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추정

<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

(단위 : 억달러)

1990	1991	1995	1996	1997	1998
47.2	27.2	20.5	19.7	21.8	14.4

○ 이번 기념보고회의 특징은

- 북한이 최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 시기적으로는 「무역절」(1.28)을 맞아 대외무역부문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례없이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

※ '97년에 1.28을 「무역절」로 제정한 이후 '98년·'99년에는 대외무역 책임자의 방송대담만으로 논평

○ 따라서 이번 기념보고회는

- 그동안 위축되어온 대외무역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절박해진 상황에서

- 이완되어 있는 무역부문 관계자들의 정치·사상적 결집을 통해

- 관료주의, 자본주의화, 수정주의화 등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침체된 대외무역의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 개최된 무역부문 「결의 모임」으로 평가됨.

※ 김일성 논문 '무역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여 대외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에서 제기된 개선책

- 무역이 나라의 대외관계발전에서 첫 공정이라고 규정
- 무역성 간부들의 관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
- 무역성 일군들의 자본주의화, 수정주의화를 경계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과 주체성을 견지
- 대외무역에서 신용 준수
- 수출품의 품종 개발과 품질의 향상
- 대외시장 개척 등

4. 김정일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 개요 >

○ 북한은 김정일위원장이 9.30 당·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였다고 보도하였음(중방, 10.1)

- 김용순, 박송봉, 송호경, 현철해, 박재경 등 수행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안내

< 보도요지 >

○ 김정일위원장은

- 고성항 부두, 호텔, 관광센터 등 현대아산 건설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그동안의 금강산 개발 성과를 치하하면서

- 현대아산이 남북경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하였음.

< 분석 >

○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은

- '98. 9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3개사('99. 2 '현대아산'이 추가되어 4개사)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약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98.11. 부터 금강산 관광선이 운항됨으로써 동 관광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 최근들어 현대아산이 북측과 관광사업의 확대, 개성공단 개발, 북측 기반시설 사업 추진문제 논의 등 협력사업 대상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 또는 추진중인 사업 내용

- 금강산 관광선의 항로 단축(과거 연안 12마일 →현재 연안 5마일)
- 외국인에 대해 제한없는 관광 허용
- 관광코스 확대
- 골프장 ·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건설 · 임대
- 개성공단 · 금강산지구의 특별경제지구 설정

○ 이번 김정일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은

- 이례적으로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시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특징임.

○ 따라서 김정일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 특히 김정일위원장이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될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 앞으로 북한당국이 관광 · 경공업 · SOC 부문을 중심으로 남한기업들과의 경협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5. 11월 상반기중 대외경제협력 강화 동향

< 개요 >

- 북한은 11월 상반기 들어 러시아, 쿠바 등과 경제·과학부문 의정서를 잇따라 체결하는 한편, 호주,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활기를 보이고 있음.(북한방송 종합)

<11월 상반기중 대외 경제활동 내역>

상 대 국	내 용	시 기
러 시 아	○ 북·러 운수상설분과 제4차의정서 조인	11. 2
	○ 규격·계량·품질부문 협조협정의정서 조인	11. 8
쿠 바	○ 북·쿠바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제20차의정서 조인	11. 8
호 주	○ 북·호주 농업공동연구개발계획 양해각서 체결	11. 14
이탈리아	○ 이탈리아 산업-무역장관 방북 ※ 홍성남총리와 담화	11.14~15

< 분석 >

○ 북한-러시아는

- '92. 9 구소련 붕괴후 일시 중단되었던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재개하여 양자간 손상된 경제관계를 복원키로 합의하고

- 제1차회의('96.4, 평양), 제2차회의('97.10, 모스크바), 제3차회의('00.10, 평양)를 각각 개최하여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 양자간 경제공동위 합의사항들의 추진을 위해 운수분과회의를 비롯해서 8개 상설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북·쿠바관계는

- '60. 8 수교한 이래 카스트로 수상 방북('86.3),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쿠바 방문('96.6)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 경제적으로는 '69. 8 양자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매년 양측 무역상의 교환방문을 통해 「경제-무역협력 협정」을 체결해 왔음.

※ 양측은 이번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0차 회의(11.8)에서 2001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고 쌍방간 교역규모 등을 확정

○ 북·호주는

- 지난 '75년 국교를 단절한 바 있으나
- 올해 5월 외교관계를 복원한 이래 꾸준히 관계발전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 11.14 호주 외무장관이 단교후 처음으로 방북하여 북-호주간 농업 공동연구 개발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대북 식량지원 방안도 협의하였음.

○ 북·이탈리아는

- 지난 1월 유럽연합(EU) 가입국가로는 최초로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양자간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가
- 7.27 백남순 외무상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투자보장협정, 문화 협력협정,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들어 양자간 경협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 왔음.

○ 11월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강화 동향의 특징을 보면

- 전통적으로 경제적·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는 물론
-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임.

○ 이와 같이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 남북정상회담(6.15) 이후 남북 화해분위기를 바탕으로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노동신문, 10.22)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경제적 실리 추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평가됨.

6. 제2차 UNDP 회의에서 농업지원 호소

< 개요 >

- 북한 외무성 부상 최수현은 지난 6.20~2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AREP)에 관한 제2차 UNDP회의에서 농업지원을 호소하였음.

< 발언요지 >

가. 제1차 AREP('98~'99) 추진결과 설명회의

- 제1차 국제사회의 지원(7,500만달러)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 '97년 대비 150만톤 식량 증산 달성
- 김정일 지휘하에 농업복구와 환경보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식 분조도급제', '창의성 강조', '계획초과분 자체처리' 등 전반적 농업체계 개선 추진중에 있음.
- 식량사정 아직도 매우 어려우며 제2의 식량위기 가능성이 있음.
 - 제2차 AREP 계획에 의한 지원(2.5억달러)촉구
- AREP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협조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나. 제2차 AREP 추진계획(2000~2002) 설명회의

- 연간 곡물수요량은 450만톤으로 예상됨.
 - 비료 및 농약 조달비용으로 4.4억달러(3년간) 소요
- 국제사회 지원 요청액은 2.5억달러임(식량지원 별도)
 - 비료·농약 등 농업지원 투입사업 : 1.6억달러
 - 농촌 재건사업 : 3,900만달러
 - 산림 및 환경사업 : 3,300만달러
 - AREP 지원 및 능력개발 사업 : 1,800만달러

< 분석 >

가. 발언 특징

- 동정을 유발시킬 정도로 '호소적'이었다는 점임
 - "북한이 과거에는 남을 도와주기만 했지 지원을 받은 적은 없음"
 - "북한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덕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움을 주면 필히 보상하겠음"
- 북한의 현실을 과장하지 않는 '진실성' 을 보여줬다는 점임
 -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아직 국제지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북한이 나름대로 주체적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습과 문화, 공공질서 등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북한의 식량사정은 아직도 매우 어려우며 제2의 식량위기 가능성도 있음”
- 지원 공여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지원을 설득했다는 점임.
- “제1차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 “김정일 지휘하에 농업복구와 환경보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식 분조도급제’, ‘창의성 강조’, ‘계획초과분 자체처리’ 등 전반적 농업체계 개선 추진중에 있음”
- 한반도의 불안정한 현실을 적절히 부각시켜 활용했다는 점임
- “남북이 분단돼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 주기 바람”
 - “AREP를 통한 국제지원은 한반도 정세안정과 상호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 협상에 역기능 요인을 배제하는 실리추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임.
-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간 직접지원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지원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공식석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함구

- 비공식석상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있는대로 남과 북이 합심단결해 나간다면 잘되지 않겠느냐”,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우선 8월에 있을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선결과제가 아니냐” 등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나. 평 가

○ 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 과거의 협상행태로는 더이상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 이제는 ‘도움 요청자의 자세’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회의 개요

○ 참가국 및 단체

- 46개 : EU집행위(23개), 국제기구(11개), NGO(12개)

○ 남북한 대표단 구성

- 우리측(5명) : 이재길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외 외교부·통일부·농림부 실무직원 4명
- 북측(6명) : 최수현 외무성 부상 외 외무성 및 큰물피해대책위 실무급 5명

○ 회의 요지

- 제1차 AREP('98~'99) 추진결과
- 제2차 AREP(2000~2002) 계획 설명(1,2)
 - * 목표 및 전략, 성공조건(1) * 재원동원 및 지원, 후속조치(2)

7.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 개요 >

- 북한은 5.8~9일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 업체들이 참가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였음(중방 5.9, 이타르타스 5.10)
 - 참가국 : 북한, 중국, 쿠바, 러시아, 방글라데시, 타이, 호주, 영국, 일본, 대만
 - 전시품 :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 의약, 식료제품 등
 - ※ 개막식(5.8) 참석자 : 김용문(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최윤식(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 분석 >

- 이번 전람회는
 - 조선국제전람사가 주관하고 무역성 및 조선국제여행사가 후원하여 5.8~9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로서
 - ※ 북한은 당초 동 행사를 3일간(5.8~10) 개최하기로 계획
 - 능라도무역회사, 대성무역회사 등 14개 북한 업체, 8개의 외국업체 등 총 22개사가 참가하였으며
 - ※ 이타르타스(5.10)는 이번 행사에 중국과 대만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러시아는 SIMEX사(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와 벨고로드시 소재 공작기계공장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고 보도
 - 북한은 동 행사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세계 각지에서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접수 마감 일시: 4.30)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번 전람회의 특징은

- 북한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 성격의 상품 전시회라는 점

※ 북한은 지난해에도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99 평양 국제전람회」(99.5.20~26)를 추진한 바 있으나 외국 업체들의 참가 신청 저조로 무산

- 참가국의 대부분이 대북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이라는 점 등임.

※ 동 행사 참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북한의 지난해 10대 무역상대국

○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동 행사를 개최한 것은

- 산업 생산 감소, 외화 부족 심화 등으로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 대외무역 활성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대외에 부각시키는 동시에

- 북한 업체들이 선진국의 기계·전자제품 등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그러나 동 행사의 성과면에서 볼 때

- 외국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였는데다 북한경제가 각 생산단위의 자율적인 신기술 도입·활용이 어려운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행사에 대한 외국 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신보」(5.12)는 “11개 국가와 지역의 회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

8.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의사 재표명

< 개요 >

- 북한 무역성 부상 김용문은 8.21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북한의 ADB 가입의사를 재표명하는 한편, 동 기구 사절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하였음.

< 분석 >

-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금융 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 '94년 이래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 가입 관련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타진해왔으며

- '97년 4월에는 ADB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한층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 당시 주요 ADB 회원국들이 북한 가입 관련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보류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 ADB 가입시 ADF(아시아개발기금)가 저소득 가입국에 공여하는 금융 지원(연리 1%, 40년 상환 조건) 수혜 가능

○ 이번 북한의 ADB 가입 재시도는

- 북한이 미·일·유럽 등 서방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과
-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은 올해 ADB 총회(2000. 5, 태국)에서 북한의 ADB 가입 지지 발언

○ 북한의 ADB 가입은

- 조기 가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동 기구로부터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기까지는 개발자금 집행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기간(5~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ADB 최대 지분국인 미국·일본(각각 13.1% 보유) 등이 북한의 가입문제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포함, 미사일 개발 및 일본인 납치 의혹 등 정치적 현안과 연계시키고 있어
- 상기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가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2개 이사국의 합의를 거쳐 총회에서 총지분률 3/4의 참석과 참석 지분률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

※ 미국의 국제금융기관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차관공여에 반대하도록 규정

〈 부 록 2 〉

2000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토)

-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함경남도 성천강 32호 및 동대천 4호·8호발전소 조업식 각각 진행

■ 1.4(화)

- 노동신문 사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보도
- 신년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인민무력성,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인궐기모임 진행
- 북한정부, 이탈리아정부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공동 보도 발표

■ 1.5(수)

- 철도성,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 평안남도·함경남도·개성시 등,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 각각 진행
- 평북 제1수력발전소 건설사업소,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 자강도 자성군 소재 종합휴양관 '은덕원' 건설

■ 1.6(목)

- 황해남도·황해북도·강원도·함정북도·함정남도 등,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 각각 진행
- 사회안전성 군무자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

■ 1.7(금)

- 전국 청년전위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 1. 8(토)

- 직맹 일군들과 직맹원들, 신년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진행(1.7)
- 청년전위들, 신년 공동사설 관철 충성의 쫓기모임 진행(1.7)
- 함경북도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단체 일군들 및 근로자들,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군중대회 진행

■ 1. 9(일)

- 황해북도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단체 일군 및 근로자들, 신년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
- 남포시 및 황해제철소·평양철도국·검덕광산 종업원들, 신년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및 쫓기모임 각각 진행

■ 1.10(월)

- 평안북도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단체 일군들과 근로자들,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군중대회 진행
-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2.8직동청년탄광 종업원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을 각각 개최
- 농근맹 일군들과 농근맹원들·여맹 일군들과 여맹원들·평원군 원화협농농장원들·회천제사공장 종업원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을 각각 개최
- 함경남도 소재 성천강 1호·4호·17호발전소 등 15개 중소형발전소 조업식 진행
- 평양방직기료품공장, 금속 열처리시 산화막 방지를 위한 '무산화열처리 기술' 개발

■ 1.11(화)

- 양강도 및 자강도,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단체 일군들과 근로자들,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군중대회 진행

-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화전담회 개막식 진행
- 용성기계공업관리국 ·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 평양방직공장 · 김일성종합대학 · 대홍단군종합농장 · 문화성 · 락원기계공장 · 청진철도국 · 성강군 삼정협동농장 등,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을 각각 진행
- 평남 농촌정리위 제3·4·5·6사업소 등,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본격 추진
- 제1수력발전소 건설사업소 노동계급과 평북 돌격대원들, 태천2호발전소 능력확장을 위한 언제공사 본격 추진
- 큰물피해대책위 대변인, 우리 당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대북협조 사업을 파탄시키려 모략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진행

■ 1.13(목)

- 천성청년탄광 종업원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

■ 1.14(금)

- 무산광산 광부들, 올해 첫 전투에서 10만산(※10만㎡)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
- 청진화장품공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모임 진행

■ 1. 15(토)

- 함경남도 함주영예군인일용품공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1.14)
- 함경남도 성천강 32호발전소 조업식 진행
- 「전국청년과학기술축전」('99.12.24 개막) 및 경험 발표회 진행

■ 1. 16(일)

- 순천비날론공장 종업원들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

■ 1. 17(월)

- 김정일의 평북 태천발전소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 1. 18(화)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각 도 청년돌격대원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남포시내 각 협동농장들에 1,000여톤의 거름을 지원

■ 1. 19(수)

- 「전국청년과학기술경험발표회」 개최
- 철도수송에 기여한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
- 각지 공장·기업소의 기술자 및 노동자들,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 개시 20돌에 즈음하여 높은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
- 평방 논평, '민간급 경제협력에마져 찬 물을 끼얹는 비열한 책동'
 - 우리 당국이 대북사업을 하는 민간기업과 그 대상들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주장

■ 1. 22(토)

- 100항차 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무역집배 '대각봉호' 선원들에 당중앙위의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개최(1.21)
- 수산성·건설건재공업성·문화성·함정남도안전국 등 객화차수리와 철도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각각 개최
- 각 도 돌격대원들, 평안북도 토지정리 전투장에서 제2단계 토지정리 준비사업 진행
- 「직총」중앙위 일꾼들, 2.8직동·천성·서창청년탄광 등에서 탄부들을 지원
- 미·북베를린회담 개막(1.22-28)

■ 1. 24(월)

- 김정일,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 정론, '당 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보도

■ 1. 25(화)

- '전국농업부문일꾼회의'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1. 26(수)

- '전국농업부문일꾼회의'(1.26-27),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인민문화궁전 보수공사에 모범을 보인 여러 단위 일꾼들과 서부공공 건물건설사업소·승강기설치사업소 등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각각 개최

■ 1. 27(목)

-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총화회의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김정일, 평양-원산 사이 도로의 무지개동굴 보수공사에 참가한 조선인 민경비대 군인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달(1.27)
- 주북 중국대사관, 안주석탄공업관리국 태양탄광에 지원물자 기증

■ 1. 28(금)

- 전국 농업근로자 예술축전 개막식, 청년중앙회관에서 개최
- 조선중앙통신, 대통령이 CNN 회견에서 언급한 「당근과 채찍전략」을 북한 붕괴론이 깔려 있는 반복대결 전략이라고 주장

■ 1. 29(토)

- 김일성의 고전적 노작 '무역일꾼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대외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 발표 35돌 기념 보고회 개최(1.28)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제8~12권) 등 근 60종의 과학 기술 도서를 출판했다고 보도

- 김정일, 공산주의 미풍을 높이 발양한 국토환경보호성 · 안주절연물공장 · 안주수출피복공장 · 대흥은정목재가구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 평양 제1백화점 노동자 오화련에게 감사 전달

■ 1. 30(일)

- 김정일, 평안북도내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1.25~28)
- 지난해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시 · 군 · 구역들에 김정일의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개최
- 외무성 대변인, 미 · 북베를린회담 종료 관련 KCNA 기자회견 진행

■ 2. 1(화)

- 세계평화연합 공동의장 박보희와 그 일행, 평화자동차 착공식 참석차 평양 도착

■ 2. 3(목)

- 내각 부총리 조창덕, 전기사정 악화 책임전가 및 對美 제네바합의 파기 위협 관련 KCNA 기자회견 진행
- 평북 소재 락원기계공장 종업원들, 김정일의 현지교시(2000.1.27)에 따라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높여 당 창건 55돌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결의모임 개최

■ 2. 4(금)

- 남포시 소재 강서편직공장 및 강서도자기공장, 김일성의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각각 개최

■ 2. 5(토)

- 남포시 강서구역 소재 청산협동농장, 김일성 현지교시 · 김정일 및 김정숙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2. 6(일)

- 노동신문 사설, '락원의 호소따라 새로운 대고조예로' 보도

■ 2. 7(월)

- 농업근로자들, 김정일의 58돌 생일 경축 덕성 실화무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진행(인민문화궁전)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99년판 발간

■ 2. 8(화)

- 김일성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평양화력발전소·2.8직동청년탄광·황해제철소·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안변군 풍화협동농장 등 각지의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락원의 호소 따라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한 쫓기모임을 각각 개최
- 무역대표단(단장: 무역상 강정모), 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0차 대회 참가차 평양 출발

■ 2. 9(수)

- 「농근맹」, 김정일의 58돌 생일 기념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외무상 백남순, 러시아 외무상 '이고리 이바노프'와 회담을 통해 「조·러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조인 및 동 일행을 위한 만찬 개최(만수대의사당)

■ 2. 10(목)

- 김정일의 58돌 생일 경축 직업동맹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중앙로동자회관)
- 유엔개발계획에서 보내온 농업부문의 자연재해 복구에 필요한 설비 기증식 진행(평양)
- 러시아 외무상 '이바노프' 일행, 평양 출발

■ 2.12(토)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 관하 여성해안포중대 및 새롭게 개건된 무지개동굴 시찰
- 김정일의 58돌 생일 경축 직맹원들의 모임 개최(중앙로동자회관)
- 천리마제강소·김책제철소·용성기계공업관리국·평양신발공장·태천군 운흥협동농장 등, 낙원의 호소따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을 높이기 위한 쉼기모임 각각 개최
- 중국정부로부터 식량 15만톤 및 콕스탄 40만톤이 전량 무상으로 납입(2.2)되었다고 보도

■ 2. 13(일)

- 함북 소재 김책제철소 발전소 조업

■ 2. 14(월)

- 황북 소재 황해제철소 발전소 조업
- 평북 소재 태천군 대령강 2호발전소 조업
- 평북 구장군 소재 구장도자기공장 조업
- 무역상 강정모,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0차대회에서 연설

■ 2. 15(화)

- 김정일의 58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평북 소재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및 동림군 창성협동농장, 김정일의 혁명 사적표식비 건립 제막식 각각 진행
- 체신성, '2월의 명절' 즈음 기념우표와 봉투를 새롭게 발행
- 성강군 고기 및 납새가공공장 등 6개 단위에 이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 평양신발공장 사출직장 외 67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조총련, 김정일의 58돌 생일 경축 재일본조선일중앙대회 개최(도쿄, 조선문화회관)

■ 2. 16(수)

- 노동신문 사설, '혁명적 신념과 낙관을 가지고 승리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자' 보도
- 홍콩주재 북한 총영사관 개설

■ 2. 17(목)

- 호주 외무장관 '알렉산더 다우너', 미화 약390만달러 상당의 원조금을 북한에 제공할 것임을 언명하는 성명서 발표

■ 2. 19(토)

- 김일성의 금성뜨락또르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

■ 2. 20(일)

- 남포시 근로자들, 태성호-남포 물길공사를 다그쳐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쫓기모임 개최

■ 2. 21(월)

- 당창건 55돌에 즈음한 '제11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조직요강 발표
- '제4차 김정일화전시회' 폐막식 진행(평양국제문화회관)
- 정춘실운동을 힘있게 벌여 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시 상업관리소 등 10곳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
- 정부무역대표단(단장: 무역상 강정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과 담화
- 무역상 강정모, 인도네시아공화국과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자카르타)

■ 2. 22(화)

-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중앙통신)

- 호주대표단(단장: 외무 및 무역성 제1 보조비서 '폴린 헤셀린), 평양 도착
- KEDO 고위급 전문가협상단, 평양 도착

■ 2. 23(수)

-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한 용성구역 상업관리소 종업원 등 6곳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 극심한 전력난의 원인을 미국이 제네바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2. 24(목)

- 당 중앙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99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수풍발전소·서해해운사업소 등 84개 공장·기업소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키로 결정
- 함북 소재 수성천 중소형발전소 2단계 건설 착공
- 대안중기계공업관리국·압록강다이아공장·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등 각지의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락원의 호소' 따라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한 궤기모임 각각 개최
-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지리정보연구실, 새로운 지리정보체계인 '컴퓨터 S/W '삼천리' 개발

■ 2. 25(금)

- 함남 소재 광명성제염소 건설에 공로있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 인민군대를 원호한 「청년동맹」 중앙위 학생소년부와 평양시 사동구역 학생소년부 등에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각각의 해당단위들에서 진행
- 正論, '락원의 봉화따라 앞으로' 보도(중방)
- 평양방직공장, 김정일이 동공장에 보낸 문화기재를 전달하는 모임 개최

■ 2. 26(토)

- 북창화력발전소 · 청진수산사업소 · 구월방직공장 · 청단군 화산협동농장 등 각지 공장 · 기업소 · 협동농장,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한 궤기모임을 각각 개최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고위급전문가 협상대표단, 평양 출발

■ 2. 27(일)

- 과학원 열공학연구소 과학자들, 평야지대에서 효과적인 벗겨가스에 의한 전기생산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보도(중방)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전국어민총연합회」와의 회의(2.20-26, 중국 베이징)를 통해 '남조선 어민들에게 조선동해 경제수역의 일부를 제공해 주는 문제'를 합의한 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평방)

■ 2. 28(월)

- 유고슬라비아 외무상의 북한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 2. 29(화)

- 조총련 경제합영대표단(단장 : 부의장 남승우),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11차 이사회 회의 참가차 평양 도착
- 정부무역대표단(단장 : 무역상 강정모),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0차대회(태국) 참가후 평양 도착

■ 3. 1(수)

- 전국건축건설부문 과학토론회 개최(인민대학습당)
- 생활문화 · 생산문화 확립에서 모범을 보인 만포시 샘물동 및 장강군 읍 등 31개 단위들에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각각 진행
- 100항차 수송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화물선 '비류강호'에 대한 당 중앙위의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개최

■ 3. 2(목)

- 植樹節 관련 노동신문 사설,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온 나라를 원림화 하자' 보도
- 전국 각지의 「직맹원」 및 「농근맹원」·「여맹원」등, 식수절에 즈음하여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펼쳐 나가기 위한 궤기모임을 각각 개최
- 북한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김계관), 북·미회담 참가차 평양 출발
- 재정성 부상 김완수, 이집트정부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체결

■ 3. 3(금)

-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승리자동차공장·대흥단군 종합농장 등에 파견된 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3. 4(토)

- 1월 석탄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2.8직동청년탄광·천성청년탄광 등 9개 탄광에 김정일이 보내는 감사 전달

■ 3. 5(일)

- 김정일,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
- 김정일의 과학원 함흥분원 현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 홍성남, 조총련 경제합영대표단(단장: 부의장 남승우)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3. 6(월)

- 김일성의 노작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더 잘 할 데 대하여' 발표 40돌 기념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평안남도 각계층 근로자들, 봄철나무심기 및 궤기모임 개최
- 평양상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11차 이사회 회의 개최(3.2-6, 평양)

■ 3. 7(화)

- 김일성의 황해북도소재 홀동광산 현지도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안주·염주·운전·재령·함주시 등 시·군 농기계작업소 창설 50돌 기념보고회 각각 개최
- 선동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용양광산 금산갱 선동원 송순행 등 14명에게 김정일이 보내는 감사 전달

■ 3. 8(수)

- 김일성의 황북소재 만년광산 현지도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성동규가 사업하는 기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부간 본회담(4월 상순, 1차: 평양·2차: 도쿄·3차: 베이징 또는 기타장소) 및 북·일간 적십자회담(3.13경, 베이징)개최 예정 보도(중방)

■ 3. 9(목)

- '4.15기술혁신들려대운동' 개시 20돌 중앙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북한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김계관),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첫 공식회담(뉴욕)

■ 3. 10(금)

- 절연재료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대안절연재료연구소 과학자·기술자·종업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전달 모임 개최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무역화물수송합의회의에 참가할 중국·베트남·러시아·몽골대표단 등 평양 도착

■ 3. 12(일)

- 겨울철 물고기잡이에서 모범을 보인 낙원수출품수산사업소·원성수출품수산사업소 등 6곳에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일본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중·평방)

■ 3. 13(월)

- 평남 안주시 농기계작업소 창설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조선적십자회대표단(단장: 부위원장 허해룡), 일본적십자사대표단(단장: 부사장 '고노에 타다테루')과 회담(페이징)

■ 3. 14(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政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를 평양에서 소집(4.4)할 것임을 공시(*대의원 등록: 4.1-2, 만수대의사당)

■ 3. 15(수)

- 염주군 농기계작업소 창설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3. 16(목)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무역화물 수송 합의회의 진행(3.11-16, 평양)
- 북·미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 종료(뉴욕)

■ 3. 18(토)

- 당 중앙위, 200항차 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무역집배 '백마강호' 선원들에게 감사 전달
- 백남순 외무상 일행, 중국·라오스·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중국 도착, 조·중 외무상 사이의 회담 개최, 중국 외교부장 주최 연회 참석

■ 3. 20(월)

- 김정일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25돌 기념보고회 개최

■ 3. 22(수)

- 대외봉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대동강외교단회관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문 전달모임 개최
- 통나무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희천갱목생산사업소·동신갱목생산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개최

■ 3. 25(토)

- 「농근맹」중앙위 제37차 전원회의 개최(3.23-24)
- 김정일의 단천마그네슘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 3. 27(월)

- 김정일, 양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대흥단군 1호발전소, 신흥분장, 제대군인마을 등) 현지지도 보도(중방)
- 「여맹」중앙위 제32차 전원회의 개최
- 금속기계공업성 일꾼들, 김일성의 현지지도 35돌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임 개최

■ 3. 29(수)

- 김정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 현지지도 보도(중방)
- 김책시 상평축산전문농장, 김일성의 현지지도 표식비 제막식 개최
- 노동신문 논평,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 이행은 명백히 계산될 것이다’ 보도
 - 미국에 대해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
- 이탈리아 정부와 ‘문화·예술 및 과학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공동성명’ 조인 및 ‘북한방문에 따른 공동보도’ 발표

■ 3. 30(목)

- 「전국 과수부문 일군회의」 개최(평양)

■ 4. 1(토)

- 남포시 소재 강석편직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KEDO 협상대표단, 평양 도착

■ 4. 2(일)

- 김정일, 자동화대학 시찰
- 중국정부와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평양-심양간 정기항로가 새롭게 개설되었다고 보도

■ 4. 3(월)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 및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서 지원노동

■ 4. 4(화)

-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개막식에 참석
-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 “전당·전국이 대홍단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호소(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1일회의 개막(만수대의사당)
 - 재정상 임정숙의 '99년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2000년도 예산 보고
- ‘인민보건법’ 발포 2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만수대의사당)
- 평안북도 인민위원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중국 요령성 인민정부의 사과나무 2만 그루 기증식 진행(신의주)
- 백남순 일행, 비동맹국가 외상회의(콜럼비아) 참가차 평양 출발
- KEDO 협상대표단, 평양 출발
- 일본정부대표단(단장: 일·조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 평양 도착

■ 4. 5(수)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2일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
 - 예산위원장 한성룡의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보고 및 대의원 22명의 토론 진행 등
- 북-일 정부간 제9차 본회담 개최(인민문화궁전)
- 정부대표단(단장: 외무성 순회대사 정태화) 대표, 일본과의 제9차 본회담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인민문화궁전)
- 평양-심양간 정기항로 첫 취항

■ 4. 6(목)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폐막(만수대의사당)
 - 교육법·대외경제중재법·민용항공법 승인
 - ‘사회안전성’의 ‘인민보안성’ 개명 및 ‘북-러 신조약’ 비준

■ 4. 7(금)

- 김일성의 88돌 생일 기념 「농근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4. 10(월)

- 김일성의 88돌 생일기념 직업동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중앙노동자회관)
- 김일성의 88돌 생일기념 청년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청년중앙회관)
- 농업근로자들, 충성의 맹세모임(청산리 김일성동상앞) 및 덕성실화 모임(강서구역 청산협농) 각각 진행
- 중방·평방·중앙TV, 특별중대방송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합의서' 보도
- 남북정상회담 개최예정 (6.12~14, 평양) 관련

■ 4. 11(화)

- 황북청년제염소 준공식 진행

■ 4. 12(수)

- 김책항 개건확장공사 준공식 진행
- 3.24청년광산 조업식 진행
- 황해제철소 혁명사적관 창립 2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제2차 '김정일화 전시회' 개막식 진행(국제문화회관)
- '김일성화 전시회' 개막식 진행(평양국제문화회관)
- 모범적인 단위들과 당 및 국가행정경제부문 일꾼들·조선인민군 경비대군인들에 대한 김일성훈장 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4. 13(목)

- 6.20발전소 조업식 진행

■ 4. 14(금)

- 자강도 소재 회천공작기계공장, 김일성의 현지교시관·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평양텔레비죤방송국 및 황남 재령군 김제원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제막식 진행
- 김정일, 조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2억 1,14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전달
- 중국 단둥시 경공업경서 총공사대표단, 평양 도착

■ 4. 15(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생산·생활문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2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 및 50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등을 각각 수여
- 온천군 소재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개관식 진행

■ 4. 16(일)

- 함남 소재 홍산요업공장,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식 진행
- 함남 3.11수출품가공사업소 및 황북 경암산수출피복공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식 각각 진행

■ 4. 17(월)

- 평양맥주공장, 김일성 현지교시판 제막식 진행
- 제2차 김일성화 전시회 폐막식 진행(평양국제문화회관)
- 대홍단군 근로자들, 김정일의 대홍단군 종합농장 현지도(3.27 보도) 말씀관철 궐기모임 진행
- 삼지연군 근로자들,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현지도(3.29 보도) 말씀관철 궐기모임 진행
- 러시아와 '2000-2001년 두 나라간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체결

■ 4. 18(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과학원 전기연구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
- 김정일의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1.24) 담화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보도(중방)

- 양강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김정일의 대흥단군 종합농장 현지지도(3.27 보도) 말씀관철 쉼기모임 진행(혜산시)

■ 4. 19(수)

- 「북적」 위원장 장재언,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접촉 수락관련 대남전통문 발송
- 기상수문국, 중국 기상국으로부터 기상관측장비를 受贈

■ 4. 20(목)

- 은천군 '6월3일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교시 및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차주연이 일하는 양어장, 김정일의 현지지도 표식비 제막

■ 4. 21(금)

- 노동신문 사설,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토지정리사업을 적극 다그치자' 보도

■ 4. 22(토)

- 노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강계의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 보도
- 자강도 화평포장재공장, 조업 시작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1차 준비접촉 진행(판문점)

■ 4. 23(일)

- 농근맹원들과 평양-남포 고속도로건설장 지원 군인건설자들간의 연환 모임 개최

■ 4. 24(월)

- 「직맹」 중앙위, 제7기 41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4. 27(목)

- 「전국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대회」, 개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4. 28(금)

- 「전국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대회」 폐막
- 영주군 내중협동농장,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 문천시 관풍협동농장 및 국영 북청과수농장,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 4. 29(토)

- 「전국 공구 및 부속품 전시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박길연), 방글라데시 외무부대표단과 '마드하파라 채석광산 개발계획' 추진 합의

■ 4. 30(일)

- 「중앙품질 및 계량과학연구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철도운수부문 일꾼·근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철도성회관)
- 덕천시 석동공원 혁명사적지, 김일성·김정일·김형직의 혁명사적 표식비 제막

■ 5. 1(월)

- 「국제노동자절」(5.1절) 1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승리자동차공장)

■ 5. 2(화)

- 황북소재「수안 구조토광산」 조업식, 이연수(경공업상) 및 신발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참가하에 현지에서 진행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 중 대평고창지구(평양시청년건설사단 만경대 구역연대와 평천구역연대 담당구간), 첫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작

■ 5. 4(목)

- 김정일이 강원도에 보내는 화학비료 전달모임, 이용무·이하섭 등 참가하에 현지에서 진행
- 「포태종합농장」으로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조명록 등 참가하에 진행

■ 5. 6(토)

- 함남 고원군 소재 함흥철도국 미둔청년발전소 조업

■ 5. 7(일)

-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포태종합농장」으로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인민무력성회관)

■ 5. 8(월)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남북정상회담관련 제4차 준비접촉 진행사실 보도
- 호주 의무상,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개관련 「성명」 발표

■ 5. 9(화)

- 김정일, 새로 건설된 「열대메기공장」 현지지도
- 평북 피현군 백마협동농장,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건립제막
- 강원도 통천군 구읍협동농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제막
- 「북·미기본합의문」이행과 관련한 제14차 협상에 참가할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평양 도착

■ 5. 10(수)

- 부전강발전소·남강발전소·장자강발전소 등 각지 수력발전소, 불굴의 투쟁으로 전력생산량을 점차 늘여가고 있다고 보도(중방)
- 자강도 소재 우시군 「하창청년발전소」 조업

■ 5. 11(목)

- 평북 소재 「구장시멘트공장」의 탄산칼슘직장 조업

■ 5. 12(금)

-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당면한 영농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궤기모임 진행(김일성동상앞)

■ 5. 14(일)

- 평북 태천군 운흥협동농장 농장원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청산협동 농장원들의 호소에 호응하는 궤기모임 진행
- 수풍수력발전소의 일꾼과 노동자들, 전자계산기에 의한 조합 부하분배를 통해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평방)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박길연), 인도·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이란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

■ 5. 15(월)

- 평북도 토지정리를 끝낸 도내 협동농장들에 보내는 인민군의 트랙터·화학비료 기증 「軍民大會」 진행(신의주광장)
- 제15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김책공업종합대학)

■ 5. 16(화)

- 김정일, 평북 용천군 소재 선박기계공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 검덕광산에 파견된 전국 고속도굴진 청년전위결사대와 8.28청년여단 3연대의 모범적인 단체들에 보내는 김정일의 문화기재 전달모임 진행

■ 5. 18(목)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첫 공정인 대각갑문 1차 가물막이공사 완공

■ 5. 19(금)

- 김정일, 여러 날에 걸쳐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 하였다고 보도(중방)
- 제15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5.14-18, 평양)
- 의과학원 내분비연구소 준공(광복거리)

■ 5. 20(토)

- 황북 연탄군 천내리,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북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국으로 피선

■ 5. 21(일)

- 평양방직공장에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그 아내들에게 김정일이 보내는 선물 전달모임 진행
- 「조총련」결성 45돌 기념 중앙대회 개최(도쿄 조선회관)

■ 5. 22(월)

-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및 김정일·김정숙의 현지말씀판 제막(해주시)

■ 5. 23(화)

- 강계청년·장자강·이원발전소 등 자강도내 발전소들에서 수문·구조물 관리의 개선을 통해 매일 일정계획을 초과수행하여 전력생산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중방)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400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건설자들의 모임 진행
- 미 국무성 실무대표단, 평북 대관군 금창리 소재 터널 實査차 평양 도착

■ 5. 24(수)

- 청단군·연안군 등 황해남도내 농촌들, 기본면적에 대한 강냉이 영양단지 모음겨심기를 종료했다고 보도(중·평방)
- 양강도 대흥단군을 비롯한 19개 시·군지역 중소형발전소들, 자체의 전력으로 동력·조명용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및 개천2호·3호발전소·어랑천 수력발전소·금야강수력발전소 등 각지 수력발전소 건설자들,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고 보도(중방)

■ 5. 25(목)

- 내각 위원회·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 지원물자 제공 등 대흥단군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
- 탄광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남인민위원회 18개 시·군·공장에 보내는 김정일의 感謝 전달모임 각각 개최

■ 5. 26(금)

- 평남 청년돌격대원들이 착공 4개월만에 49만 6천여㎡의 토양처리 등 은천양어장 개건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조선인민군 홍성률소속부대, 김일철 등 참석하에 極超低落差 방식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 조업식 진행
- 각지 協農에서 자체적으로 '고려 식물성농약'을 만들어 농업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
- 「체신성대표단」(단장: 부상 맹학섭), 중국 국가우정국과 「체신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 조인(베이징)

■ 5. 27(토)

- 「철도대표단」(단장: 철도상 김용삼), 철도협조기구 제 28차 철도상회의(라트비아) 참가차 평양 출발

■ 5. 28(일)

- 평양기료품공장,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건립 제막
- 황북 연탄군 창매협동농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건립 제막

■ 5. 30(화)

-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여러 여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강계-낭림간 철도 전기화공사(4월초 착공)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평방)

■ 5. 31(수)

- 김정일, 조명록·김영춘·김국태·김용순·김양건 등을 대동하고 중국을 비공식 방문(5.29-31)
-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와의 회전을 통해 북·미차관급회담(5.24-30)에서 “경수로공사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언급
- 외무성, 영국 외무부대표단과 회담(5.16-20, 평양)을 가졌다는 성명을 발표(이타르 타스 통신)

■ 6. 1(목)

- 신의주시,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및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6. 2(금)

- 함흥 유리실험기구공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수여식 진행

■ 6. 5(월)

- 김정일의 대중적 기업관리방법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 제시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6. 7(수)

- 최근 각 지역에서 이상고온현상과 가뭄현상이 계속 나타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압록강다이아공장,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및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단천마그네슘공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황남 재령군 소재 장수산유원지 제1단계공사 완공

■ 6. 8(목)

- 평북 소재 용등탄광, 2단계 콘베이어 벨트를 시운전하였다고 보도(중방)

■ 6. 9(금)

- 김정일의 신의주화장품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 산림과학원 산림육종시험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수여식 진행

■ 6. 12(월)

-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전력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발전소 석탄미분쇄용 기류분쇄기 및 가속관 개발

■ 6. 13(화)

- 은파주름판지공장, 김일성의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김정일국방위원장, 김대중대통령과 남측대표단을 영접(평양공항)
- 김대중대통령,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제1차 정상회담(백화원 영빈관 회의실)
- 김영남, 김대중대통령과 남측대표단을 위해 연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철도대표단(단장: 철도상 김용삼), 철도협조기구 제28차 상회의(라트비아)에 참가후 평양 도착

■ 6. 14(수)

- 김대중대통령,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 및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 서명·발표(백화원 영빈관 회의실)

■ 6. 15(목)

- 함북 청진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식 진행
- 김정일국방위원장, 김대중대통령을 위해 오찬 개최(백화원 영빈관)
- 김정일국방위원장, 김대중대통령과 남측대표단을 환송(평양 순안공항)
- 박재규장관 등 일부 수행원, 평양시 교외의 가금목장 및 동명왕릉 참관

■ 6. 16(금)

- 「농근맹」, 김정일의 黨 중앙위 사업개시 36돌 기념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직맹」, 김정일의 黨 중앙위 사업개시 36돌 기념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 및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중앙노동자회관)
- 평남 덕천시 상업관리소 및 그 일꾼·종업원들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및 훈장 수여식 진행

■ 6. 17(토)

- 군이 양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에 농기계·화물자동차들을 기증하는 軍民 대회 진행

- 군이 포태종합농장에 화물자동차들을 기증하는 모임 진행
- 「북적」 중앙위 위원장 장재언, 「한적」 정원식 총재앞으로 대남전통문 발송
-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협의’를 의제로 남북적십자회담 6월중 개최 제의
- 수산대표단(단장: 수산상 이성웅), 국제수산전시회(쌍뜨 페테르부르크) 참가차 평양 출발

■ 6. 18(일)

- 미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대북식량 5만톤을 제공키로 결정(6.15)했다고 보도(중방)

■ 6. 19(월)

- 북청군 용전문화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도교시판」 제막

■ 6. 20(화)

- 의류제조업체 ‘평양창광옷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과학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 ‘시루식 고상발효법’에 의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농기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중앙TV)
- 자강도내 근로자들,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도(‘99.6)이후 초산군 송묘청년 발전소·우시군 하창청년발전소 등 20여개의 발전소를 조업 16,000KW 발전능력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중·평방)

■ 6. 21(수)

- 김정일, 평북 영변견직공장과 박천견직공장 현지도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6.20-21)
- 최근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지방에서 가물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천성청년탄광 7경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진행.
- 북청군 용전문화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도교시판」 제막

- 은파군 금대협동농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6. 23(금)

- 황해남도내 농촌들, 모내기를 끝낸 논판들에서 열대메기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보도(중앙TV)
- 남포시 용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 김일성의 현지교시, 김정일의 현지말씀, 김정숙의 현지말씀판 제막

■ 6. 25(일)

- 평양시· 황해남북도· 자강도 등 각지의 농촌정리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가뭄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중방)

■ 6. 27(화)

- 수산대표단(단장: 수산상 이성웅), 국제수산전시회(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참가 후 평양 도착

■ 6. 28(수)

- 평양전력설계사업소, 극소형 저낙차 수력터빈 연구·완성 보도
-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흑심하다고 보도 (중통)
 - 평남 온천군, 증산군, 대동군과 개천시는 경지면적의 70% 이상, 황남 봉천군, 신원군, 삼천군, 안악군과 개성시, 황북 여러 지역들에서는 경지면적의 50-60%의 논밭들이 가뭄피해
- 중국 요녕성 수출품 전본전시회 개막식이 평양에서 개최
-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6.23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

■ 6. 29(목)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여관)
- 현대그룹 정주영·정몽헌, 원산에서 김정일과 담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장 현지답사

■ 6. 30(금)

- 제3차 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여관)
 - 오는 8.15-18 남북 각기 151명씩 서울·평양 동시방문 및 9월초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합의서' 채택

■ 7. 1(토)

- 외무성 대변인, KEDO의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 요구 거절관련 KCNA 기자회견 진행
- KEDO 대표단, 경수로대상 제공협정 관련 협상차 평양 도착

■ 7. 2(일)

- 「청년동맹」중앙위, 20차 전원회의 개최
- 「청년동맹」각도 여단 청년돌격대원들,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을 조기 완공하기 위한 결의 모임 및 핏불행진 진행
-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부 경제분야 제재조치 등을 해제(6.19)하였다고 보도

■ 7. 3(월)

- 안주·성주·박천·함주·경성·은덕 등 각 시·군들에서 중소탄광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180여개, 금년 60여개의 중소탄광들이 건설되었다고 보도
- 평양의학대학 약학부, 최근 컴퓨터 약물 설계수법으로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진 네오셀렌(소염진통제)을 개발하였다고 보도

■ 7. 4(화)

-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보도
- 김일성종합대학 정보통신센터, 「주체사상학습자료 검색체계」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 7. 5(수)

- 농업성 부상 이원중, 월간잡지 '조국 7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성에 '감자생산국' 및 道 농촌경리위원회에 '감자생산처'를 각각 설치했다고 언명

■ 7. 6(목)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 청년건설사단 청년돌격대원들, 동 공사를 조기 완공하기 위한 맹세모임과 필기모임 진행

■ 7. 10(월)

- 철길 강도를 높이는데 모범을 보인 신의주 철길대 청년기계화 기동중대 등 37개의 청년기계화기동중대들과 개천 철길보수대 등 5개 단위에 김정일의 感謝 전달
-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 언제기술에서 축조재료들의 특성에 대한 해석방법이론을 새롭게 해결하는 '사석언제설계 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 주북 국제기구 및 비정부단체 성원들, 대동군과 증산군의 가물피해지역 시찰
-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 인터넷상 영어판 정부 공식 홈페이지 '북조선 인포뱅크' 개설

■ 7. 11(화)

- 함경남도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7. 12(수)

- 각지 근로자들, 「해양의 날」(7.2)과 「7·8월 해양월간」을 계기로 광산후보지 및 염전 개발 등 해양 개발사업을 전개
- 서평양기관차에 파견된 2.17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김정일의 感謝 전달모임 개최
- 駐태국대사 조인철, 필리핀 외무장관 「도밍고 시아손」과 외교관계 수립 협정 체결(마닐라)

■ 7. 13(목)

- 영변전직공장과 박천전직공장에 김정일이 보낸 윤전기재·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 개최
- 제6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 개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김일성화 · 김정일화 온실 개관식 진행 (조선인민군 박중욱 소속부대)

■ 7. 15(토)

- 철도성, 7.15 12:00부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오가는 여객열차들의 번호와 운행시간 개편
- 황주과실가공공장 및 성천군 향통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교사 ·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건립 제막식 각각 진행
- 평북 영변전직공장 종업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6.21) 관철을 위한 쫓기모임 진행
- 의무성 대변인, 필리핀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7.12) 관련 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 회견

■ 7. 17(월)

- 강철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및 평양 · 함흥 · 청진 철도국 등 여러 단위에 김정일의 感謝 전달
- 함남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및 태탄군 유동협동농장, 김일성 ·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식 각각 진행
- 함남 안악군 관혁협동농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7. 18(화)

- 순천 화력발전소 1만크바(kVA) 증기터빈 발전기 준공
- 장철구평양상업대학 컴퓨터 응용연구실, 「금강산관광 안내 프로그램」 개발 (중앙TV)
- 북 · 일간의 비공식 실무접촉(7.15-17, 베이징) 사실 및 북 · 일의상회담, 제10차 정부간회담 개최예정 등 합의내용 발표

■ 7. 19(수)

- 김정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 확대회담 및 「북 · 러공동선언」 조인
- 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태천군 등 9개 군에 김정일 感謝 전달모임 진행

- 북한과 러시아간 부문별회담 개최
 - 인민무력상 김일철-국방상 「셰르게예프」, 당비서 전병호-부수상 「클레바노프」, 무역상 강정모-교육상 「필리포프」, 임업상 이상무-원동연방구조재 대통령 전권대표 「렐리콥스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홍서헌-연방국가회의 대의원 「정유리」등
- 외무성 부상 김계관, 미국의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찰스 카트만」과 회담 (베를린)

■ 7. 20(목)

-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특별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7. 21(금)

- 영광군 옥도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 김정일과 김정숙의 현지 말씀판 제막
- 외무성 부상 김계관, 미국의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찰스 카트만」과 회담(베를린)

■ 7. 23(일)

- 천리마제강소 등 6곳, 영변전직공장 종업원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당 창건 5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쉼기 모임 개최

■ 7. 24(월)

-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 등 6개 기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感謝 전달

■ 7. 25(화)

- 개성 9.24피복공장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 전국 각지 공장 · 기업소 · 협동농장, 당 창건 5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쉼기모임 개최

- 「정부과학기술대표단」, 평양 도착

■ 7. 26(수)

- 북창화력발전소·신의주방직공장·통천군구읍협농 등, 당 창건 55돌을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 개최
- 캐나다 「로이드 엑스워드」 외무장관, 백남순 외무상과의 회담을 통해 캐나다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다' 고 발표(태국 방콕)
- 백남순, 이정빈 외교통상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공동발표문' 발표(태국 방콕)
- 백남순, 일본 외상 「고노 요헤이」와 공식 외상회담 후 '공동발표문' 발표

■ 7. 27(목)

- 백남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공식 가입 연설(태국 방콕)

■ 7. 28(금)

- 개성방직공장 및 정주시 신천농장 등 각지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당 창건 5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 개최
- 平北 소재 자동화·컴퓨터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家禽牧場(연건평 22,400평) 착공식 진행
- 「여맹」 중앙위, 제33차 전원회의 개최(회령시)
- 아·태평화위·삼성그룹 공동주최 「통일탁구경기대회」 개최(평양체육관)
-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북·러간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러연방 평의회 국회 상원에서 비준되었음을 보도

■ 7. 30(일)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에서 개최 보도(중·평방, TV)

■ 7. 31(월)

- 당창건 55돌 즈음 「당중앙위원회 구호」(217개) 발표

- 「농근맹」 중앙위 제38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김영섭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공장에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개최 보도
- 평안북도를 출발한 토지정리 불도저 250대, 황해남도 해주시와 벽성, 강령 신원군에 도착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서울에서 발표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단장 :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 김대통령 예방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비행기로 서울 출발
- 백남순 외무상, 7.26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만남(태국 방콕) 보도
- 백남순 외무상, 7.27-28 중국 외교부장, 러시아 외무상, 프랑스 외무성 협조담당 대표상, 호주 외무상, 유럽동맹위원회 대외관계담당 위원, 필리핀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고(태국 방콕) 보도

■ 8. 1(화)

-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북도 공업부문사업 현지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안주절연물공장 등 5개 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보도
- 평안북도를 출발한 토지정리를 위한 불도저 200여 대, 웅진, 강령군에 도착
- 「제1차 북남상급회담」에 참가하였던 북측 대표단, 평양 도착

■ 8. 3(목)

- 「직맹」 중앙위 제42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표식비(황북 황주군 외상협농) 및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함남 함주군 상중협농) 제막
-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개관식(7.27, 로마) 보도
- 중국 기상국, 북한 기상수문국에 위성통신 수신설비와 컴퓨터를 비롯한 설비들을 기증(중국대사관)
-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산림조성과 국토관리에 필요한 소형화물자동차, 양수기 등을 기증(평양)

■ 8. 5(토)

- 방북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언론사 사장단 일행, 평양 도착
- 공보위원회 및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방북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언론사 사장단 일행을 위한 연회 개최

■ 8. 6(일)

- 평양시, 당 창건 55돌에 즈음한 당 중앙위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 개최(김일성광장)

■ 8. 7(월)

- 황해남도 및 함경남·북도, 당 창건 55돌에 즈음한 당 중앙위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각각 진행
-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해양학강좌 연구집단, 지진과 태풍 등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해양학적 설계계산서' 프로그램을 개발

■ 8. 8(화)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전국청년용접경기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感謝 전달모임 개최(청년중앙회관)
-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농근맹」중앙위 일꾼들에게 보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感謝 전달
- 김용순 아·태위원회 위원장, 방북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일행과 담화(인민문화궁전)

■ 8. 9(수)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일행과 오찬 및 기념촬영
- 평안남·북도 및 양강도·개성시 등, 당 창건 55돌에 즈음한 당 중앙위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각각 진행
- 현대건설의 기증에 의해 건설된 「낙랑기와공장」 조업
- 자강도 희천시, 김일성의 현지교시판·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자강도 대동군 성산협동농장, 김일성의 현지교시관 제막

■ 8. 10(목)

· 황해북도 및 자강도·강원도·강원도·남포시 등, 당 창건 55돌에 즈음한 당 중앙위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각각 진행

■ 8. 11(금)

· 방북 남측 언론사 사장단 일행, 북측 언론사대표단과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 발표

■ 8. 12(토)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남측 언론사 대표단 접견 및 오찬 마련
· 안주시 및 단천시·대흥단군 등 전국 각지 시·군들, 당 창건 55돌 즈음 당 중앙위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각각 진행

■ 8. 15(화)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비행기편으로 서울·평양에 각각 도착

■ 8. 16(수)

· 영양광산 및 배천자동차사업소 등 전국 각지의 사업소들, 당 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당 중앙위 구호를 받아안고 진력하고 있다고 보도(평방)
· 제6차 「발명 및 기술전람회」에 종이원료종합가공기 및 온도·가류시간 자동조절장치 등 전시

■ 8. 17(목)

· 해주시멘트공장,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능력 조성 준공식 진행

■ 8. 18(금)

-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집단을 위해 모범을 보인 함주역·함흥철도국 등 관련기관의 일꾼·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8.21(월)

- 황해제철소 일꾼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感謝」 전달모임 진행
- 신창탄광 3개에 「3대혁명붉은기」 전달모임 진행

■ 8.22(화)

- 북·일 정부간 수교를 위한 제10차 본회담 개최(도쿄 일본외무성 공관)

■ 8.23(수)

- 풍서임산사업소 산림용작업소에 대한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

■ 8.24(목)

- 양동농기구공장과 임업성 설계사업소 및 그 일꾼·종업원들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및 훈장 수여
- 북·일 정부간 수교를 위한 제10차 본회담 개최(일본 지바현)
- 북·일정부간 수교를 위한 제10차 본회담 종료 및 공동보도문 발표
- UNDP(유엔개발계획) 주북 상주대표 「데이비드 모턴」, 대북농업부문 피해복구설비 기증식 진행

■ 8.25(금)

- 김책제철소 및 3.17발전소·오대진제염소 종업원들, 김정일의 8.1-2일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 각각 진행

■ 8.27(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남도내 성천강 29·30·32호 발전소 및 6월4일 공장·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 (8.26-8.27)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함흥대극장)

■ 8.28(월)

- 김정일 국방위원장, 원산시 소재 갈마휴양소 시찰(중방)
- 「청년절」 즈음 당·정 간부들, 각지 공장·기업소·협동농장·대학 등에 나가 청년들과 하루 보냄
 - 홍성남·한성룡·양형섭·최태복·김중린·이하일(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 계응태(황해제철소), 최영립(천리마제강소), 박범기(시멘트공장), 조창덕(북창화력발전소), 변영립(김일성종합대학) 등
-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청년돌격대원들의 5만명 대합창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가 진행(태성호 언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3중 3대 혁명붉은기’ 수여

■ 8.29(화)

-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40돌 기념 전국과학토론회 개최(8.28-29, 김일성종합대학)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남측대표단(수석대표 : 박재규 통일부장관), 비행기로 평양 도착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일행, 평양 도착

■ 8.30(수)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진행(평양 인민문화궁전)

■ 8.31(목)

- 김정일 국방위원장, 8.28-31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 현지도

■ 9.1(금)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종료, 7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유엔아동기금의 보건사업 협조설비 기증식진행(평양)

■ 9.2(토)

- 비전향장기수(63명), 판문점 통해 평양 도착

■ 9.4(월)

-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조국통일상」 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한겨레신문사 사장 최학래 및 KBS 사장 박권상·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박홍수 등, 김정일에게 각각 선물을 전달하였다고 보도(중방)

■ 9.5(화)

- 외무성 대변인, 김영남위원장의 '새 천년 유엔정상회의' 불참관련 성명 발표(중방 및 중앙통신)

■ 9.6(수)

- 황해남도 토지정리 돌격대원들, 황해남도 토지를 훌륭히 정리하기 위한 충성의 결의모임 개최(벽성군)
- 황해남도내 구미포·몽금포 등 바닷가 양식사업소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각각 개최

■ 9.8(금)

- 대흥단 5호발전소·삼지연군 무봉청년발전소 등 전국 각지의 중소형발전소들, 전력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중방)
- '새 천년 유엔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공동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고 보도(평방)

■ 9.10(일)

- 함경남도 근로자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도(8.26-27) 관철 쫓기모임 개최

- 인민군대 원호사업과 사회·집단을 위한 길에서 모범을 보인 남포세관·문평제련소 등 8개 단위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9.11(월)

- 김용순 일행(8명), 특별비행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 대장 박재경, 김정일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 등에 보낸 선물 '송이버섯'을 전달한 후 서울 출발

■ 9.12(화)

- 제3차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16명), 일본 방문차 평양 출발

■ 9.13(수)

- 「2.17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 발단 25돌 기념 전국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김책공업대학)
- 김용순 일행, 경주 불국사·포항제철 등 방문후 서울 도착

■ 9.14(목)

- 김용순 일행, 김대중대통령 예방(청와대)
- 김용순의 訪韓(9.11-14)에 따른 7개항의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 김용순 일행, 판문점을 통해 평양 도착

■ 9.15(금)

- 「2.17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 개시 25돌 기념 「전국 과학기술발표회」 진행(9.13-15, 김책공업종합대학)
- 체신상 이금범, 방북 중국의 정보산업부장 吳基傳과 양국 정부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만수대의사당)

■ 9.17(일)

- 자강도 근로자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말씀(8.28~30)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 진행(강계시)

■ 9.19(화)

- 再建된 구월산 삼성사(※황남 안악군소재, 단군에 祭를 지내는 祠堂) 준공식 진행
- 「복합미생물기술과 자연농법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차 남아프리카·뉴질랜드·네팔·독일·미국·일본·오스트리아·파키스탄·태국·캐나다·인도네시아 등의 대표들 평양 도착

■ 9.20(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새로 건설된 폐기공장을 현지지도
- 「2.17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 개시 25돌을 맞이하여 높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중방)
- 「복합미생물 기술과 자연농법에 관한 국제토론회」 개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 적극 지원한 평양시 지방공업관리국 준비원 나강철 등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보내는 「감사」 전달
- 과학원 채출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석탄생산용 막장 굴진작업용 기기인 '전기식 천공적재기'개발 완료(중앙 TV)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일회의, '북남합의에 따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77개 집단 외무상회의」(9.15,뉴욕)에서 행한 북측 대표단장의 연설내용 보도(평방)
- 보건성 부상 최창식, 중국 위생부 부부장 팽육과 「북한 보건성과 중국 위생부간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2000-2001년도 집행 계획서」 조인(베이징)

■ 9.21(목)

- 용등탄광 갱내 「대형장거리 벨트 콘베이어 수송선」 2계단공사 준공식진행
- 외무상 백남순, 최근 영국·벨기에·프랑스·독일 등 유럽 9개국 외상들과 유럽동맹 대외관계담당위원들에게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 설정제의 편지 발송(중앙통신)

■ 9.23(토)

- 개성 수지일용품공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4개항 합의서 채택 후 종료

■ 9.24(일)

- 김중태 전기기관차공장 노동계급과 이를 지원한 단위 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 9.25(월)

- 농업성 농산국장 “올해 가뭄과 고온, 태풍으로 하여 농업부문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談話 발표(중앙통신)
 - 자연재해로 알곡손실량은 140여만톤, 내년에도 식량부족현상 계속

■ 9.26(화)

- 「북남 인민무력부장급 회담」 진행사실 및 동회담 관련 5개항의 공동 보도문 합의· 발표(9.25-26, 제주도)
- 제1차 「북남 경제협력 실무접촉」 진행사실 보도(서울, 9.25-26)

■ 9.27(수)

- 당 창건 55돌 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및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 (인민대학습당)
- 풍서임산사업소와 이천동작업소 새세대 청년별목공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낸 「감사」 전달모임 진행
- 제3차 「북남 상급회담」에 참가할 내각 책임참사 전금진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비행기로 평양 출발
- 백남순, 이탈리아 「람베르토 디니」 외무상과 회담(로마)
 - 「호상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경제협조에 관한 기초협정」,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등 조인

■ 9.28(목)

- 제3차 「북남 상급회담」, 제주도에서 전금진(내각 책임참사)·박재규 장관 등 참가하에 개최되었음을 보도

■ 9.30(토)

-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금강산관광지구 시찰후 오찬 및 기념촬영

■ 10.1(일)

-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청년연맹」 들격대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청산리 김일성동상앞)

■ 10.2(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재정상(임경숙→문일봉)과 중앙은행 총재(정성택→감완수)를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 강제차량대에 김정일의 보낸 강계-남림철도수송에 이용하게 될 운전기재 전달모임 개최(강계시 남문역)

■ 10.3(화)

- 「여맹」중앙위, 제34차 전원회의를 통해 천연옥위원장을 해임하고 박순희를 새 위원장으로 선거
- 당 창건 55돌 기념 '어랑1호 청년발전소' 조업식 진행(어랑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발표
- 평북 봉화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조업식 개최

■ 10.4(수)

- 김일성화·김정일화 은실 개관식(자강도 강계시)
- 농근맹과 농업근로자들, 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 3돌 및 당 창건 55돌 경축모임 진행(청산리)
- 황남 신원군 국영계남공장 준공식 개최

- 함남 낙원군 신평 청년저수지 준공식 진행

■ 10.5(목)

- 철도성 평양철도국 지도기관사 한득순 등 24명의 일꾼들과 군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강계-낭림 사이 전기철도 개통모임 진행
- 대동군 원천협동농장 및 함남 서호수산사업소, 김일성의 현지교시·김정일의 현지말씀판 및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식 각각 진행

■ 10.6(금)

- 남포시 및 대동군 상서협동농장, 김일성·김정일의 현지교시 및 말씀판 제막식 각각 진행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순천청년중공업공장 등 3곳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10.7(토)

- 홍성남, 일본정부의 쌀 50만톤 제공결정 및 공식발표(10.6)와 관련, 일본총리 '모리 요시토'에게 감사전문 전달 보도(중방)

■ 10.8(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5호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 건설을 끝낸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틀 줌에 대하여' 발표(10.4) 보도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6호 '태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틀 줌에 대하여' 발표(10.4)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모범적인 2개의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15개 단위들에게 2중3대혁명붉은기틀, 89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틀 수여함에 대하여' 발표(10.4) 보도
-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 (원산항 및 함흥시 인민보안소)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함흥시 인민보안소 및 덕성군 장흥협동농장)
- 평양화장품공장 세수비누직장 조업식이 현지에서 진행

- 북·미, 10.6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 보도

■ 10.9(월)

- 당 창건 55돌을 맞아 여러 건설대상이 완공되었다고 보도
 - 강계-낭림 좁은 철길 전기화 공사 완공(10.5), 봉화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신평 청년저수지, 용등탄광 갱내 대형 장거리 벨트콘베아 수송선, 메기공장, 국영계남 공장, 삼성사 개건, 수안규조토광산 완공

■ 10.10(화)

- 당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김정일 위원장 참석하에 진행(김일성광장)
-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제막식(평양농업전문학교, 순천제약공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식(과학원 합흥분원, 순천제약공장)에서 각각 진행 보도
- 조명록 특사,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담화(워싱턴)

■ 10.11(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남포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함에 대하여' 발표
- 평양-남포간 청년영웅도로 준공식 진행(만경대 갈립길 준공식장)

■ 10.12(목)

- 금창혁명전적지 지구를 더 잘 꾸리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만덕광산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 진행 보도
- 김정일의 광명성제염소 현지도 1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 북·미 사이의 공동 커뮤니케 발표

■ 10.13(금)

-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및 김정일·김정숙의 혁명사적표식비가 국영 숙천청년과수농장 및 북청군 경안대협동농장·병포혁명전적지에 건립, 제막식 현지에서 각각 진행 보도

■ 10.14(토)

- 김일성의 현지교서판·김정일의 현지말씀판이 황남 연안군 및 용연군 종합농장 남창분장·안악군 인민보안소·용진군 협동농장에 건립, 제막식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
- 평북소재 선천광산 종합목장 조업

■ 10.15(일)

- 원산화학공장 석면포직장 조업

■ 10.17(화)

- 평남 순천시 김일성화·김정일화은실 개관

■ 10.18(수)

- 김정일,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폐기공장을 현지지도
- 라진장공장·정주과실가공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및 용진장공장·해주시직물공장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각각 진행(중방)
- 한천 수산사업소와 함흥시 성천강구역 양정사업소, 김일성 및 김정일·김정숙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10.19(목)

- 황해남도 바닷가 양식부문 일꾼열성자회의 진행(해주시)
- 제6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폐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봉산군, 김일성의 현지교서·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함남 전신전화소·은파군 양동협동농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제막

■ 10.20(금)

-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동신개목생산사업소 등 여러 단위 일꾼과 종업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안변청년발전소 제2단계 공사 준공

- 함흥시 식료공장 원료기지(300정보) 준공
- 러시아와의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차 회의(10.17-20) 의정서 조인(만수대의사당)
- 북한과 KEDO 간 경수로건설 관련 '훈련의정서' 조인(평양)

■ 10.21(토)

- 송원 堰堤확장공사와 태천 堰堤확장공사·태천5호 발전소 등, 현지에서 각각 준공
-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대동군·성천군·북창군 일꾼들과 건설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개성시·판문군내의 많은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계연선 사천강 제방공사 완공(중방)
- 외무성 대변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동맹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을 입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중앙통신)

■ 10.22(일)

- 함경북도 어제진 제염소, 김정일이 보낸 운전기계들과 문화기재 전달모임
- 청진항 및 홍원군 농기기계작업소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 표식비 제막

■ 10.23(월)

- 김정일위원장, 미 국무장관 접견 및 그 일행을 위한 만찬 개최(백화원초대소)
- 6.12배수리공장, 김일성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홍원군 농기계사업소 및 운전군 관해협동농장 등, 김일성의 혁명사적 표식비 제막
- 청진시 남구역 리곡동, 김일성 및 김정숙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기상수문국, 중국 국가해양국과 「해양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 조인(평양)
- 유엔아동기금에서 보내온 보건사업 협조설비 기증식 진행(평양)

■ 10.24(화)

- 김정일위원장, 미 국무장관 「메들린 올브라이트」와 제2차 담화
- 조선컴퓨터센터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은하지도국 등 6개 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인민군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백두의 붉은기정신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혁명정신' 보도(중방)

■ 10.25(수)

- 대유동광산 대동지구 선광장 건설 조업식 및 同 건설 참가 건설·지원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 미 국무장관 일행, 평양 출발

■ 10.26(목)

- 제11차「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평북소재 박천1호 발전소 조업
- 평남 순천시, 김일성의 현지교시판 건립제막
- 평양시 두단오리공장, 김정일의 현지말씀판 건립제막
- 함북 청진화학섬유공장, 김일성의 현지교시판·김정일의 현지말씀판·김정숙의 현지말씀판 제막

■ 10.27(금)

- 중앙도매소, 김일성의 현지교시판·김정숙의 현지말씀판 제막
- 대흥단군종합농장 신흥분장, 김일성·김정일의 현지지도장면을 형상화한 대형 모자이크벽화(길이 34.5m, 높이 8.1m)제막
- 강원도 세포군 소재 '내평발전소' 준공
- 대흥단군종합농장·포태종합농장 분장들의 돼지농장 건설을 완공한 5개 부대 군인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 10.30(월)

- 김정일 노작 '재정은행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10돌 기념 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자강도 금년 중 우시군하천청년발전소·개풍1호발전소·회천시 청산 발전소 등 32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조업(중방)
- 「보통강-양해 합영회사」(즉석국수 제조업) 조업식 진행
- 「북·러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2.9 조인) 비준서 교환식 진행(러시아 모스크바)

■ 10.31(화)

- '국토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며' 題下로 김정일이 나무심기운동 토지정리사업 등 자연개조를 해 왔다고 찬양(중방)
- 북·일 정부간 제11차 본회담 진행(10.30-31, 중국 베이징)

■ 11.1(수)

- 북·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설분과」 제4차 회의 의정서 조인(평양)

■ 11.2(목)

- 김정일 국방위원장,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2호 닭공장'(※연건평 25,000㎡)을 현지도
- 안주시,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개관
- 황북 금천군 원명협동농장 및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인산군 상하약초농장 및 금천군 인민보안소,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인산군 연풍협동농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자강도 강계시내 신흥골짜기 현대적 설비를 갖춘 닭공장이 건설되었다고 보도(중방)

■ 11.3(금)

- 김일성종합대학, 제11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경제대사전 「별」을 개발했다고 보도(중앙TV)

■ 11.5(일)

- 조선컴퓨터센터 및 문학예술종합출판사·음악도서출판사, 최근 컴퓨터로 음악을 편집한 「삼일포」 프로그램을 연구·완성

■ 11.6(월)

- 제1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및 시상식 개최(3대혁명 전시관)

■ 11.7(화)

- 김정일위원장,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조선인민군 제549 군부대 부업농장 등 현지지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신형 「탄산소다 중간시험공장」 건설
-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에 참가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건설기념메달」 수여식 진행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산하 공장 및 대안전기공장·대안유리섬유공장·용강절연물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 등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남포시)

■ 11.8(수)

- 「생산문화 및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연관부문 일꾼회의」개최(인민문화궁전)
-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 참가할 남측대표단, 평양도착

■ 11.9(목)

- 대남 수재물자제공(※'84.9 적십자중앙위결정 제32호) 관련 '겨레의 마음에는 장벽이 없다 하시며' 보도(평방)

■ 11.10(금)

- 만수대창작사 등 5개 단위 일꾼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
-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만수대창작사 등 5개 단위의 일꾼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 보도(중방)
- 남녘의 민심을 '민족의 영도자를 따르며' 및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장군님께로' 제하로 보도(평방)

■ 11.11(토)

- 함흥시 기초식료품공장(※간장·된장 등 생산) 및 평남 온천양어장(폐기종어장·각종 동물우리 및 변전소·창고·등 부대시설 완비) 개건 확장공사 완공 등 보도(평방)
- 제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진행사실(11.8-11, 평양) 보도
- 제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무역상 강정모, 쿠바정부와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0차 회의 의정서」 및 「2001년도 상품교류의정서」 조인
- 계량 및 품질감독국대표단, 러시아와 「국가규격화 및 계량위원회 사이의 규격·계량·품질분야에서 협조할 데 대한 협정」 조인(11.8, 모스크바)

■ 11.12(일)

- 혁명사적 사업을 잘 도와주고 있는 외무성·무역성 등 여러 단위 일꾼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
- 노동신문 논평,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보도(평방)
 - 유럽연합 구성국가들의 대북 수교유지임 관련 일본의 행태 비난

■ 11.13(월)

- 전국 리 「농근맹」 경제선동대 경연, 각 도에서 선발된 14개 단체 200여명 참가하에 진행(11.10-13)
- 김정일,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 시찰 및 「황주탑공장」 현지지도

■ 11.14(화)

- 김일성 및 김정일의 함흥목재가공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
- 호주 외무상 「알렉산더 존 고세 다우너」 일행,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백남순, 호주 외무상 일행과 회담후 「농업공동연구 및 개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만수대의사당)
- 이탈리아 공업·무역상 「엔리코 레타」 일행, 평양 도착
- 계량 및 품질감독국대표단(단장: 국장 김형철), 러시아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
- 보건성대표단(단장: 부상 최창식), 네덜란드방문차 평양 출발
- 중국 사천성 인민정부친선대표단(단장: 부성장 조세군), 비행기편으로 평양출발

■ 11.15(수)

- 함북 수산관리국 수산물수출품 출하사업소 등 5곳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김영남, 호주 외무상 일행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호주 외무상, 북한방문 기념 연회 개최
- 홍성남, 이탈리아 공업 및 무역상 일행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이탈리아 공업·무역상 일행,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1.16(목)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들 위한 제2차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외무성 대변인, 제55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해제결의 지지관련 기자회견(중앙통신)
- 호주 외무상 「알렉산더 존 고세 다우너」 일행,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1.17(금)

- 김책시 방학협농·쌍용광산·김책선박공장 등 20여 개소, 중소형발전소를 이미 완공하였거나 마감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도(평방)
- 「여맹」 창립 55돌 및 김일성의 「여맹」 중앙위 청사와 여성회관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여성회관)
- 평양시 통일거리 소재 「낙랑원」(※연건평 3,600㎡의 종합편의봉사기지, 목욕탕) 조업
- 강계-낭림간 철길 전기화공사에 참가한 청년동맹대원들에게 김정일 선물 전달
- 홍남제약공장, 김일성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금창혁명전적지, 김일성·김정숙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6.1청년전기기구공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각급 위원회 및 성·중앙기관 일꾼들, 청춘거리 활쏘기경기장에서 금요 노동 진행
-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에 대한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 반향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는 민심의 바다' 보도(중방)
- 싱가포르 주재 신임대사에 강달선(※조선유네스코 민족위 부서기장) 임명

■ 11.18(토)

- 서평양역 및 중강군 압록강여관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노동신문 글, '동지애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자' 보도(중방)
- '조국통일에 특기할 해' 보도(중앙통신)
- 경제대표단(단장: 강정모 무역상), 쿠바 방문후 평양 도착

■ 11.19(일)

- 남측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에 대해 '생존권 위협하는 당국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 으로 보도(중방)
- 이집트주재 신임대사에 장병선(※전 수단대사)을 임명

■ 11.20(월)

- 노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보도(중방)

- 공산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양한 평양시당학교 등 8개 단위 일꾼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여맹」 중앙위 제35차 전원회의 진행(평양)
- 쿠바주재 대사에 박동춘(※현 외무성 부상), 라오스주재 대사에 최병광(※현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이디오피아주재 대사에 오남중(※전 집 바브웨대사) 등을 임명
- 태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25돌 즈음 방북중인 태국 외무성대표단들과의 친선모임 진행(평양)

■ 11.21(화)

- 전국 「여맹」 교양모범일꾼회의 개최(여성회관)
- 강원도 천내제염소 조업
- 평양프로그램센터, '단군 5.0' 등 프로그램 개발 보도(중앙TV)

■ 11.22(수)

- 김일성의 「청년동맹」 중앙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청년동맹회관)
- 청진제강연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 감사문 전달
- 삼흥중학교(※평양시 소재), 3대장군의 혁명사적비 제막식 진행
- 노동신문 논설, '사상사업은 사회주의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적 문제' 제하로 보도

■ 11.23(목)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및 농업성,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경험토론회 개최
- 하성타이어공장 기와분공장 조업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회령시 회령인민학교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평양은정고등중학교 등 4개교에 「영예의 붉은기」를 각각 수여
- 홍성남, 방북 스위스-스웨덴 아베베그룹대표단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11.24(금)

-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를 대노천박물관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전국 당 선전 일꾼 돌격대원들의 건설착공식 진행(삼지연대기념비 교양마당)
- 평양친선병원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제1차 「전국대학생 프로그램 경연」 진행(11.20-24, 평양)
-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와 관련 '성근한 반성과 사죄를 떠난 관계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 제하로 보도(중방)
- 금속기계공업성 및 전기석탄공업성, 방북중인 스위스·스웨덴 아베베(ABB) 그룹대표단과 「전기기계설비생산과 전력망계통 현대화 협조합의서」 조인(평양)
- 김영남, 방북 스위스-스웨덴 아베베그룹대표단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스위스-스웨덴 아베베그룹대표단(단장: 총사장 「고란 린달」), 평양 출발

■ 11.25(토)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3차 「전국 감자농사와 관련한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11.23-25, 인민문화궁전)
- 청년영웅도로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낙랑수출피복공장 등 6개단위 일꾼, 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1.23자)을 통해 개성인삼가공공장 수출품직장 등 각급 단위에 「3중 3대혁명붉은기」 등을 수여
- 미 국회 하원의원 「토니 홀」 일행, 평양 도착
- 「유럽연합」(EU)대표단(단장: 프랑스 외무성 아시아담당국장 「도미니크 자라르」), 평양 도착
- 보건성대표단(단장: 부상 최창식), 네덜란드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

■ 11.26(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 양강도 대흥단군 감자전분공장·백산분장 대흥단 4호 청년발전소·종합농장 등 현지도
- 노동신문 글,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격찬: 세계적 대결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보도(중방)
- 노동신문 논평, '신의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도(평방)
 -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대상 건설 관련

■ 11.27(월)

- 김정일, 삼지연군 제대군인 윤성철의 가정·포태 3호발전소·포태 종합농장 등 현지지도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반(半) 야외식 강의장'들이 새롭게 건설되었다고 보도(중방)
- 과학원 버섯연구 과학자·기술자들이 새로운 버섯재배방법을 개발했다고 보도(중방)
- 파고철을 수집하여 강철전선에 보낸 선교구역 인민보안서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인재중시정치를 펼치시어' 보도(평방)
- 「조총련」 북해도 청년상공회, 김일성종합대학에 연구용 복합미생물 비료공장 기증(조선신보)
- '날로 뜨거워지는 남녘의 마음' 보도(중방)
- 백남순, 유럽연합대표단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노동신문 '범죄적인 쿠바봉쇄는 해제되어야 한다' 보도(중통)

■ 11.28(화)

- 최근 북한에는 청년영웅도로·청년공원·청년종이공장 등 '청년'의 이름을 딴 창조물들이 수없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평방)
- 단천시 양평협동농장 및 송파서구 송곡혁명전적지, 김일성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전국 농근맹 모범교양일군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
- 전국 공장 기업소 「4.15 기술혁신돌격대」 성과 소개 및 15개 모범돌격대에 「순회우승기」와 표창장 수여(중방)
- 「전국 제1고등중학교 학생 과학탁상 경연」 종료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개최 보도
-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이장준 단장과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이사장, 금강산가극단 서울방문 공연에 관한 계약서 조인 후 기자회견(중통)
- 나미비아 「삼 누조마」 대통령의 북한방문 관련 노동신문 사설, '친선의

정을 안고 찾아오는 사절' 제하로 보도(중·평방)

- 나미비아 「삼 누조마」 대통령,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김영남, 나미비아 대통령과 담화 및 연회 개최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이인규),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
- 정부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김영일), 기네 방문차 평양 출발
- 유럽연합대표단, 북한과의 「제3차 정치대화」 마치고 평양 출발
- 미 국회 하원의원 「토니 홀」 일행, 평양 출발

■ 11.29(수)

- 「직맹」 창립 55돌 기념보고회 개최(중앙노동자회관)
- 나남 탄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당 중앙위 「감사문」 전달모임(중방)
- 「위대한 영도 아래 양어의 나라로 전변되는 내 조국」 보도(중방)
- 김영남-나미비아 「삼 누조마」 대통령간 회담 개최(만수대의사당)
- 북한과 나미비아 사이의 부문별 회담 개최

■ 11.30(목)

- 김정일, 정평군 금진강 발전소 언제건설장·함흥시 원료기지농장 등 현지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 5개기관 군인·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보도
- 「인민무력부 선물관」(30여개 전시실, 1,300여점의 선물 전시) 개관식 개최(평양)
- 청년영웅도로 건설성과 전시회 개막식 개최(청년중앙회관)
- 「전국 직맹 모범 교양일군회의」 개최(중앙노동자회관)
- 제3차 「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28~30 개최(인민문화궁전)
- 김정일의 강원도 토지정리 업적을 칭송하는 헌시비 제막식(고산군 탄정리)
- 제2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비행기로 서울과 평양에 도착
- 나미비아 대통령 「삼 누조마」 일행 평양 출발
- 「일·조 국교촉진국민협회」 대표단(단장: 무리아마 도미이찌 전 수상) 평양 도착

■ 12.1(금)

-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조업
- 남북 양측 이산가족방문단,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가족단위 상봉
- “요즘 남조선에서 엄청난 빚에 짓눌려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중방)
-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대표단과 「일·조 국교촉진국민협회」 대표단간 회담 개최(인민문화궁전)
-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과거청산이 없는 관계개선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평방)

■ 12.2(토)

-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이 보낸 희귀한 천지 산천어(※길이 85cm, 무게 7.7kg. 15년생) 전달모임 진행
- 전국 고등중학교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및 타자경연 진행(11.19-22, 평양)
- 무진대청년탄광의 새 탄층개발에 기여한 전국 청년고속도굴진경기 참가 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12.1)

■ 12.3(일)

- 노동신문 논평, ‘사회보상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보도(평방)

■ 12.4(월)

- 내각 위원회·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강원도 세포군 내평발전소 참관
- 체신성 자재사업소 등 7개 기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
- 수산성 양어관리국, 올해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메기공장과 양어장 신설 및 개건 확장 보도(중앙통신)
- 「큰물피해대책위」 대변인, 국제사회 및 유엔의 2001년도 인도주의 협조 제공에 謝意표시 담화 발표
- 조선노동당대표단(단장: 주러대사 박의춘), 러시아 공산당위원장 「젠나지 쥬가노프」와 면담

■ 12.5(화)

- 김정일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50 군부대 시찰 및 황해남도 토지 정리사업 현지지도
- 退水를 이용하는 북창화력연합기업소 메기공장 준공식 진행
-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결의모임 진행 (청산리 김일성동상앞)
-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駐타오스 신임대사 최병관, 라오스 주석 「캄타이 시판돈」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고 보도(중방)
- 「일-조국교축진국민협회」 대표단(단장: 前 총리 「무리아마 도미이찌」), 평양 출발
- 중국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단장: 부주석 서석징), 평양 도착
- 중국 수력발전대표단(단장: 국가전력공사 부총경위 주대병), 평양 도착

■ 12.6(수)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34권(※'65.1-2월까지의 김일성 연설·결론·담화 등 26편 수록) 발간
- 육해운성대표단(단장: 육해운상 김영일), 중국방문차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2.7(목)

- 김정일위원장,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여러 공장·기업소들을 현지지도
- 기록영화 '청년영웅도로여, 길이 전하라' 제작 보도(중앙TV)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평성)
- 체신성 및 약전공학연구소·3.4일공장의 노동자·기술자·과학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 함흥시 광포호수의 논별개간공사 관련 노동신문 글 '오랜 세월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옥토로' 제하 보도(중방)
- 김정일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기술혁신전시회 현지지도 30돌 즈음 「영화부문 기술혁신전시회」 개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센터 청년과학자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
- 함흥시 청년염소공장 조업

- 대남수재물자 제공(※'84.9) 관련 '남녘겨레들에게 사랑과 은정을 베푸 시어' 제하로 보도(평방)

■ 12.8(금)

- 평남 온천양어장 준공

■ 12.9(토)

- 함흥시 원료기지농장에 김정일이 보낸 윤전기재 전달모임 진행(12.8, 함흥광장)
- 김일성의 서호수산사업소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개최(12.8)
- KEDO 대표단, 고위급 전문가협상에 참가차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단장: 부주석 서석징),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2.10(일)

- 함경남도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11.30자)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 진행(함흥광장)
- 순천화력발전소 메기공장 준공
- 순천토기와공장 조업
- 함경북도 청진시 기초식료품공장 조업
- 함경북도 철보산합영회사 조업

■ 12.11(월)

- 대흥단군 종합농장 및 삼지연군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11.26자)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 각각 진행
- 황해북도 사리원기초식료품공장 조업
- 애국사이다공장, 김정일의 혁명사적비 건립 제막
- 청류관, 「2중 3대혁명 붉은기」 수여모임 진행
- 평양프로그램센터, 다매체 프로그램 '조선의 역사와 민속'을 새롭게 연구개발
- 양강도내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대흥단군 및 포태종합농장 현지 지도시)을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 개최(혜산시)
- 황남도 해주기초식료품공장 조업
- 조-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2차 회의 진행(평양)

■ 12.12(화)

- '일심단결과 선군정치' 보도(평방)
- 외교단사업국 승용차수리소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 영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결정 및 대사급 외교대표부 교환 합의 관련 공동 보도 발표
- 일본 민주당대표단, 평양 출발
- KEDO대표단, 평양 출발
- 중국 수력발전회사대표단(단장: 국가전력공사 부총경리 주대병), 평양 출발

■ 12.13(수)

- 생산문화 및 생활문화 확립에서 모범을 보인 채취공업성·육해운성 등 여러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 평남 문덕군 소재 김일성화·김정일화 은실 개관
- '위대한 영도로 세차게 타오르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중방)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일회의 진행(평양)
- 주중 신임대사에 '최진수'를 임명하였음을 보도(중방)
- 김정일의 금년 대외활동과 관련 '위대한 존함 누리에 빛난다' 제하 보도(중방)

■ 12.14(목)

- 생산문화·생활문화 확립에서 모범을 보인 채취공업성·육해운성 등 여러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 평남소재 '김두순이 일하는 목장'에 대한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
- 개성시소재 개성기초식품공장 조업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일회의 진행(평양)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장 전금진, 남측대표단 위해 연회 개최(평양고려호텔)
- 러시아 국가수산위원회대표단, 조-러어업공동위원회 제14차 회의 참가차 평양 도착

■ 12.15(금)

-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는 「평양기초식품공장」 조업
- 평남도 「북창기초식품공장」 및 강원도 「원산기초식품공장」 조업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일회의 진행(평양)
- 노동신문 글, '자주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은 막을 수 없다 :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 6개월간을 총화합' 보도
- 주중 전대사 주창준, 중국 주식 '강택민'을 작별 방문
- 주이디오피아공화국 신임대사 오남중, 동국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사실 (12.7자) 보도(중방)
- 양형섭·최영립 등 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금진강 언저리 발전소 등 함경남도내 여러 곳을 참관(14-15)

■ 12.16(토)

- 함남 정평군 근로자 및 함흥시 원료기지공장 종업원들, 김정일의 현지 말씀(11.30자)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 각각 진행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2.12-16, 평양)
-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2.17(일)

- 전국 「농근맹」 해설강사들,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 및 충성의 결의 모임 진행(인민문화궁전)
- 「전국 낱새 및 버섯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12.18(월)

- 김정일 국방위원장,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 3대혁명전시관 등 9개 단위 일꾼 및 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대성종합직매점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진행
- 노동신문 논평, '막을 수 없는 흐름' 보도(중방)
 -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 등 7개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관련
- 당중앙위 국제부대표단(단장: 부장 김양건),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부주석 胡錦濤와 담화

■ 12.19(화)

- 김정일,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약품연구소 및 주사기공장 현지지도
- 前 주중대사 주창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李鵬 작별 방문
- 육해운성대표단(단장: 육해운상 김영일), 중국방문 마치고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12.20(수)

- 삼지연군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11.27자)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
- 경공업성 피복연구소, '절개배분방식'을 원용한 의류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 2000년 중 각종 시설물의 건설성과 선전 보도(중방)
- 100항차 수송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무역집배 '보통강호' 선원들에게 당 중앙위 「감사」 전달모임
- 조선인민군 김화선소속부대, 김정일의 현지지도사적비 제막
- 대흥단군에서 생산한 감자전분의 평양도착 사실 보도(중방)
- 주중 신임대사 최진수,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江澤民에게 신임장 제정
-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4차 회의 합의서 조인(평양)

■ 12.21(목)

-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9돌 기념글발 제막(금강산)
- 우암젓소목장과 나선시 편의봉사관리소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 내각 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황해남도 연안군·청단군 토지 정리사업 현장을 참관
- 함남도 영광청년양어장 준공
-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진행(판문점 「통일각」)
- 러시아연방 국가수산위원회대표단(단장: 수산위원회 원동수산총국 부총국장 「블라지미르 싸우토프」), 평양 출발

■ 12.22(금)

- 인민군대 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객화차대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대성종합직매장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 각지 시·군구역들의 농업근로자들,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과 두벌농사 방침 관철을 위한 대흥단군 농업근로자들의 호소에 호응하는 꺾기모임
- 숙천군,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

■ 12.23(토)

-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12.24(일)

- 평남 평성시, 백두산 3대장군 혁명사적비 제막
- 황남 삼천군,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비 제막
- 10.5자동화기구공장,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적비 「빛나라 자동화공업, 역사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자욱이여」 제막
- 김일성의 평안남도 당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
- 평양시 삼석구역 성문혁명사적지 복원 준공
- 자강도 태남2호발전소 조업
- 자강도소재 인민군 방인범소속부대, 부남2호발전소 조업
- 황북 서흥군 범안양어장 준공

■ 12.25(월)

- 재정성 부상 장성일, 주북 유고대사와 「양국 정부 사이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인(평양)
- 중앙통신 논평, 유엔 등 국제사회의 내년도 대북지원 호소와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과 선의의 표시」로 謝意를 표시
- 농업부문 26호 모범기대 운전공들의 경험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혜산기초식품공장 조업식 및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 12.26(화)

- 무역집배 '은청년호' 선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문」 전달모임
- 원산공장 조업
- 강원도 고산토기와공장 조업
- 논평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 보도(평방)
- 정부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김영일), 기네방문 마치고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중방)

■ 12.27(수)

- 김정일위원장, 인민군 제 395부대 및 제 415군부대 군인들이 건설한 발전소 시찰
- 노동신문 사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자' 보도(평방)
- 최영남소속부대 휴양소,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비 제막
- 군민용산발전소 조업
-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

■ 12.28(목)

- '사회적 시책과 사회주의의 우월성' 보도(평방)
- 援軍美風을 높이 발양한 창광수출품피복공장·평양온실공장 등 여러 단위의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정령, 무역상을 '강정모'에서 '이광근'(前 무역성 종합설비수출입회사 사장)으로 교체 임명
- 주요 대상건설을 조기 완공하는데 기여한 당원돌격대 지휘관·대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청년중앙회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평양 고려호텔)

▣ 12.29(금)

- 함남 함흥-서호간 철길 전기화공사 개통식 진행(서합홍역)
- 평남 순천시 동암중소형발전소 준공
-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 등 10개 기관에 김정일 「감사」 전달
- 정련애국사이다공장,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함주군 구상혁명사적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평원군,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

▣ 12.30(토)

- 노동신문 정론(12.29자), '우리는 감회깊이 추억하리라,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을 보내며' 보도(중방)
- 산림조성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김정숙군·갑산군 등 19개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하는 모임 각각 진행
- 녹음구성,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승리의 한해' 보도(평방)
- 정론 '위대한 신념의 장정' 보도(중방)
-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평양 출발

▣ 12.31(일)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예술출판사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 진행